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만주전설집 편찬과 개국전설 재편에 관한 연구
- 193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박 광 은

만주전설집 편찬과 개국전설 재편에 관한 연구
- 193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현 설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박 광 은

박광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6월

위 원 장 C. La Shure

(인) 

부위원장 서철원

(인) 

위 원 조현설

(인) 

국 문 초 록

본 논문의 목적은 1930년대 후반 『만주의 전설과 민요』, 『만몽전설집』,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 『만주야화』에 수록된 부여와 고구려의 개국전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근대 초기 한국 설화의 존재 양상을 검토하는 것에 있었다. 다섯 편의 문헌을 만주전설집으로 통칭하고, 만주전설집이 수록한 개국전설을 재편집해 구축하려 했던 정치적 논리와 그 함의를 규명하고자 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2장에서는 만주전설집의 서지 사항을 살펴보고, 그 성격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개별 문헌이 가진 공식성의 수준을 가늠했다. 공식성이 가장 높은 문헌은 『만주의 전설과 민요』였는데, 그만큼 내용 편제와 구성도 체계적이었고, 편찬 의도의 이념성도 명확했다. 반면 공식성이 가장 낮은 문헌은 『만주야화』였다.

3장에서는 특히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 주목해,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개국전설의 재편집 방식과 의미를 분석했다. 개국전설의 출전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논형』 등의 문헌이었다. 만주전설집은 이 문헌에서 개국전설을 수집하고, 여기에 사진, 서문, 논평, 주석, 삽화 등을 부가해 재편집하고 있었다. 이는 개국전설을 만주에 얹힌 전설로 재규정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1930년대의 전설 개념은 그 자체로는 오늘날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을 이상화하는 향토 담론과 결합해 그 영향을 받았다. 개국전설 역시 1930년대 전설 개념에 포섭되어 있었다. 따라서 개국전설은 만주전설집 문헌의 구성적 맥락에서 향토 담론의 구현자이자 매개자로 기능하면서, 다른 전설을 통괄하여 만주의 역사 계보와 심상지리를 구축했다. 전설을 활용해 구축된 역사와 지리는 다시 만주국에 전유되면서, 그 건국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4장에서는 3장의 고찰을 토대로, 개국전설이 구축한 만주사 계보의 위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당시의 역사 서술도 만주의 역사 계보를 구축하면서, 일본과 만주의 관계를 강조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역사와 전설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바, 전설을 활용해 역사 계보를 구축한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이는 전설이 가진 진실성과 심성적

호소력을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만주국은 하나의 국가임에도, 그 역사 계보가 전설 층위에 머물렀던 이유도 확인하고자 했다. 사실상 만주국은 일본의 지배 영역으로, 제국 일본의 향토였다. 따라서 그 계보는 신화가 아니라 전설 층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개국전설이 구축한 만주사 계보의 유포와 확산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만주사 계보를 유포하는 기능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 문헌은 그 자체로 수차례 재출간되는 한편, 다른 만주전설집의 편찬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가운데 하나인 『만주야화』는 상업적으로 성공하면서,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서 전제한 만주사 계보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다만 본래 의도한 바인 개국전설의 진지성을 지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는 향토 담론의 전개와 함께 발생한 내적 균열로 인해, 개국전설의 중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주 요 어 : 만주전설집, 개국전설, 전설, 재편, 향토, 만주국, 역사, 신화, 계보
학 번 : 2016-27999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목표와 연구사 검토	1
1.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5
2. 만주전설집 자료와 성격	10
2.1. 자료 개관	10
2.2. 자료의 성격	30
3. 만주전설집 소재 개국전설의 재편 방식과 의미	48
3.1. 개국전설 재편의 방식	48
3.2. 개국전설 재편의 의미	68
4. 만주전설집 편찬과 개국전설 재편의 역사적 맥락	81
4.1. 만주사 구축과 전설의 역사화	81
4.2. 만주사 계보의 확산과 균열	92
5. 결론	99
참고문헌	102
日文抄錄	108

표 목 차

[표 1]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판본 사항	13
[표 2]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목차와 내용	15
[표 3]	『만몽전설집』의 판본 사항	22
[표 4]	『만몽전설집』의 목차와 내용	22
[표 5]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의 판본 사항	29
[표 6]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의 목차와 내용	29
[표 7]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판본 사항	35
[표 8]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목차와 내용	36
[표 9]	『만주야화』의 판본 사항	39
[표 10]	『만주야화』의 목차와 내용	40
[표 11]	『만몽전설집』 수록 사진	49
[표 12]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삽화	66

1. 서론

1.1. 연구 목표와 연구사 검토

본 논문은 1930년대 후반에 편찬된 만주전설집에 실린 부여와 고구려의 “개국전설(開國傳說)”에 주목하여, 20세기 초반 한국 설화의 존재 양상을 살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국전설 수록을 통해 만주전설집이 구축하고자 했던 정치적인 논리와 함의를 규명하여, 일제강점기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만주전설집의 편찬과 개국전설이 가지는 위상과 기능에 관해 고찰할 것이다.

오늘날 설화 연구의 관점에 따르면, 부여와 고구려의 설화는 “건국신화(建國神話)”이다. 같은 설화를 ‘전설’ 갈래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던 1930년대 후반 만주전설집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인 만주전설집의 관점이 함의하는 의도와 맥락을 살리기 위해 “개국전설”이라는 역사적인 용어를 따른다. 보다 구체적으로 1930년대 후반의 만주전설집에 관해 서술할 때에는 “개국전설”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설화 연구의 관점에 관해 서술할 때에는 “건국신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지배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본 동양사학계는 이른바 “만선사(滿鮮史)”를 고안했다. 만선사란 만주와 조선을 하나의 지역 단위로 설정하고, 이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적 움직임이다.¹⁾ 만선사의 기초는 “만선불가분론(滿鮮不可分論)”인데, 이는 일본의 견고한 한반도 지배를 위해서는 만주의 영유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만선불가분론은 만주와 조선을 함께 거론했지만, 주된 관심사는 만주에 있었던 것이다.²⁾ 이는 일본의 만주 진출을 정당화하는 정치적인 논리였고, 이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역사학적 기획이 바로 만선사였다.

만선사 기획의 중심에 고구려가 있었다. 만선사의 주장에 따르면,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를 동시에 지배했기 때문에, 만주 최초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 역시 고구려를 모범적인 사례로 삼아, 만주와 한반도를 동시에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 만선사의 함의였다.³⁾ 일본이 참고해야 하는 사례

1) 정상우, 「만선사와 일본사의 위상」, 『한국사상사학보』 28, 한국사상사학회, 2013, 325면.

2) 박찬홍, 「만선사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한국사학보』 29, 고려사학회, 2007, 13면; 이노우에 나오키 지음, 박성현 옮김, 「고구려사와 만선사」, 『동서인문학』 53,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88~190면.

3) 이노우에 나오키, 「근대 일본의 고구려사 연구: ‘만선사’·‘만주사’와 관련해서」,

이자, 실상 만주와 한반도를 동시에 지배했던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고구려는 만선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부여도 고구려의 연장선상에서 계보화된다. 이는 만주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1930년대 초반 일본은 만주 전역을 장악하고 만주국을 건국한다. 신생 만주국의 역사적 계보를 확립하기 위해 일본은 만주사를 다시 서술한다. 이때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부여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부여는 고구려 이전에 존재했던 만주 최초의 문명 집단이자 농업국가로 간주되었고, 고구려는 만주 최초의 독립국가로 재규정된다.⁴⁾ 역사 계보의 재구축을 통해 고구려뿐만 아니라 부여까지 만주사 계보로 편입하여, 만주국의 연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만주국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구축 작업이었다.

만주국을 내세운 일본의 이데올로기 구축 작업은 역사 서술을 넘어, 1930년대 후반에는 교육과 문화 영역으로 확장된다. 설화의 활용도 하나의 수단이었다. 만주의 전설을 수집해 일본어로 출간한 만주전설집의 편찬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개종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여와 고구려의 개국전설을 수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설화 조사와 편집을 통해 편찬된 만주전설집은, 일본어로 기술된 식민지 시기 한국 설화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⁵⁾ 다만 이

『고구려발해연구』 18, 고구려발해학회, 2004, 363면.

4) 즉 만주 최초의 국가 부여는 한(漢)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속국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박찬홍, 「‘만선사’에서의 고대 만주 역사에 대한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6, 한국고대사학회, 2014, 151~156면.

5) 일본어 설화집 연구의 필요성은 한국 설화 연구사의 이른 시기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미 1971년 간행된 『구비문학개설』에서도 민담 자료를 개관하면서, 주요 일본어 설화집의 서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1978년 인권환이 한국 민속학사를 정리하면서 일본어 설화집의 서지를 정리한 바 있으며, 1979년 『한국구비문학대계』 편찬을 위한 예비 작업의 일환으로 역시 서지 정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서지 정리 작업을 통해 주요 설화집의 존재가 알려졌고, 참고할 수 있는 목록이 만들어졌다. 다만 추가적인 자료의 제시나, 설화집의 편찬과 구성에 관한 체계적인 고찰이 뒤따라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1990년대 이후 1924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동화집(朝鮮童話集)』을 중심으로 일부 동화집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설화집의 소개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 시기 일본어 설화집을 언급한 대표적인 논저로 다음을 거론할 수 있다.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한글개정판), 일조각, 2006, 81~84면; 인권환, 『한국민속학사』, 열화당, 1978, 182~203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구비문학 조사방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44~46면. 1990년대 이후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을 거론할 수 있다. 손동인, 「한국전래동화사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1, 한국아동문학학회, 1990; 조희웅, 「일본어로 쓰여진 한국설화/한국설화론 (1)」, 『어문학논총』 24,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5; 김용의, 『흑부리 영감과 내선일체』,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권혁래,

자료는 지금까지 한국 설화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물론 만주전설집 자료를 향한 관심이 완전히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최근 식민지 시기 일본어 설화집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김광식은, 새로운 문헌 자료를 소개하면서 기초적인 문헌 고증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⁶⁾ 본 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주전설집 역시 김광식에 의해 그 존재가 언급된 바 있다.⁷⁾ 하지만 만주전설집의 경우 아직 기초적인 문헌 고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료가 그 내용과 구성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이념적 층위에 관한 해석 작업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1930년대 후반에 출간된 만주전설집에 관한 문헌 고증을 수행한 이후, 만주전설집이 부여·고구려 개국전설을 재편(再編)하는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⁸⁾ 이른바 “개국전설” 자체와 만주전설집의 전체적인 내용과

『조선동화집(1924) 연구: 우리나라 최초의 전래동화집』, 보고서, 2013; 권혁래, 『일제강점기 설화·동화집 연구: 우리 옛이야기의 정체성 찾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조은애, 「일제강점기의 조선설화집과 박물학: 미와 다마끼의 『전설의 조선』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98, 한국일어일문학회, 2016.

- 6) 金廣植, 『植民地期における日本語朝鮮説話集の研究: 帝國日本の「學知」と朝鮮民俗學』, 勉誠出版, 2014; 김광식·이시준,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적 연구』, 제이앤씨, 2014; 김광식, 『식민지 조선과 근대설화』, 민속원, 2015; 김광식, 「1920년대 일본어 조선동화집의 개작 양상: 『조선동화집』(1924)과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8, 열상고전연구회, 2015; 이시준·김광식 외,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적 연구 2』, 제이앤씨, 2016; 김광식, 『근대 일본의 조선 구비문학 연구』, 보고서, 2018; 김광식, 「근대 일본의 조선 설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열상고전연구』 66, 열상고전연구회, 2018.
- 7) 金廣植, 「日本語朝鮮説話集と新羅神話・伝説」, *Ibid.*, 2014, p.36; 김광식, 「근대 일본의 신라 담론과 일본어 조선설화집에 실린 경주 신화·전설」, 위의 책, 2015, 30면; 김광식, 「재조 일본인과 조선 구비문학의 전개」, 위의 책, 2018, 243면.
- 8) 주지하다시피 구비문학에는 고정적인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유형과 각편의 ‘변이’ 뿐이다. 하지만 건국신화의 경우는 다소 특수한 전승의 방식을 상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텍스트의 변이가 특정한 역사적 국면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일어났을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현설은 이와 같은 경우를 다루기 위하여 “재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이어져 내려온 고대의 설화가,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편집과 재구성을 거쳐 전설집에 실리는 다분히 의도적인 현상을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재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재편”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확장하여, 만주전설집 텍스트 구성의 논리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연구 대상인 만주전설집은 기존의 설화를 수집하여,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의도를 담아 편찬한 문헌이기 때문에, 그 텍스트 구성 역시 의도성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2003, 27면.

구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전설집이 개국전설의 수록을 통해 구축하고자 한 논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만주전설집이 만주사 계보의 구축을 위해 부여와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동원한 의도가 드러날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 초기 한국 설화 존재 양상의 한 국면까지도 조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만주전설집”은 아래 다섯 편의 전설집을 가리킨다. 출간 시기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가) 滿洲事情案内所 編, 『滿洲の傳説と民謡』, 新京: 滿洲事情案内所, 1936.
- (나) 細川清, 『滿蒙傳説集』, 東京: 滿蒙社, 1936.
- (다) 谷山つる枝, 『滿洲の習俗と傳説・民謡』, 東京: 松山房, 1938.
- (라) 喜田瀧治郎, 『この土地この人 滿洲の傳説』, 大連: 滿洲教科用圖書配給所出版部, 1940.
- (마) 衛藤利夫, 『滿洲夜話』, 奉天: 吐風書房, 1940.

(가)·(나)·(다)·(라)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소개된 자료이다.⁹⁾ (가)의 경우 저자와 내용에 관해 일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¹⁰⁾ 다만 이 연구는 교육사 연구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화학적 접근은 물론, (가)에 수록된 부여·고구려 개국전설에 관한 주목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다)·(라)의 경우 문헌이 소개되었을 뿐, 기초적인 문헌 고증이나 해석 작업이 이루어진 바 없다. (마)는 필자가 본 논문에서 새로 소개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설집 다섯 편 모두에 관해 기초적인 문헌 고증과 해석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 전설집 다섯 편을 가리키는 명칭부터 확정한다. 각각의 전설집은 저자와 발행처는 물론, 성격도 서로 다르다. 더불어 전설 외의 다른 자료를 수록하고 있거나, 내용의 양적 측면에서 전설이 주를 이루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전설 이외의 다른 자료를 수록하고 있거나, 내용의 측면에서 전설이 주를 이루지 않는 문헌도 있다.¹¹⁾ 다만 전설집 다섯 편의 공통적인 특징을 추린다면, 부여·고구려 개국전설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과, 1930년대 후반의 만주를 출판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공통점을 기초로 전설집 다섯 편을 통칭해 “만주전설집”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만주전설집의 개국전설은 순수한 창작의 산물이 아니며, 여타의 설화집과 마

9) 金廣植, 「日本語朝鮮說話集と新羅神話・伝説」, *Ibid.*, 2014, p.36; 김광식, 「근대 일본의 신라 담론과 일본어 조선설화집에 실린 경주 신화·전설」, 위의 책, 2015, 30면; 김광식, 「재조 일본인과 조선 구비문학의 전개」, 위의 책, 2018, 243면.

10) 船越亮佑, 「近代日本の移植民政策と國民教育をめぐる國語及び日本語教科書の研究: 日本・米國・「滿洲」の教科書編纂事情と教材採録のあり方を中心に」, 東京學芸大學大学院博士學位論文, 2017.

11) 개별 문헌의 성격과 문헌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2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찬가지로 기존의 이야기를 조사하고 편집해 수록한 것이다. 즉 만주전설집은 구성적인 텍스트이다. 이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텍스트의 구성이 기존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텍스트의 구성은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만주전설집은 특정한 목적에 근거해, 이야기를 재편하는 과정을 거쳐 편찬된 자료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주전설집은 순수하게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지도, 순수하게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지도 않으며, 중첩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¹²⁾

이런 이유 때문에 만주전설집과 개국전설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때에 관심을 두어야 할 바는, 비단 개국전설의 내용 분석만이 아니다. 1930년대 후반의 만주라는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 아래, 기존의 이야기를 소환하여 이야기하는 행위 자체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만주전설집이 기존의 이야기를 재편하는 방식을 하나의 “이야기하는 일(narrating)”로 간주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¹³⁾ 요컨대 이 논문은 만주전설집이 특정한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이야기를 재편하여 수록하는 행위의 국면인 “담론(discourse)”의 층위에 주목한다.¹⁴⁾

12) 클리퍼드 기어츠(Clifford Geertz)는 현지 조사의 결과물인 민족지(ethnography)가 조사 현장의 정황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과학적인” 매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민족지는 조사의 현장에서의 경험을, 조사자 자신의 개인적인 인식에 의존하여 재구성하는, 다분히 창조적이고 구성적인 글쓰기 작업에 근거한 “문학적인” 매체라는 것이다. 즉 민족지는 연구자의 상상력에만 의존하는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며, 역으로 연구자의 인식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은 텍스트도 아닌, 중첩적인 성격을 가진다. 민족지 연구와 마찬가지로 설화 연구 역시 결국 현지 조사 작업에 근거한 연구의 성격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민족지에 관한 기어츠의 통찰을, 설화집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지에 관한 기어츠의 통찰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고하였다. 클리퍼드 기어츠 지음, 김병화 옮김, 『저자로서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 에번스프리지드, 말리노프스키, 베네딕트』, 문학동네, 2014.

13) “이야기의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이다. 이야기되는 것(narrated)에 대립하는 이야기하는 일(narrating).” 제럴드 프린스 지음, 이기우·김용재 옮김, 『서사론사전』, 민지사, 1992, 64면(표제어 “discourse”).

14)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담론”이라는 개념은 구조주의 서사학에서 제안한 것이다. 구조주의 서사학에서는 서사를 “스토리(story)”와 “담론(discourse)”의 이항대립적인 범주를 통하여 파악한다. 두 범주의 설정에 관해서는 다양한 용어와 논의가 존재한다. 다만 정리하자면 스토리는 서사의 내용 측면을 가리키고, 담론은 서사의 표현 측면을 가리킨다. 서사의 의미는 내용 측면인 스토리의 내적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스토리를 중개하는 담론의 층위를 무시할 수는 없다. 서사학에서는 스토리와 담론의 이항대립적인 범주를 설정하여, 이야기하는 행위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표현 층위의 의미를 아울러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의 스토리를 다양한 표현의 맥락에서 활용하는 담론의 층위에 천착해야

담론의 층위에 주목한다고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¹⁵⁾ 본 논문은 만주전설집을 구성적인 텍스트로 규정한 바, 만주전설집 자체의 구성적인 특성에 주목한다. 만주전설집이 개국전설을 재편하기 위해 기존의 이야기를 편집하고 배열하는 방식 자체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때 구체적인 재편의 방식은 전설집이 이야기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스토리에 덧붙이는 다양한 서사적 ‘장치’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만주전설집의 담론 층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서사적 ‘장치’를 스토리와 함께 주목할 것이다.

서사적 ‘장치’의 사례로는 개국전설과 함께 수록된 여타의 전설, 저자의 서문, 내용을 설명하는 범례(凡例), 사진이나 삽화를 위시한 시각 자료, 이야기를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개념과 체제, 해설을 위한 논평과 주석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즉 서사적 ‘장치’란 서사학에서 언급하는 이른바 “결텍스트(paratext)”이다.¹⁶⁾ 결텍스트는 제목, 목차, 서문, 후기, 삽화, 표지 등 처음부터 서사와 함께 동반되는 다양한 자료를 지칭하는데, 이는 서사의 의미 해석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만주전설집의 결텍스트가 수행하는 기능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텍스트는 개국전설 스토리의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견인하기 위해 작동한다. 따라서 만주전설집이 이야기하는 방식은, 이야기하는 내용의 의미 해석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 논문은 결텍스트를 개국전설 본문과 함께 고려한다.

결텍스트를 고려하면서는, 특히 오늘날의 관점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의식하고자 한다. 만주전설집이 이야기를 재편하기 위해 결텍스트를 활용하는 방식 가운데, 분명히 오늘날의 관점과 어긋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모두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만주전설집을 편찬한 당대의 관점에

하는 설화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서사학의 구도와 이항대립적인 범주 설정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저를 참고하였다. 제라르 즈네뜨 지음, 권택영 옮김,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S. 리몬 케넌 지음, 최상규 옮김,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1999; S. 채트먼 지음, 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담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푸른사상, 2003; H. 포터 애벗 지음, 우찬제 외 옮김, 『서사학 강의: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 지성사, 2010; 박진, 『서사학과 텍스트 이론: 토도로프에서 데리다까지』 (개정증보판), 소명출판, 2014.

15)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스토리를 특정한 국면에서 다시 이야기한다는 구비설화의 연행(演行)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구비설화 연구에서는 담론의 층위에 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연행과 전승의 주체인 개별 이야기꾼이 설화를 구연하는 양상에 관해 살핀 화자(話者) 연구의 사례를 언급할 수 있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복수의 화자에 의한 설화 구연 양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의 “형상화 방식”에 주목한 연구를 거론할 수 있다. 구비설화 연구에서 담론 층위에 관한 연구사는 다음의 논문에서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김준희, 「『오늘이 힘내기』 설화 연구: 담론 층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7~8면.

16) H. 포터 애벗 지음, 우찬제 외 옮김, 앞의 책, 69~72면.

서는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만주전설집의 구성은 무작위적이니 않으며, 오히려 특정한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논리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오늘날의 관점과 만주전설집의 재편 방식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만주전설집의 정치적인 논리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⁷⁾ 이때 차이를 의식하기 위한 오늘날의 기준점은 기본적으로 『구비문학개설』이다.¹⁸⁾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만주전설집 자료를 개관하여 기초적인 문헌 고증 작업을 수행하고, 자료의 실상을 파악한다. 우선 문헌의 서지사항과 내용을 살피고, 자료의 가치와 성격을 상세히 논의한다. 이 논의를 통해 만주전설집 개별 문헌의 위상과, 문헌 사이의 영향 관계를 밝힌다.

3장에서는 만주전설집 소재 개국전설의 실제 재편 방식을 살핀다. 이때 개국전설의 본문뿐만 아니라 곁텍스트를 함께 살피면서, 오늘날의 관점과는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에 주목한다. 우선 만주전설집이 수록한 개국전설의 출전을 밝히고, 개국전설의 본문에 덧붙는 곁텍스트를 함께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전설집이 의도하는 이야기 해석의 방향성에 관해 조망한다. 이어서 ‘전설’ 범주의 의미를 고찰하고, ‘전설’ 개념과 범주가 만주전설집의 전체적인 구성과 맞물려 어떤

17) 여기서 제시한 방법론적 논의는 해럴드 가핑클(Harold Garfinkel)이 정초한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의 연구 방법에서 착안한 것이다. 민속방법론에서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주목한다. 사람들은 내적 합리성을 발휘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한다. 문제는 내적 합리성이 명시적인 합의나 계약 없이도, 사회적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통용된다는 것이다. 가핑클은 이와 같은 현상을 연구의 과제로 삼는다. 즉 복수의 사회 구성원이 일상 속에서 나름대로의 합리적 질서를 조직적으로 구축하고 산출하는 방법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가핑클은 “위반 실험(breaching experiment)”을 민속방법론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제안한다. 위반 실험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한 사회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기대한다고 추측할 수 있는 바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가핑클은 실험 상황에서 실험자가 일으킨 위반에 피실험자가 반응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와 그 기저에 있는 합리적인 일상생활의 논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차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사회 구성원 사이에 공유하는 질서의 인식론적인 기반을 포착하고자 한 것이다. 민속방법론의 위반 실험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고하였다. Harold Garfinkel, *Studies in Ethnomethodology*,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7; 손민호·조현영, 『민속방법론: 현상학적 사회학과 질적 연구』, 학지사, 2014.

18)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구비전승의 한국문학적 고찰』, 일조각, 1971. 본 논문에서 주로 참조한 판본은 한글개정판이다. 한글개정판은 원저의 국한문혼용 문체를 한글전용 문체로 개정한 것이다. 장덕순 외, 앞의 책, 2006. 한편 『구비문학개설』과 함께 아래의 논저 역시 주요한 참조의 기준으로 삼는다.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개정판), 월인, 2002.

담론적 효과를 생산하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한다.

4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토대로 만주전설집의 편찬과 개국전설의 재편이 당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가지는 의의에 관해서 살피고자 한다. 우선 만주전설집의 기능에 관해 고찰한다. 당대의 역사 관련 논저와 신화 관련 논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만주전설집을 통해서만 구축할 수 있었던 의미망에 관해 검토한다. 이어서 만주전설집이 구축했던 의미망이 확산되고 균열하는 양상에 관해서도 조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만주전설집 자료의 성격과 의의가, 더불어 전설집이 수록한 부여와 고구려의 개국전설이 당대의 맥락 속에서 수행했던 기능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

2. 만주전설집 자료와 성격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만주전설집에 관해서는 기초적인 문헌 고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우선 만주전설집 자료를 개관하고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저자와 발행처를 위시한 기본적인 정보를 고증하고, 서지적인 특징과 내용을 살핀다. 더불어 서문 등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만주전설집 각각의 편찬 목적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개별 전설집의 성격과 위상을 규정할 것이다. 나아가 만주전설집 사이의 영향관계 역시 재구해보고자 한다. 문헌을 개관하는 순서는 출간 시기의 순서를 따른다.

2.1. 자료 개관

2.1.1. 『만주의 전설과 민요』

『만주의 전설과 민요(滿洲の傳説と民謡)』는 1936년[康德 3] 6월 14일 만주국新京(新京, 현재의 長春)의 만주사정안내소(滿洲事情案内所)에서 간행한 만주의 전설·민요 자료집이다. 가격은 60전이다. 만주사정안내소는 만주국의 관광과 현지 조사를 담당하는 국책기관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주 관련 출판물의 간행을 주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¹⁹⁾ 개중 특히 만주사정안내소에서 직접 조사와 편찬에 관여한 총서(叢書)가 존재하는데, 바로 ‘만주사정안내소보고(滿洲事情案内所報告)’이며, 확인 가능한 분량만 1933년부터 1943년까지 총 111호에 달한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이 총서에 속한다. 따라서 이 문헌은 국가 기관이 편찬한, 공식적인 조사 보고서라는 성격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19) 만주사정안내소는 만주국 건국 이후 등장한, 만주국의 관광 사업을 담당하는 국책기관이었다. 1933년 1월 관동군(關東軍) 특무부의 지령에 기초해 ‘만주경제사정안내소(滿洲經濟事情案内所)’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본래 상공회의소와 도서관·관광협회 등을 겸하는 조직이었으나, 1934년 1월 사업 부문의 확대와 함께 ‘만주사정안내소’로 개칭하였다. 1936년 9월 특수회사 만주홍보협회(滿洲弘報協會)의 설립과 함께, 만주국 당국이 신문사와 통신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통합되었다가, 1938년 1월 만주국 정부의 특설 외곽기관으로 독립하였다. 일본인 관광객의 만주 여행, 업무상의 현지 시찰, 출판물의 간행 등이 만주사정안내소의 주요한 업무였다. 기시 도시히코 지음, 전경선 옮김, 『비주얼 미디어로 보는 만주국: 포스터·그림엽서·우표』, 소명출판, 2019, 65~67면.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만주사정안내소보고의 제 40호인데, 제 30호인 『만주의 습속(滿洲の習俗)』과 함께 문화적인 영역을 다루는 대표적인 보고서이다.²⁰⁾ 실제적인 국가 행정에 관한 주제가 다수를 이루는 총서의 목록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드문 경우이다.²¹⁾

만주사정안내소보고 총서의 조사와 편집에는 만주사정안내소가 직접 관여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보고서 작성을 안내소 직원이 직접 수행한 경우와, 위촉 조사원이 수행한 경우를 포괄한다. 제 30호 『만주의 습속』과 제 40호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실상 두 보고서를 집필한 위촉 조사원은 같은 사람인데, 바로 타니야마 츠루에(谷山つる枝)이다.²²⁾

20) 『만주의 습속』은 만주사정안내소보고의 제 30호로, 1935년[康德 2] 9월 30일 초판이 간행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1937년[昭和 12] 4월 15일에, 당시 만주사정안내소를 흡수하였던 만주홍보협회에서, 별도의 출판물로 다시 간행한 것이 『만주국의 습속(滿洲國の習俗)』이다. 『만주국의 습속』의 판권지에서 “쇼와 10년[1935년] 9월 30일 발행(昭和十年九月三十日發行)”과 “쇼와 12년[1937년] 4월 15일 재판 발행(昭和十二年四月十五日再版發行)”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출판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두 자료 사이에 본문 내용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수록하고 있는 사진 자료에서는 전적인 차이를 보인다. 요컨대 전자가 수록한 사진을 후자는 수록하지 않거나, 여타의 사진으로 교체하고 있다. 판권지에서 전자는 만주국의 연호[康德]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일본의 연호[昭和]를 사용하고 있다는 차이점 역시 발견할 수 있다. 『만주의 습속』은 1938년[康德 5]에 개정판을 발행하고, 1939년[康德 6]에는 제 3판을, 1940년[康德 7]에는 제 4판을 발행한다. 『만주의 습속』과 『만주국의 습속』의 내용은 만주의 풍속과 종교에 관한 것이다. 한편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서문과 후나고에 료스케(船越亮佑)의 선행 연구에서는 보고서 제 30호의 이름을 『만주국의 습속』이라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두 자료를 혼동한 결과로 보인다. 滿洲事情案内所 編, 『滿洲の習俗』(四版), 新京: 滿洲事情案内所, 1940; 滿洲弘報協會, 『滿洲國の習俗』, 新京: 滿洲弘報協會, 1937; 船越亮佑, *op. cit.*, 2017, p.119.

21) 보고서의 주제적 범위는 다양하지만, 만주사정안내소 자체가 만주경제사정안내소를 전신으로 삼는 정부의 산하 기관인 만큼, 당대 만주 지역의 정세 판단과 같은 정치적 영역, 산업 현황과 같은 경제적 영역, 인구·자원·자연 환경과 같은 지리적 영역을 다룬 보고서가 다수를 이룬다. 문화적 영역을 다루는 보고서는 위의 두 문헌과 더불어, 제 48호 『만주국의 종교(滿洲國の宗教)』, 제 79호 『만주민속고(滿洲民俗考)』, 제 89호 『만주농촌민요집(滿洲農村民謠集)』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만주농촌민요집』의 경우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민요편과, 이후 새로이 수집한 민요 자료를 통합하여 출간한 문헌이기도 하다. 滿洲事情案内所 編, 『滿洲國の宗教』, 新京: 滿洲事情案内所, 1939; 滿洲事情案内所 編, 『滿洲民俗考』, 新京: 滿洲事情案内所, 1940; 滿洲事情案内所 編, 『滿洲國の宗教』, 新京: 滿洲事情案内所, 1940.

22) 『만주의 습속』서두의 범례와 『만주의 전설과 민요』서문에서는 해당 문헌을 집필한 사람이 타니야마 츠루에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타니야마 츠루에가 집필한 분량 이후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전재(轉載)하고 있다. 이와

타니야마 츠루에의 약력을, 만주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²³⁾ 타니야마 츠루에는 1919년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문과를 졸업했다. 1920년 화가 타니야마 시즈오(谷山靜生)와 결혼하여 성을 야마구치(山口)에서 타니야마로 바꾸었고, 같은 해 만주로 이주하였다. 이후 13년 간 대련(大連)에 거주하면서 만주일일신문(滿洲日日新聞) 기자로 2년 간, 대련여자상업학교 국어과[日本語科] 교사로 10년 간 근무하였다. 이후 1933년 봉천(奉天, 현재의 瀋陽)으로 옮겨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산하의 교육연구소에서 만주국 위탁생에게 초급 일본어를 가르쳤다.²⁴⁾ 이 시기에 만주사정안내소의 촉탁을 받아, 위촉 조사원으로 활동하면서 만주의 풍속·전설·민요 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물이 1935년 출간된 제 30호 『만주의 습속』과, 이듬해인 1936년 출간된 제 40호 『만주의 전설과 민요』이다.²⁵⁾ 1936년 초 겨울에 귀국하여

관련해서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내용을 개관하는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滿洲の習俗』, p.ii; 『滿洲の傳説と民謡』, p.i. 이하 두 문헌을 인용할 경우, 이와 같이 문헌의 제목과 페이지 번호만을 밝히기로 한다. 실상 문헌 서두의 서문이나 범례의 경우, 원문에서는 페이지 번호를 매기지 않고 있다. 다만 인용의 편의를 기하기 위하여, 번호를 매기기 이전의 페이지를 인용할 경우, 소문자 알파벳으로 로마 숫자를 표기하여 페이지 번호로 활용한다. 예컨대 『만주의 습속』의 경우 i에서 ii의 두 페이지가,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경우 i에서 iv의 네 페이지가 본문 이전에 존재한다. 한편 이 두 문헌 역시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는데, 판본에 관한 논의나 판본 사이에 내용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언급이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각주에서 판에 관한 정보는 생략한다. 아래에서 다를 다른 만주전설집의 경우에도, 여타의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같은 인용 방식을 따른 것이다.

23) 아래의 내용은 『滿洲の習俗と傳説・民謡』, p.500과 船越亮佑, *op. cit.*, 2017, pp.119~120에서 서술하는 타니야마 츠루에의 약력을 참고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24)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1906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 지역에 존속했던 일본 최대의 주식회사였다.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로부터 이양 받은 남만주 철도의 이권을 기초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만철(滿鐵)’이라는 약칭으로도 유명하다. 철도 회사를 표방하지만, 설립 당시부터 철도 회사 이상의 역할이 기대되었으며, 국가 기관에 준하는 성격을 부여받았다. 이후 만주의 주요 산업과 철도 주변의 부속지(附屬地)를 지배하고, 조사부(調査部)를 앞세워 다양한 연구와 조사 사업을 수행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때 축적한 역량과 정보를 동원하여, 만철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만주국이라는 국가의 모델을 실질적으로 고안해내기도 하였다. 고안의 범위는 비단 정치·경제적인 영역을 넘어, 문화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었다. 만철이 설계한 만주국의 국가 모델은 이후 일본이 1940년 이후 전시 체제의 국가 모델을 구축할 때 전범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만철은 만주를 제국 일본을 위한 실험실로 활용하였다. 고바야시 히데오 지음, 임성모 옮김, 『만철: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산치럼, 2004, 16~17면, 33~35면.

25) 만철은 1922년 만주의 교육과 교과서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인 관동

도쿄로 돌아왔고, 자신이 소유한 자료를 다시 정리하여 1938년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滿洲の習俗と傳説·民謡)』를 출간하였다.²⁶⁾

국내에 현존하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판본과 소장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⁷⁾

소장처	판	발행 시기	비고
국립중앙도서관(1)	재판	강덕 5년[1938] 11월 20일 인쇄 강덕 5년[1938] 11월 25일 발행	조선총독부 도서관 인장 (청구기호: 朝38-191-10)
국립중앙도서관(2)	재판	강덕 5년[1938] 11월 20일 인쇄 강덕 5년[1938] 11월 25일 발행	조선총독부 도서관 인장
국립중앙도서관(3)	3판	강덕 7년[1940] 8월 1일 인쇄 강덕 7년[1940] 8월 5일 발행	조선총독부 도서관 인장 제 3판 일실 ²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초판	쇼와 11년[1936] 6월 10일 인쇄 쇼와 11년[1936] 6월 15일 발행	속표지에 “김규홍(金奎弘) 박사 기증도서” 인장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재판	강덕 5년[1938] 11월 20일 인쇄 강덕 5년[1938] 11월 25일 발행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재판	강덕 5년[1938] 11월 20일 인쇄 강덕 5년[1938] 11월 25일 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초판	쇼와 11년[1936] 6월 10일 인쇄 쇼와 11년[1936] 6월 15일 발행	

[표 1]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판본 사항

청(關東廳)과 공동출자하여 남만주교육회교과서편집부(南滿洲教育會教科書編輯部)를 설립했다. 이 기관에서 아동문학작가이자 국어[日本語]교육자인 이시모리 노부오(石森延男)가 활동하였는데, 같은 시기 타니야마 츠루에의 남편인 타니야마 시즈오도 여기서 근무하였다. 이시모리와 타니야마 부부는 대련에서 함께 일본 고전을 독서하는 등 사적으로도 교류하였다. 船越亮佑, *op. cit.*, 2017, pp.119~120.

26) 이 문헌은 『만주의 습속』과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통합본인데, 아래의 “2.1.3.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에서 더욱 자세히 고찰하도록 한다.

27) 한편 2007년 일본 도쿄의 혜문사(慧文社)에서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표기 형태를 현대 일본어로 고쳐 다시금 출간한 판본이 존재한다.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서지사항을 제시한다. 谷山つる枝, 『滿洲の伝説と民謡』, 東京: 慧文社, 2007.

28) 이 판본은 제 3판 전체가 일실되어 있다. 제 3판 전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3판 개정 과정에서의 의도적인 배제가 아니라 문헌의 일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책의 서문에서 제 3판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의 내용 자체는 모든 판본이 동일하다. 다만 내용 편제와 판권지 기록에서는 판본 사이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내용 편제에서,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세 개의 큰 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설편(傳説篇)」, 「민요편(民謠篇)」, 「전설의 지나(傳説の支那)」이다. 이때 셋 중의 마지막 편목인 「전설의 지나」를, 초판에서는 책의 정식적인 내용이 끝난 이후 덧붙는 “부록(附錄)”으로 처리하고 있다. 반면 재판과 3판에서는 책의 정식적인 내용으로 포괄하여 “제 3편”으로 처리하고 있다. 판권지의 경우 연도를 표시할 때, 초판에서는 당대 일본의 연호[昭和]를 사용하지만, 재판과 3판에서는 당대 만주국의 연호[康德]를 사용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즉 재판과 3판의 경우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일치하지만, 초판과 재판·3판 사이에는 형식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각 판본 사이에 서문 내용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개정에 관한 서술을 추가한 것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판본 사이의 형식적인 차이를 ‘체제의 변모 과정’으로 간주하고, 개정 과정에서 체제가 변모하는 양상과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체제 변모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면, 최초의 형태에 주목하여 이후의 형태를 시간 순서에 따라 살피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판을 선본(善本)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주로 활용할 것이다.

문헌의 물질적 형태에 관해서도 언급해 둔다. 우선 크기의 경우 가로가 15.1cm이고 세로가 22.2cm이다. 면수(面數)의 경우, 주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초판은 본문이 총 139면이고, 본문 앞의 서문과 범례가 모두 4면이다. 재판의 경우 인쇄상의 차이로 인해 재판은 본문이 138면이고, 본문 앞의 서문과 범례가 모두 4면이다. 3판의 경우 역시 인쇄상의 차이로 인해 본문이 134면이고, 본문 앞의 서문과 범례가 모두 4면이다.

다음으로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헌은 큰 편목인 「전설편」, 「민요편」, 「전설의 지나」 아래 다시 세부적인 제목을 달아 전설과 민요를 정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전설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전설편」에 주목한다. 「전설편」이 수록하고 있는 이야기는 총 23편이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전설을 수록하면서 개개의 전설 본문 앞과 뒤에 이야기에 관한 설명이나,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다. 이는 전설 본문에 관한 일종의 논평이나 주석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큰 특징이기도 하다. 개별 편목과 수록한 전설의 대략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序 (서문)		책을 편찬한 의도와 판본의 내력을 밝히고, 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凡例 (범례)		책이 수록한 전설과 민요 자료의 선별 기준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특성을 개관하면서, 일종의 총론적 논평을 곁들이고 있다.
第一編 傳説編 (제 1편 전설편)		
	원제	해석
1	天の氣で孕まれた東明王 (扶餘の開國傳説)	하늘의 기운으로 잉태한 동명왕 (부여의 개국전설)
2	石の下にゐた金蛙と卵から孵った朱蒙 (高句麗の開國傳説) ²⁹⁾	돌 아래에 있던 금와와 알에서 태어난 주몽 (고구려의 개국전설)
3	木葉山のロマンス (契丹の始祖傳説)	목엽산의 로맨스 (거란의 시조전설)
4	鶴が置いた紅い木の實 (淸の始祖傳説)	학이 둔 붉은 나무 열매 (청의 시조전설)
5	鯨々小話 (淸の始祖傳説)	발발 이야기 (청의 시조전설)
6	老獺稚物語 (淸の太祖に關する傳説)	노달치 이야기 (청 태조에 관한 전설)
7	楡に包まれた骨甕 (淸の太祖に關する傳説)	느릅나무에 안긴 뼈항아리 (청 태조에 관한 전설)
8	薩爾滸戰の奇勝 (淸の太祖に關する傳説)	살이호 전투의 기적적인 승리 (청 태조에 관한 전설)
9	不思議な光線 (淸の太宗に關する傳説)	불가사의한 광선 (청 태종에 관한 전설)
10	爆竹の狙ひ (淸の太宗に關する傳説)	폭죽의 표적 (청 태종에 관한 전설)
11	唐王殿物語 (唐の太宗に關する傳説)	당왕전 이야기 (당 태종에 관한 전설)
12	盛夏の凍結 (唐の太宗に關する傳説)	한여름의 얼어붙음 (당 태종에 관한 전설)
13	怪力の英雄 (薛仁貴傳説)	괴력의 영웅 (설인귀 전설)
14	長城を崩した慟哭 (孟姜女傳説)	장성을 무너뜨린 통곡 (맹강녀 전설)
15	三人娘 (迷鎖山娘々廟傳説)	세 아가씨 (미진산 낭랑묘 전설)

16	七彩の橋 (嫩江傳説)	일곱 빛깔 다리 (눈강 전설)
17	金龍物語 (今州及黑龍江傳説)	금룡 이야기 (금주 및 흑룡강 전설)
18	靈泉と手負の大鹿 (ハロンアルシヤン傳説)	영험한 샘과 상처 입은 사슴 (할룬아산 전설)
19	薩鷄街茅土 (洮南傳説)	살계가모토 (도남 전설)
20	歸らぬ愛兒 (熊岳城傳説)	돌아오지 않는 아들 (웅악성 전설)
21	白蛇の救ひ (李家屯傳説)	흰 뱀의 도움 (이가둔 전설)
22	仙果 (柏嵐子傳説)	선과 (백풍자 전설)
23	皇女の急死 (公主嶺傳説)	황녀의 급사 (공주령 전설)
第二編 民謡編 (제 2편 민요편)		내용의 성격을 기준으로 민요를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다. 분류 범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정생활에 관한 민요, 연애를 담은 민요, 사회·정치에 관한 민요, 풍자적인 민요, 풍속적인 민요, 연중행사에 관한 민요, 자장가와 동요풍의 민요, 서사·서경적인 민요. 본문에서는 한문 원문을 위에, 일본어 번역을 아래에 배치하고 있다.
附録 傳説の支那 (부록 전설의 지나)		지나[中國]의 사서 가운데 통속적인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정리한 신간인 「본국사(本國史)」를 소개하기 위한 기획의 일환으로, 원문에서 태고사(太古史)인 삼황오제(三皇五帝) 부분을 전재한 것이다. ³⁰⁾

[표 2]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목차와 내용

제 1편 「전설편」은 총 23편의 전설을 수록하고 있다. 개중 첫 번째와 두 번

29) 본문에서의 제목은 이와 같지만, 문헌 서두의 목차에서는 “금와와 알에서 태어난 주몽(金蛙と卵から孵つた朱蒙)”과 같이 앞부분을 생략한 제목을 달고 있다.

30) 「본국사」의 저자는 오쿠무라 요시노부(奥村義信)이다. 오쿠무라는 「본국사」를 편찬하기 위해 『술이기(述異記)』, 『수신기(搜神記)』, 『신이경(神異經)』, 『박물지(博物志)』 등의 중국 고전을 참고했다고 밝힌다. 한편 오쿠무라는 만주 사정안내소의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 p.1; 植民地文化研究會 編, 『《滿州國》文化細目』, 東京: 不二出版, 2005, p.349.

째 전설이 부여와 고구려의 개국전설이다. 개국전설 직후에 거란과 청조(淸朝)의 시조전설(始祖傳說)이 위치하고, 청의 태조와 태종에 관한 전설이 이어진 후, 다시 당의 태종과 장군인 설인귀에 관한 전설이 이어진다. 이후 만주의 여러 지역에 전하는 전설이 위치한다. 전설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마지막 범주는 지역적인 전설에 속한다.³¹⁾ 구체적인 지형지물과 지명에 얽힌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전설 이전에 등장하는 전설은 분류가 다소 어렵다. 우선 부여·고구려 개국전설은 이른바 ‘건국신화’이다. 이어지는 거란과 청조의 시조전설 역시 건국신화의 주인공에 얽힌 이야기이다. 이런 이유로 서두의 다섯 편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만주전설집이 부여·고구려의 경우와, 거란·청조의 경우의 용어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개국전설’과 ‘시조전설’이라는 용어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전자는 서사 내에서 국가의 창건이 분명히 드러나는 반면, 후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고 추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원전의 표현을 따라, 부여·고구려의 이야기만을 ‘개국전설’로 지칭하고, 거란과 청조의 이야기는 ‘시조전설’로 지칭한다.

한편 청 태조, 청 태종, 당 태종, 설인귀의 이야기는 영웅적인 인간에 관한 전설이다. 더불어 이 인물의 행적이 특정한 지역에 얽힌 사연에 관한 전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인물전설(人物傳說)’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³²⁾ 요컨대 「전설편」이 수록한 23편의 이야기는, 개국전설인 1~2편과, 시조전설인 3~5편과, 영웅적인 인간에 관한 인물전설인 6~13편과, 만주의 구체적인 지역에 관

31) 전설의 존재 양상은 매우 다양하여 명정한 범주로 분류하기 어렵다. 전설의 분류 방식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고하였다. 장덕순 외, 앞의 책, 2006, 69~72면; 강등학 외, 앞의 책, 2002, 130~133면.

32) 청 태조는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건국 영웅이라는 점에서, 청 태조의 이야기 역시 개국전설이나 시조전설의 범주로 포괄해야 한다는 반론을 고려할 수 있다. 요컨대 ‘건국신화’로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 실린 청 태조의 전설은 세계의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난 사건이나, 위업의 달성을 통해 주인공의 신이성(神異性)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건국신화의 건국주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요소인 ‘건국’이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다. 앞서 거란과 청조의 ‘시조전설’을 ‘개국전설’과 구별한 것도, 국가의 개창이라는 요소가 이야기 내부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견지에서 청 태조의 이야기 역시 조망할 수 있다. 요컨대 서사 내적인 논리를 중심에 둔다면, 청 태조를 건국주로 간주하기에는 미비한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의 건국이라는 역사적인 사실(史實)과, 이야기 내부의 논리 층위를 달리 둘 필요가 있다. 더불어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편제상 청 태조의 전설을 ‘시조전설’로 간주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전설집에 실린 청 태조의 이야기를 우선 인물전설의 범주로 포괄한다. 건국신화 연구에서 ‘건국주’라는 명칭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고하였다. 조현설, 앞의 책, 2003, 288~289면.

한 지역전설인 14~23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와 전설의 배치 순서를 고려한다면,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편제는 상당히 체계적이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서문에서는 문헌을 편찬한 의도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 서문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일국의 정치에서 그 나라의 민정(民情)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폭정에 지나지 않는다. 만주제국이 일본 관민(官民)의 원조와 도움에 의해 내외에 형태를 정비해 나갈 때, 이를 이끌 일덕일심(一德一心) 관계의 ‘일본’이 만주국 일반의 민정을 깊게 파악하는 일은 필수불가결하고 중요한 일이다.
1. 이런 견지에서 우리 안내소는 일찍이 『만주국의 습속』을 공개하여, 일본인의 만주 민정과 상식 함양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만주국 문화 공작(工作)의 작은 자료 하나를 제공하고자 계획하였는데, 지금 다시 본서를 출간하여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서의 목적은 단순한 호기적(好奇的)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모두(冒頭)에서 밝혀 둔다.
1. 권말에 덧붙인 「전설의 지나」라는 한 편은 지나의 개국전설에 관한 것으로, 본문과 함께 한족(漢族) 연구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면 매우 다행일 것이다.
1. 본편의 편찬은 우리 안내소의 위촉조사원 타니야마 츠루에가 담당했다.³³⁾

서문에서는 총 네 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은 문헌을 편찬한 의도에 해당한다. 첫 번째 항목에 따르면, 일본은 신생 국가 만주국을 다방면에서 지원할 책무를 가진다. 이때 만주국의 사정과 형편을 두루 살피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견인한다면 결국은 악정(惡政)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때문에 일본과 일본인은 만주와 만주국의 제반 정황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일본과 만주국의 관계를 배경에 둔 채, 일본인에게 만주에 관한 상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띠고 간행된 문헌이다.

33) 一、一國の政治に、その國の民政を顧みぬものがあつたとすれば、それは秕政に外ならない。滿洲帝國が日本官民の援助と誘掖によつて、その内外に形態を整へてゆくとき、これを導く一德一心關係の「日本」が滿洲國一般民情を深く知悉する事は缺く可らざる必樞事項である。一、この見地より當所は曾て「滿洲國の習俗」を公にして、日本人に對する滿洲民情常識の涵養に資し、併せて滿洲國文化工作に對する一小資料を提供せんと企てたが、今又本書を上梓してこれに拍車を加へんとするものである。従つて本書の目的は單なる好奇的意圖に出たものではないことを冒頭に於て一言して置く。一、卷末に附した「傳説の支那」なる一篇は、支那の開國傳説に關するものであつて、本文と共に漢民族への一資料となれば幸甚である。一、本篇の編纂は當案内所委囑調査員谷山つる枝がこれを擔當した。『만주의 전설과 민요』, p.i.

한편 두 번째 항목에서는 문헌을 편찬한 다른 목적 역시 제시하고 있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일본인을 위한 교양적인 목적 이외에도, 만주국의 “문화 공작”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즉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문헌의 발행처가 만주 사정안내소라는 국책기관임을 감안한다면,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간행은 만주국의 문화를 새로 구축하기 위한 문화 정책의 일환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 항목의 말미에서는 이 문헌이 호기적인 의도에서 간행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 문헌이 공식적이고 진지한 성격을 지향하며, 흥미 위주의 성격을 배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은 문헌의 구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세 번째 항목은 부록인 「전설의 지나」에 관한 서술이다. 부록은 지나[中國]의 개국전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족 연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⁴⁾ 네 번째 항목은 본편의 저자인 타니아마 츠루에에 관한 서술이다. 실상 문헌의 구성 측면에 관한 설명은 범례와도 관련이 있다. 범례에서는 「전설편」과 「민요편」 모두에 관해서 서술하는데, 개중 전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시한다.

1. 전설편에 관하여

여기 모은 것은 만주 땅에 근거한 향토적 전설만이다. 현재 만주국은 주민의 거의 90퍼센트를 한족이 점하고 있고, 그 세력은 긴 시간에 걸쳐 뿌리박은 것이기 때문에, 습속에서는 일반적으로 한족화(漢族化)되어버렸다. 따라서 ‘만주국인 사이에서 통하는 전설’을 망라한다고 한다면, 일반 민간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전설이나, 연중행사의 배경을 이루는 전설이나, 기타의 전설에서도 어쨌든 지나 본토와 공통의 것이 많이 있을 법하지만, 여기서는 범위를 좁혀 향토적이라고 여겨지는 전설 가운데 다소 뚜렷이 드러나는 것을 나름대로 수집했다.

무엇보다 향토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발생적으로 보아 근원을 밝힌다면 지나 본토나 기타 지역에서 들어온 것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 추이의 흔적을 따라 간다면 일본 근처까지 뿌리를 뻗친 것도 있을 것이다.³⁵⁾

34)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본문에서는 현재의 중국을 ‘지나’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다. 여타의 만주전설집은 물론, 실상 당대의 문헌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기도 하다. 때문에 ‘건국신화’와 ‘개국전설’의 용어 선택 문제와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는 문헌의 내용에 관해 서술할 때에는 ‘지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여타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5) 一、傳説篇に就いて: ここに蒐集したのは、滿洲の土に即した郷土的傳説だけである。現在滿洲國では、住民の殆んど九十パーセントまでを漢民族が占めて居り、その勢力は長い年月に亘り扶植され來つたもので、習俗的には一般に漢民族化されてしまつてゐる。従つて「滿洲國人の間に行はれる傳説」を網羅するとなれば、一般民間信仰の基調をなす傳説とか、年中行事の背景をなす傳説とか、乃至其の他の、ともかく支那本土共通のものが澤山あるわけであるが、ここには範圍を狭くして郷土的と認められるものの中、多少とも顯著なのを拾つた次第である。尤

범례에 따르면, 만주의 풍속은 역사적인 과정 때문에 한족에 동화되었다. 따라서 전설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나, 우선 범위를 한정해 만주의 향토적 성격이 짙은 이야기만을 선별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향토적 성격이 짙다고 하더라도, 발생적인 근원을 따지면 지나 본토 등지에서 유입된 전설이 다수 존재할 것이며, 추이가 일본까지 이어지는 전설 역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일견 범례의 서술은 모순을 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주 고유의 색채를 띠는 전설만을 선별했다는 서술 이후에, 선별한 전설이 발생적 근원이나 전파의 추이를 따지면 만주 고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서술하기 때문이다.³⁶⁾

마지막으로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위상과 영향력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문헌은 문화 정책의 차원에서 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간행되었으며, 일본인을 위한 교양적인 목적 역시 갖는다. 이런 성격 때문에 이 문헌은 만주국의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³⁷⁾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만주의 전설에 관한 영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전범(典範)의 위상을 점하고 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방면의 수요에 힘입어 개정을 거듭하며 간행될 수 있었다.³⁸⁾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간행은 1944년의 5판까지 이루어졌다.³⁹⁾

も、郷土的なものと言つても、これを發生的に見てその根源を洗ふなら、支那本土共他から持ち込まれたものも相當あるであらうし、その推移のあとを辿るなら、日本あたりにまで株を移したものもあるであらう。『만주의 전설과 민요』, p.ii.

36) 범례의 진술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설의 지나」에 관한 것이다. 만주의 전설을 수록하는 것이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목표였다면, 「전설의 지나」를 부록으로 덧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은 오로지 중국 본토의 고대사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설의 지나」는 개정하면서 정식적인 제 3편으로 ‘승격’되기도 한다. 이 역시 범례의 진술과는 모순을 보이는 현상이다.

37) 후나고에 료스케는 “교육에서 ‘만주’전설의 이용(「滿州」伝説の教育への利用)”에, 타니야마 부부와 이시모리 노부오의 인적 교유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후나고에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교육적인 영역에서 활용된 양상과 사례에 관해서도 정리하고 있다. 船越亮佑, *op. cit.*, 2017, p.120, pp.124~125, pp.139~140, pp.158~159.

38) 『만주의 전설과 민요』 재판과 3판의 서문에서는, 초판의 절판 이후 다양한 방면의 요청에 따라서 개정판을 간행한다는 서술을 발견할 수 있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 (재판) p.i; 『만주의 전설과 민요』 (제 3판) p.i.

39) 김광식, 앞의 논문, 2015, 30면.

2.1.2. 『만몽전설집』

『만몽전설집(滿蒙傳説集)』은 1936년[昭和 11] 6월 1일 일본 도쿄의 만몽사(滿蒙社)에서 간행한 만주와 몽골의 전설 자료집이다. 가격은 1원 80전이다. 만몽사는 이름과 같이, 만주와 몽골에 관한 서적을 주로 간행하던 출판사이다. 단행본 이외에도 『만몽(滿蒙)』이라는 이름의 월간지를 발행했는데, 이 월간지는 다이쇼(大正) 9년[1920] 5월에 창간한 것이다.⁴⁰⁾ 『만몽』은 쇼와 18년[1943] 10월까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해의 경우 8월호가 결호(缺號)이다. 따라서 『만몽』은 24년 9호인 281책까지 발행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고, 만몽사의 존속 시기 역시 1920년 5월부터 1943년 10월까지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저자는 호소야 키요시(細谷清)이다. 저자는 적어도 1921년부터는 만주와 일본을 왕래하거나, 만주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관심사에 따른 자료 조사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⁴¹⁾ 호소야는 조사 결과를 정리해, 만몽사 등의 출판사를 통해 다양한 저서를 출간하였다.⁴²⁾ 저자가 출간한 저서 가운데에는 만몽에 관한 서적과 함께, 대륙 전래의 차(茶)에 관한 서적이 다수를 차지한다.⁴³⁾ 『만몽전설집』은 전자의 범주에 속한다. 한편 저자는 『만몽전설집』의 후속작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바로 『만몽민속전설(滿蒙民俗傳説)』이다.⁴⁴⁾

국내에 현존하는 『만몽전설집』의 판본과 소장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0) 쇼와 3년[1928] 7월에 나온 『만몽』 9년 7호가 제 99책에 해당한다. 이로부터 역산(逆算)하여 창간호의 발행 시기를 구하였다.

41) 1936년 6월에 쓰인 『만몽전설집』의 서문에서 저자인 호소야는 “지난 15년 간(過去十五年の間)” 자신의 관심사에 따른 조사와 탐구를 수행하기 위해 만몽 각지를 여행하면서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힌다. 이에 따라서 1936년에서 15년의 시기를 역산하여 1921년이라는 시점을 도출하였다. 『만몽전설집』, p.ii.

42) 만몽사에서 간행한 모든 단행본의 저자는 호소야인 것으로 확인된다.

43) 만주와 몽골에 관한 서적의 사례로는 다음을 거론할 수 있다. 細谷清, 『興國新話』, 東京: 滿蒙社, 1940; 細谷清, 『蒙古新話』, 東京: 滿蒙社, 1942. 차에 관한 서적의 사례로는 다음을 거론할 수 있다. 細谷清, 『蒙古貿易と日本磚茶』, 東京: 滿蒙社, 1937; 細谷清, 『茶事新話』, 東京: 滿蒙社, 1940; 細谷清, 『愛國茶殼』, 東京: 滿蒙社, 1941.

44) 細谷清, 『滿蒙民俗傳説』, 東京: 蒼龍閣, 1936. 초판은 쇼와 11년[1936] 12월 2일에 인쇄됐으며, 같은 해 12월 5일에 발행하였다.

소장처	판	발행 시기	비고
국립중앙도서관(1)	재판	쇼와 11년[1936] 8월 2일 인쇄 쇼와 11년[1936] 8월 5일 발행	조선총독부 도서관 인장 (청구기호: 朝58-45)
국립중앙도서관(2)	재판	쇼와 11년[1936] 8월 2일 인쇄 쇼와 11년[1936] 8월 5일 발행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재판	쇼와 11년[1936] 8월 2일 인쇄 쇼와 11년[1936] 8월 5일 발행	정정판(訂正版)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인장
고려대학교 도서관	3판	쇼와 11년[1936] 11월 20일 발행	초판 발행 관련 정보 ⁴⁵⁾

[표 3] 『만몽전설집』의 판본 사항

문헌의 내용과 체제는 모든 판본에서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문헌의 물질적 형태에 관해서도 언급해 둔다. 책의 크기는 가로가 13.4cm이고 세로가 19.1cm이다. 본문은 총 343면이고, 본문 앞의 서문은 총 3면이다. 서문 앞에는 다시 26면에 걸친 권두화(卷頭畵)가 존재하는데, 만주 지역의 사진 총 43편을 게재하고 있다. 본문의 뒤에는 만주국의 전도(全圖)가 첨부되어 있다.

다음으로 『만몽전설집』의 내용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 문헌은 총 74편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수록한 전설의 제목과 대략적인 양상을 표로 정리해 제시한다.

권두화 (사진)		저자 자신의 사진이나 만몽 지역의 여행허가증[執照] 사진을 비롯하여, 이 책이 수록하고 있는 전설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만주 여러 지역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있다.
序 (서문)		이 책을 출간한 경위와 목적을 밝히고, 수록한 자료를 습득한 내력에 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
	원제	해석
1	大和尚山	대화상산
2	龍王塘	용왕당

45)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판권지에 여타의 설명 없이 재판[訂正版]의 인쇄일과 발행일을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초판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이 3판이며, 3판의 경우 판권지에 3판의 발행일과 함께 초판의 인쇄일·발행일과 재판의 발행일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초판의 발행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초판의 인쇄일은 쇼와 11년[1936] 6월 25일이며, 발행일은 쇼와 11년[1936] 6월 30일이다.

3	白蛇の靈	흰 뱀의 영혼
4	鐵牛	쇠 소
5	半拉山	반랍산
6	蚊軍討伐	모기떼 토벌
7	西域回回	서역의 회회인
8	ドルメン	고인돌
9	望海埭城	망해과성
10	姑娘頂山	고낭정산
11	馬祖廟	마조묘
12	黃金海參	황금해삼
13	鷹嘴石	매부리돌
14	波切不動	파절부동
15	滿洲國	만주국
16	熊岳溫泉	웅악온천
17	望小山	망소산
18	巨匠の遺品	거장의 유품
19	娘娘廟	낭랑묘
20	龍王廟	용왕묘
21	石佛寺	석불사
22	觀音閣緣起	관음각연기
23	自來佛	자래불
24	北陵石馬	북릉의 석마
25	白駝の悲鳴	흰 낙타의 비명
26	龍首山	용수산
27	永陵의 古松	영릉의 고송
28	觀音龍洞	관음용동
29	銅鞭	강철 채찍
30	鄭家屯窩棚	정가둔의 움집
31	赤い木い實	붉은 나무 열매
32	高句麗の開國	고구려의 개국
33	祖宗杆	조종간
34	孝子墳	효자의 무덤
35	東明王	동명왕
36	拉法磊子	납법뢰자
37	明月溝	명월구
38	老頭溝	노두구
39	銅佛寺	동불사
40	龍井	용정
41	老獺稚	노달치
42	池底の簫聲	연못 아래의 피리 소리
43	流水江魔	유빙강마
44	國粹保存	국수보존
45	湖底の鏡	호수 아래의 거울
46	白馬の鬣	백마의 갈기
47	依蘭哈拉	의란합랍
48	喜鵲樹	희작수

49	悲戀の寶玉	비련의 보옥
50	巨鼈の怪	큰 자라 괴물
51	二火山	두 화산
52	神祕の池	신비의 연못
53	黃金護る大蛇	황금을 지키는 큰 뱀
54	成吉思汗長堤	칭기즈칸 제방
55	アルシヤン溫泉	아르산 온천
56	將軍廟	장군묘
57	萬福井	만복정
58	仁德の湖	인덕의 호수
59	白馬と灰牛	백마와 잿빛 소
60	活佛の木乃伊	활불의 미라
61	ハラガヌゴロ	하라가누고로
62	八裂溫泉	팔열온천
63	萬里の長城	만리장성
64	蒙古の元就	몽골의 모토나리
65	成吉思汗の末期	칭기스칸의 말기
66	蒙古と鹿狼	몽골과 사슴 늑대
67	天女の惠	천녀의 은혜
68	天女降配	천녀강배
69	阿睦爾散納	아목이의 산납
70	興隆館	흥륭관
71	石人灣	석인만
72	勅立慶寧寺	칙립경녕사
73	誠敬則靈	성경즉령
74	地名雜俎	지명 이야기

[표 4] 『만몽전설집』의 목차와 내용

『만몽전설집』의 전설 수록은 무작위적이다. 고구려의 개국전설은 32번에, 부여의 개국전설은 35번에 배치되어 있다. 한편 이 문헌이 수록한 전설의 본문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전설 본문의 앞에, 전설이 얹힌 지역에 관한 다채로운 정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도 논평이나 주석은 발견할 수 있지만, 『만몽전설집』의 도입부 서술이 양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이다. 오히려 도입부가 전설 본문을 양적으로 압도하는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서술 분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도입부에서 다루는 내용도 매우 자세하며, 범위 역시 지역의 풍속, 경관, 인공물, 호구(戶口)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대팔경(旅大八景)의 하나로, 용왕당(龍王塘)의 물새라고 언급될 뿐이지만, 이곳의 대저수지는 과연 끝없이 트인 풍경이 있다. 대련의 서쪽 7리에 있다. 용왕당 관방자(官房子)가 축조한 것으로, 수상 면적은 47만 평이고, 저수량은 1600만 톤

이며, 하루 2000톤의 급수량이 있으므로, 대련의 50만 인구는 영구히 물 부족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저수지의 물 아래 넓이는 2방리(方里)로, 관방자·왕가둔(王家屯)·묘둔(廟屯)·후가둔(候家屯)·소왕가둔(小王家屯)·이가둔(李家屯) 등의 소읍(小邑)이 있었다. 호수는 300이고, 인구는 3000에 육박했는데, 쇼와 2년에 이르러 드디어 완성되었다.⁴⁶⁾

안봉철도(安奉鐵道)의 연선(沿線)을 열차 창문에서 조망하면,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강이 있고, 산이 우뚝 솟아있고 소나무가 우거져, 모퉁이마다 터널마다 눈을 크게 뜨도록 하는 승경(勝景)이 있다. 다리 근처(橋頭)의 낚시터 등은 연선 중에서도 최고라는 평판이다. 근처에는 사이사이 동굴도 있지만, 본계호(本溪湖) 쪽이 오히려 알려져 있다.⁴⁷⁾

전자는 「용왕당」의, 후자는 「관음용동」의 도입부이다. 인용한 사례와 같이, 『만몽전설집』의 서술은 지역에 관한 정보가 매우 자세해, 전설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리서에 가깝다는 인상마저 준다. 지리적인 정보가 중요하고, 전설은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 문헌은 특히 철로(鐵路)에 따른 이동 경로를 상세히 언급하는 바, 편제 순서를 따라 만주를 간접적으로 여행하는, 기행문의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런 문헌의 특징은 편찬 목적과도 관련이 있는데, 편찬 목적은 문헌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전설은 국민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이고, 민족이 가진 혼이다. 유구한 과거가 있는 만몽에는, 수십 수백 수천의 거의 알려지지 않은 구비(口碑)가 있고 전설이 있다. 산둥(山東) 전설의 파생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본래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도 또한 절대로 적지 않다. 남쪽에서 온 것에는 소식(蘇軾)과 왕소군(王昭君) 등의 역사적인 전설이 있는데, 장성[萬里長城]을 넘은 대표적인 것이다. 의(義)에서 소식의 전설을 이길 것은 없고, 정(情)에서 왕소군보다 간절한 것은 없

46) 旅大八景の一つ、龍王塘の水鳥といはれるだけであって、こゝの大貯水池は、流石に漫々たるものがある。大大連の西方七里。龍王塘官房子に築造されたものだが、水上面積は四十七萬坪、貯水量一千六百萬噸。一日二千噸の給水量があるから、大連五十萬の人々は、永久に水饑饉の憂目委を見ないやうになつた。貯水池の水底は廣袤二方里あり、官房子・王家屯・廟屯・候家屯・小王家屯・李家屯等の小邑があつた。戸數は三百、人口は三千に及んで居り、昭和二年に至つて、漸く完成された。『만몽전설집』, pp.4~5.

47) 安奉鐵道沿線を汽車の窓から眺めると、山あり、谷あり、川ありで、山巒聳へ、松樹點綴、曲折ごと、トンネルごとに目を見張らせるだけの勝景がある。橋頭の釣魚臺などは、沿線中でも、隨一だとの評判である。近くには間々、洞窟などもあるが、この點からいふと、本溪湖の方が却つて知られて居る。『만몽전설집』, pp.112~113.

다. 또한 우리나라[日本]와의 관계가 깊은 것에는, 요시즈네(義經)와 칭기즈칸이 있고, 키요마사(清正) 공의 간도 정벌이나 일지상인(日持上人)의 전도 구비 등이 있어, 많은 사람이 흥미로운 눈으로 조망하고 있다.

일만(日滿)의 불가분은 단순히 경제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양국의 장래에 있어서, 공존공영을 위한 지대한 절척이다. 따라서 서로 제휴하여 친선을 두터이 하는 것은 각하(刻下)의 급무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깊은 인식보다 우선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만주를 여행하고, 몽골을 시찰하는 여러 사람을 위해, 지리·풍물·호구·거리·교통·물산·통계 등의 일체를 망라한 외면적 안내서의 필요는 말할 것도 없지만, 토지나 풍속에 바로 접한 민족정신을 기조로 한 내면적 안내기와 같은 것도 반드시 무용한 물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사실은 사진이고, 전설은 수목화이다. 표표(飄飄)한 여행자가 선박이나 차간에서 가벼운 기분으로 읽고, 흥미를 가져 지방사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에, 구비와 전설만큼 좋은 것은 없다. 이 책이 주로 각지의 구비와 전설을 수집하여 만몽 여행자와 만몽 연구자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주의도,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중략) 주저인 국세북점사(國勢北漸史)를 출간하지 않고, 남은 자료인 전설집을 뽑아서 출판하려는 것은 헛된 본말전도라는 인식을 면키 어렵지만, 북점사의 원고는 몹시 전문적이고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루는 것은 도저히 희망할 수 없다. 따라서 대중 취향의 독서물에 착수하여, 우선 체면을 차리고자 한다.

전설에는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사실(史實)과 풍속에 관계가 깊은 것이 있다. 본서는 지면을 고려해서 인정과 풍속 등에 관한 것은 많이 생략하는 것으로 했다. 이후 자매편으로 출간할 예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서의 속편인 만몽동화와 만몽가요 등을 엮고, 거의 대부분 원고를 마쳤다. 함께 나열하여 독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본서의 출판에 관해서는 만철 본사의 이해 깊은 도움을 받았다.⁴⁸⁾

48) 傳説は民の心臓から流れ出る血であり、民族の持つ魂である。悠遠の過去ある滿蒙には、幾十百千、殆んど限り知られぬ口碑があり、傳説がある。山東傳説の出店たる觀はあるが、本來の面目を傳へたるものも、亦、決して少くはない。南來のものには蘇軾・王昭君等の史的傳説があり、長城越えした代表的のものである。義に於ては蘇軾の傳説に勝るものなく、情に於ては王昭君より切なるはない。又我が國との關係深きものには、義經と成吉思汗があり、清正公の間島征伐、日持上人の傳道口碑等もあって、多くの人々から興味の眼で眺められてゐる。日滿の不可分は、單なる經濟上の問題だけではない。兩國の將來にとつて、共存共榮上、最高・至大の鐵則である。故に雙々、提携して親善を敦うするは刻下の急務で、これが實現は、その認識を深うするより先なるはない。この意味から、滿洲を旅行し、蒙古を視察する人々のため、地理・風物・戸口・里程・交通・物産・統計等、その一切を網羅する外面的案内書の必要なるは固よりであるが、土地や風俗に即し、民族精神を基調とした内面的案内記の如き、亦、必ずしも無用の長物視すべきではない。事實は寫眞であり、傳説は墨畫である。飄々として旅行く人々が、船舶・車室にあつて軽い氣持で讀み、興味を以て地方事情を會得し認識する、口碑・傳説の良きに如くはない。本書が主として各地の口碑・傳説を蒐集し、滿蒙旅行者・滿蒙研究者に寄與せんとする主意

서문에 따르면, 『만몽전설집』의 일차적인 편찬 목적은 대중 취향의 읽을거리를 간행해 만몽 지역 여행자와 연구자의 지역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연하는 바를 고려하면, 특히 여행자 대중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만몽전설집』의 수록 자료가 전설집의 편찬을 염두에 두고 수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소야가 설정한 애초의 목표는 “국세북점사”의 편찬이었다. 일본의 북방 진출에 관한, 즉 만몽 진출에 관한 역사를 서술하고자 했던 것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남은 자료를 모아 편찬한 것이 바로 『만몽전설집』이다. 이 문헌이 지리서나 기행문의 느낌을 주는 것도, 이와 같은 편찬의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편찬 과정에서 만철의 도움을 받았다는 서술 역시 편찬 배경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만몽전설집』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과 만주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경제의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정신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몽의 구비와 전설을 수집한 것도 궁극적인 목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다. 이 때문에 서문에서는 전근대 시기의 역사적인 인물까지 동원하면서 일본과 만주의 연결고리를 설정한다.⁴⁹⁾ 이와 같은 서술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옹호하는 관점의 발로일 것이다. 한편 서문 말미에서 저자는 인정과 풍속 방면의 전설을 수록한, 『만몽전설집』의 후속편을 출간

も、亦これに外ならない。(中略) 主題目たる國勢北漸史を上梓せずして、その餘材たる傳説集を抄録出版せんとするは、徒に本を忘れ末を追ふの識を免れ難きも、北漸史稿は餘りに専門に偏し、尨大に過ぎるからで、これを今日に實現せんとするは、到底望まれぬ。故に大衆向き讀物に指を染め、その先聲たらしめんことを欲するからである。傳説には土地を中心とせるものと、史實・風俗に關係深いものとがある。本書は紙數を顧慮して人情・風俗等に關するものは、多く割愛することにした。異日、姉妹篇として印行の豫定があるからである。又、本書の續篇として滿蒙童話・滿蒙歌謠等を纏め、既に大半、その稿を終へた。ともに併せて、識者諸賢の高教を仰ぐの日は、遠くないことを信じてゐる。本書の出版に關し、滿鐵本社の理解ある援助を得た。『만몽전설집』, pp.i~iii.

49) 서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세 가지 역사적 맥락은 바로 칭기즈칸·키요마사·일지상인이다. 첫 번째인 칭기즈칸의 경우, 당시에는 일본 카마쿠라 막부(鎌倉幕府)의 초대 쇼군(將軍)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의 동생 미나모토노 요시즈네(源義經)를 칭기즈칸과 동일시하는 속설이 퍼져 있었다. 권력투쟁에서 패배해 자살한 요시즈네가, 사실은 자살하지 않고 몽골로 도망쳐 칭기즈칸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이와 같은 속설은 진지한 역사적 연구의 대상이기도 했다. 두 번째인 키요마사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 측의 장수였던 카토 키요마사(加藤清正)를 가리킨다. 세 번째인 일지상인은 일본 불교 종파의 하나인 일련종(日蓮宗)의 승려로, 일본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하여 많은 이야기를 남긴 바 있다. 미나모토노 요시즈네와 칭기즈칸의 속설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고했다. 小谷部全一郎, 『成吉思汗ハ源義經也』, 東京: 富山房, 1924.

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는데, 이 후속편이 바로 『만몽민속전설』이다.

2.1.3.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滿洲の習俗と傳説·民謠)』는 1938년[昭和 13] 6월 1일 일본 도쿄의 송산방(松山房)에서 간행한 만주의 풍속·전설·민요 자료집이다. 가격은 2원 80전이다. 송산방은 법률·행정·경제에 관한 학술서나 실용서와 함께, 만주와 중국 등의 대외 영역에 관한 서적을 다수 간행한 출판사로 확인된다. 후자와 관련해서 송산방에서는 특히 조선의 법률·지리·산업 등에 관한 총서를 간행한 바 있다.⁵⁰⁾ 이 문헌의 저자와 성립 내력에 관해서는, 앞서 『만주의 전설과 민요』를 고증하면서 밝힌 바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의 판본과 소장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¹⁾

50)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靑野義雄·金性烈, 『朝鮮墓制一般』, 東京: 松山房, 1924; 野村調太郎 編著, 『新案朝鮮六法』, 東京: 松山房, 1933; 渡邊辯三, 『朝鮮の金鑛と重要鑛物』, 東京: 松山房, 1934; 萩原彦三, 『朝鮮行政法』, 東京: 松山房, 1935. 이외에도 조선수험학회(朝鮮受驗學會)에서 집필한 시험준비용 서적인 『조선수험강좌(朝鮮受驗講座)』나 『조선총독부보통시험답안전집(朝鮮總督府普通試驗答案全集)』 등도 간행한 바 있다.

51) 한편 1995년 경인문화사(景仁文化社)에서 만몽지리역사풍속지총서(韓國地理風俗誌叢書)의 일환으로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를 영인하여 출간한 판본이 존재한다. 총서의 제 10권에 해당한다.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소장처	판	발행 시기	비고
국립중앙도서관(1)	초판	쇼와 13년[1938] 5월 28일 인쇄 쇼와 13년[1938] 6월 1일 발행	조선총독부 도서관 인장 (청구기호: 朝68-45)
국립중앙도서관(2)	초판	쇼와 13년[1938] 5월 28일 인쇄 쇼와 13년[1938] 6월 1일 발행	
국립중앙도서관(3)	초판	쇼와 13년[1938] 5월 28일 인쇄 쇼와 13년[1938] 6월 1일 발행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초판	쇼와 13년[1938] 5월 28일 인쇄 쇼와 13년[1938] 6월 1일 발행	속표지에 “최범훈(崔範勳) 박사 기증(1992. 6. 22.)” 인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초판	쇼와 13년[1938] 5월 28일 인쇄 쇼와 13년[1938] 6월 1일 발행	경성부립도서관 인장 (쇼와 13년 7월 11일)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초판	쇼와 13년[1938] 5월 28일 인쇄 쇼와 13년[1938] 6월 1일 발행	부산부립도서관 인장 (쇼와 13년 6월 24일)

[표 5]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의 판본 사항

국내에 존재하는 판본은 모두 초판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책의 크기는 가로가 13.4cm이고 세로가 19.2cm이다. 본문은 총 500면이고, 본문 앞의 서문은 총 2면이다.

다음으로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의 내용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 문헌은 총 11장 구성이다. 전설편은 제 5장이고, 민요편은 제 6장이다. 본 논문은 전설에 관한 연구이므로, 전설편인 제 5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한편 이 문헌은 『만주의 전설과 민요』를 다시 정리한 것인 만큼, 내용을 개관하면서 『만주의 전설과 민요』 「전설편」의 내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전설 23편을,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에서는 16편으로 정리해 수록하고 있다. 전자의 특징이었던 논평과 주석 역시 후자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 수록한 전설의 제목과 양상을 표로 정리해 제시할 것인데, 표의 비교란에서 해당 편목이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어떤 전설을 다시 정리한 것인지 명시할 것이다.

序 (서)	책을 편찬한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보고서의 원고를 다시금 정리한 내력에 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
第一章 住民と聚落 (제 1장 주민과 취락)	만주의 민족 구성과 취락의 형태와 함께, 노동과 치안의 현황 및 언어와 문자에 관해서 서술한다.

第二章 性情の特徴 (제 2장 성정과 특징)		만주인의 성격적 특징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기적이다. 돈에 집착한다. 타인을 업신여긴다. 극단적으로 체면을 차린다. 사교성이 교묘하다. 보수적이다. 미신을 신앙한다. 현실적이다. 향락적이다.	
第三章 宗教の方面 (제 3장 종교적 측면)		만주의 여러 종교에 관해서 정리하고 있다. 범위는 도교·불교·유교·회교·라마교·샤머니즘·민간신앙을 포괄한다.	
第四章 さまざまの象徴 (제 4장 여러 가지 상징)		만주인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상징을 설명한다. 포괄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동물 상징. 식물 상징. 모양의 상징. 물건의 상징. 길상어(吉祥語). 길상문(吉祥文)과 길상문(吉祥紋). 길상도(吉祥圖).	
第五章 面白い郷土傳説 ⁵²⁾ (제 5장 재미있는 향토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 범례의 “전설편에 관하여”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제	해석	비고
1	扶餘の開國傳説	부여의 개국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1번 전설.
2	高句麗の開國傳説	고구려의 개국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2번 전설.
3	契丹の始祖傳説	거란의 시조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3번 전설.
4	清の發祥傳説	청의 발상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4번 전설.
5	清の太祖に關する傳説	청 태조에 관한 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6번 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7번 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8번 전설.
6	清の太宗に關する傳説	청 태종에 관한 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9번 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10번 전설.
7	唐の太宗に關する傳説	당 태종에 관한 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11번 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12번 전설.
8	薛仁貴に關する傳説	설인귀에 관한 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13번 전설.
9	孟姜女傳説	맹강녀 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14번 전설.
10	熊岳城溫泉傳説	웅악산 온천 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20번 전설.

11	ハロンアルシヤン温泉傳説	할문아산 온천 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18번 전설.
12	洮南の楡樹傳説	도남의 느릅나무 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19번 전설.
13	嫩江傳説	눈강 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16번 전설.
14	今州及黑龍江傳説	금주 및 흑룡강 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17번 전설.
15	李家屯石廟傳説	이가둔 석묘 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21번 전설.
16	柏嵐子傳説	백풍자 전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22번 전설.
第六章 民謡の種々相 (제 6장 민요의 여러 모습)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민요편」과 목차 구성이 달라졌다. 바뀐 목차는 다음과 같다. 가정생활을 노래한 것. 연애를 담은 것. 풍자적인 민요. 풍속적인 민요. 서사·서경적인 민요. 그 외의 민요.	
第七章 儀禮と年中行事 (제 7장 의례와 연중행사)		만주인의 생활 속 의례와 행사를 정리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생활 속의 의례적 상식. 길흉사. 연중행사.	
第八章 食物飲物 (제 8장 음식과 음료)		만주인의 주식과 부식뿐만 아니라, 과자와 기호품과 약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第九章 住居の様式 (제 9장 주거 양식)		만주인의 주거 형태를 지나게 민가(民家)·만주족계 민가·몽골계 민가로 분류하고 있다.	
第十章 衣裝と裝身 (제 10장 옷과 장신구)		만주인의 의복·모자·신발·용모·장신구 등 외적인 측면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第十一章 家庭生活及び趣味娛樂 (제 11장 가정생활 및 취미오락)		만주인의 가정생활과 취미·오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표 6]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의 목차와 내용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를 『만주의 전설과 민요』와 비교할 때, 내용의 큰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는데, 이는 논평과 주석

52) “재미있는(面白い)”이라는 서술은 본문 내용 중의 편명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책 서두의 목차에서는 “향토전설(郷土傳説)”이라는 제목으로만 서술하고 있다.

의 서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때 차이를 종합해보면 일련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전설의 역사적 고증에 관한 내용은 줄어들고, 전설이 얹힌 지역에 관한 내용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이 역시 미세한 경향성일 뿐,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내용이 동일하다면 새로운 문헌을 편찬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굳이 저자가 원고를 재정리해서 새로운 문헌을 출간했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저자의 서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쇼와 11년 초 겨울 도쿄에 돌아와 살게 되고, 송산방 사장의 열띤 권유도 있어서, 앞의 두 보고서를 다듬어 한 권으로 하고 또한 피땀으로 보정해 본서를 간행하기로 했다. 책의 전설이나 민요는 불가분의 관계인 습속을 자연스레 설명해 줄 터이고, 한편으로는 딱딱해지기 쉬운 본서를 일부라도 누그러뜨려서 취미적인 독서물에 가까워지도록 도와줄 터이다.

세부적으로 불충분한 점도 많을 것이 틀림없다. 다행히도 식견 있는 분의 비평과 정정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면, 나의 후일을 위해 진심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졸저가 맹방인 만주의 이해에 더하여, 혹은 재인식에 더하여, 비근한 열쇠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조금은 믿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일본인이 읽기를 가만히 염원한다. (하략)⁵³⁾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가 지향하는 바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지향하는 바와 다르다. 일본인을 위한 교양적인 목적을 가진다는 점은 물론 동일하다. 다만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호기적인 취미를 배격하고 “문화 공작”의 공식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반면,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는 오히려 취미적인 읽을거리를 지향한다. 서문에서 밝히는 바, 친근한 성격을 띤 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읽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두 문헌은 표기의 층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는 본문의 한자에 후리가나(振り仮名)를 달고 있

53) 昭和十一年初冬東京に歸住することとなり、松山房主の熱心なすすめもあって、先の二報告書を打つて一丸とし、更に血肉を盛り補訂を加へて本書を刊行することにしたのである。書中の傳説なり民謡なりは、それと不可分の關係にある習俗をおのづから説明してくれるであらうし、一方には、とかく硬さに陥りやすい本書を幾分とも和らげて、趣味的な讀物に近からしめる助けとなつてくれるであらう。細部にわたつては不十分な點も多々あるに選ひない。幸に識者の批正指導にあづかる事が出来るならば、私の後日のために誠に有難いことと思う。さはいふものの、この小著が盟邦滿洲の理解の上に、或は再認識の上に、手近な一つの鍵の役目を持ち得るであらう事を幾分とも信念するが故に、なるべく多くの日本人の方々に讀まれる事をひそかに祈念してゐる。(下略)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 pp.1~2.

다. 후리가나란 일본어 표기에서 한자의 위나 오른쪽에 읽는 방법을 가나 문자로 작게 적어 놓은 것을 가리키는데, 출판의 활성화 및 독자층의 확대와 함께 한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출판물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겨났다.⁵⁴⁾ 즉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제인데, 두드러지는 사례를 제시한다.

朱蒙の行く手には大きな河がある。朱蒙は河水に向ひ高らかに祈つた。「我が父は日の神の子、我が母は河の娘。今や我が身は危急存亡の時である。どうか此の窮地を救はせ給へ」と呼ぶと、そこへ魚や鼈が寄り集つて來て背中を列べた。朱蒙は其の上を渡つて向ふ岸に着いたが、魚や鼈はすぐ姿を隠してしまつたので、追手は置いてけぼりにされてしまつた。(高句麗の開國傳説)⁵⁵⁾

주몽이 가는 방향에는 큰 강이 있다. 주몽은 강물을 향하여 소리 높여 기도했다. “나의 아버지는 태양신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강의 딸이다. 지금 나는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다. 부디 이 궁지에서 구해주십시오”라고 외치니, 거기에 물고기와 자라가 모여 등을 나란히 했다. 주몽은 그 위를 건너 맞은 편 강가에 닿았지만, 물고기와 자라는 곧 모습을 감추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추격자는 따돌려지고 말았다. (고구려의 개국전설)

고구려 개국전설에서 물고기가 다리를 놓아 강을 건너는 부분이다. 인용문 가운데 한자인 “危急存亡·窮地·鼈·隱”에 작은 글씨로 달린 것이 후리가나이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서는 이와 같은 표기를 확인할 수 없다. 공식적인 성격을 지향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는 대중적인 성격을 지향했기 때문에 후리가나를 사용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가독성을 제고해 문헌을 향한 다수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했던 것이다.

54) 후리가나는 에도(江戸) 시대 출판문화의 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후 메이지(明治) 시대부터 제 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에는 대중적인 출판물에 후리가나를 다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인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삼은 신문이나 잡지도 모든 한자에 후리가나를 달았던 것이다. 후리가나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저를 참고하였다. 今野眞二, 『振仮名の歴史』, 東京: 集英社, 2009.

55)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 p.165. 같은 부분은 『만주의 전설과 민요』, p.6에 있다.

2.1.4.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この土地この人 滿洲の傳説)』은 1940년[昭和 15] 3월 9일 대련(大連)의 만주교과용도서배급소출판부(滿洲教科用圖書配給所出版部)에서 간행한 전설집이다. 가격은 1원이다. 저자는 키타 타키지로(喜田瀧治郎)인데, 키타는 1930년부터 1945년 만주국이 해체될 때까지 15년간, 대련 지역을 중심으로 소학교(小學校) 교사로 근무했다. 이 가운데 5년간 남만주교육회(南滿洲教育會)에서 교과서 편찬을 담당한 바 있다.⁵⁶⁾ 한편 동화집의 집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⁵⁷⁾ 즉 키타는 주로 교육 방면에서 활동했던 인물인 것이다.

키타 타키지로가 편찬한 일련의 서적은 모두 저연령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키타가 편찬한 서적은 총 다섯 권인데, 서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喜田瀧治郎, 『この土地この人 遼東史話 近代篇』, 大連: 喜田瀧治郎, 1938.
- (2) 喜田瀧治郎, 『星・海・花 遼東傳説篇』, 大連: 滿洲教科用圖書配給所出版部, 1939.
- (3) 喜田瀧治郎, 『この土地この人 滿洲の傳説』, 大連: 滿洲教科用圖書配給所出版部, 1940.
- (4) 喜田瀧治郎, 『のどかな人達 續 滿洲の傳説』, 大連: 滿洲書籍株式會社, 1943.
- (5) 喜田瀧治郎・大塚正明, 『國ひらく人々』, 大連: 滿洲書籍株式會社, 1944.

(1) 『이 땅 이 사람 요동사화 근대편(この土地この人 遼東史話 近代篇)』은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련·여순(旅順)·금주(今州) 등지에서 활동한 일본인과 일본군의 행적을 묘사한 역사 이야기 모음집[史話集]이다.⁵⁸⁾ 일종의 논픽션(nonfiction)인데, 당시 만주에서 발생했던 일본의 군사 행동

56) 키타 타키지로는 남만주교육회에서 근무하면서, 타니야마 츠루에와 교유 관계가 있는 교육자인 이시모리 노부오와도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상 키타는 이시모리가 대표저자인 서적의 편집 동인(同人)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시모리를 회고하는 기념서에도 대표저자로 참여했다. 전자의 사례로 다음의 서적을 거론할 수 있다. 石三延男, 『まんじゅうの美しい話』, 東京: 修文館, 1939; 石三延男, 『滿洲の美談』, 東京: 修文館, 1939. 후자의 기념서는 다음의 서적이다. 喜田瀧治郎等 編, 『石森先生の思い出』, 東京: 石森延男先生教育文學碑建設賛助會, 1967. 植民地文化研究會 編, *op. cit.*, 2005, pp.63~64, p.347.

57) 키타 타키지로가 집필에 참여한 동화집은 다음의 서적이다. 鹿島佐太郎, 『滿洲童話作品集』, 大連: 大連日日新聞社出版部, 1940. 이 동화집에 실린 키타의 원고는 두 편인데, 같은 이야기가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에도 실려 있다. 아래 표의 5번 전설과 12번 전설에 해당한다.

58) 키타가 편찬한 서적 다섯 편의 내용과 성격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해 정

을 미화하는 서술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인터뷰나 현장 사진을 수록해 현장감을 높이는 수법을 사용한다.⁵⁹⁾ (2) 『별·바다·꽃 요동전설편(星·海·花 遼東傳說篇)』은 키타가 수집한 대련 근교의 전설을, 소학교 학생을 주된 독자로 삼아 책으로 엮은 것이다. 구체적인 지역성을 띠는 전설이 주를 이루며, 아동의 향토의식과 정감을 함양하는 것이 편찬 목적이었다.

(4) 『낙천적인 사람들 속 만주의 전설(のどかな人達 續 滿洲の傳說)』은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속편이다. 1942년 저자가 대련시 초등교육회의 지원을 받아, 국민학교 ‘대륙사정(大陸事情)’ 교과와 교육용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만주 각지에서 수집한 자료 가운데 전설만을 모은 것이다. 역시 주된 독자는 저연령층이며, 제목은 저자가 느낀 만주 전설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5) 『나라를 연 사람들(國ひらく人々)』은 키타가 오오츠카 마사아키(大塚正明)와 공저한 것으로, (4)와 동일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만주국 건국에 관한 이야기를 모은 것이다. 재만(在滿) 학생에게 일본인에 의한 만주 개척과 만주국 건국의 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자료로, 만주국의 건국이념인 오족협화(五族協和)를 옹호하는 성격을 띤다. (1)·(4)·(5)는 당시 국민학교 ‘국민과(國民科)’ 과목의 학습 참고 자료로 쓰였다. (3)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쓰인, 학교 교육을 위한 자료이다.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의 판본과 소장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장처	판	발행 시기	비고
필자	재판	쇼와 15년[1940] 3월 11일 발행	초판 발행 관련 정보 ⁶⁰⁾

[표 7]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판본 사항

본 논문에서는 필자의 개인 소장본을 주로 활용하였다. 문헌의 물질적 형태에 관해서도 언급해 둔다. 책의 크기는 가로가 13cm이고 세로가 19.2cm이다. 본문은 총 229면이고, 여타의 서문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본문 앞에 삽화가

리했다. 植民地文化研究會 編, *op. cit.*, 2005, pp.216~220.

59) 이시모리 노부오가 이 문헌의 서문을 집필하였다. 국내에서는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이 문헌을 소장하고 있다.

60) 필자 소장본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은 재판이지만, 판권지에 초판의 인쇄일과 발행일을 명기하고 있다. 초판의 인쇄일은 쇼와 15년[1940] 3월 5일이고, 발행일은 쇼와 15년[1940] 3월 9일이다. 한편 이 문헌은 1941년 8월에 5판을, 1942년 3월에 정정판(訂正版)을 발행하였다. 김광식, 앞의 논문, 2015, 30면.

한 면 존재한다.

다음으로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내용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 책은 총 26편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수록한 전설의 제목과 대략적인 양상을 표로 정리해 아래에 제시한다.

삽화		5번 이야기인 “붉은 나무 열매(赤い木の實)”의 한 장면을 전설집 서두에서 삽화로 제시하고 있다. 까치가 붉은 나무 열매를 물어 와 퍼쿨런의 옷 위에 두고 날아가는 장면이다.
번호	원제	해석
1	金蛙王子物語	금와왕자 이야기
2	魚の浮橋	물고기 배다리
3	豚のお鉢	돼지의 바리때
4	だまされた龍王	속은 용왕
5	赤い木の實	붉은 나무 열매
6	遼陽の白塔	요양의 백탑
7	仙人橋	선인교
8	金人と金龍	금빛 사람과 금빛 용
9	蜘蛛とさそり	거미와 전갈
10	大きな瓢箪	큰 호리병박
11	王子と黒犬の子	왕자와 검은 개
12	雲林池	운림지
13	うで卵と枯枝	삶은 달걀과 마른 가지
14	逃げ出した石龜	도망친 돌 거북
15	鏡泊湖	경박호
16	湯氣の中の獸	연기 속의 짐승
17	龜と百姓	거북이와 농민
18	雪の夜の聲	설야의 소리
19	金牙太子とお妃	금아태자와 태자비
20	閻山の名僧	여산의 명승
21	洞穴の石臼	동굴의 돌방아
22	鵲と太子	까치와 태자
23	烏と皇帝	까마귀와 황제
24	七つの赤痣	일곱 개의 붉은 점
25	底無の井戸	바닥 없는 우물
26	鹿の血の池	사슴 피 연못

〔표 8〕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목차와 내용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에 부여와 고구려의 전설을 배치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부여의 전설은 여타 만주전설집과 같이 동명왕의 전설이 아니라, 금와(金蛙)의 전설이다. 금와의 전설은 여타 만주전설집의 경우 고구려의 전설에 포괄해서 다루는데, 이 문헌은 독립시켜 다룬

다. 한편 이 문헌은 여타 만주전설집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역적인 특색이 강한 전설을 다수 수록하고 있는데, 저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일 것이다.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이 수록한 전설의 서술 방식을,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수록한 같은 전설과 비교하면 일련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적인 서사는 축약되고 단순화되는 한편, 극적인 장면에서 묘사와 서술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연령층을 주된 독자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その時、朱蒙達は大きな河に行きあたりました。河はどす黒く大きな渦を巻いて流れてゐました。後には敵の人馬のどよめきが身近に迫つてまゐります。家來達はどうしてよいか分からなくなりました。朱蒙はその時、すつくと河岸に立上りました。さうして右手を上げて高らかに叫びました。「我は日の神の子。我が祖父は河の神。天の神・河の神よ、願はくは、この急を救はせたまへ。」河の面に小波が立らはじめたかと思ふと、鯉、なまづ、ふな、どぜう、魚といふ魚がひしめき合つて浮上つて來ました。さうして、まるで橋のやうになりました。朱蒙は先頭に立つて、魚の橋を駈けて渡りました。家來も續きりました。朱蒙達がやつと向かふ岸に渡つたかと思ふと、魚の橋はさつと沈んで後は何事もなかつたやうに、漫々としたながうづまが渦を巻いてゐました。(魚の浮橋)⁶¹⁾

그때 주몽 일행은 큰 강을 맞닥뜨렸습니다. 강은 거무스름히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적의 인마가 일으키는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자는 어쩌면 좋을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몽은 그때 강가에 우뚝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들어 높이 외쳤습니다.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고, 나의 할아버지는 강의 신이다. 하늘의 신과 강의 신이여, 원하건대 이 위기에서 구해주십시오.” 강의 수면에 물결이 일기 시작하나 했더니, 곧 잉어·메기·붕어·미꾸라지 등 물고기라는 물고기가 엮히락뒤치락 모여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리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몽은 선두에 서서, 물고기 다리를 달려 건넌습니다. 종자도 따랐습니다. 주몽 일행이 겨우 건너편 강가에 닿았다고 생각하니 물고기 다리는 썩사게 가라앉아, 뒤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넓은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배다리)

역시 고구려 전설에서 물고기가 다리를 놓아 강을 건너는 부분이다. 앞서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를 개관하면서 제시한 인용문과 같은 부분인데, 비

61)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 p.23.

교하면 장면의 묘사가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 문헌은 모든 한자에 후리가나를 달고 있으며 경어(敬語)를 사용하고 있다. 저연령 독자를 대상으로 삼은 교육용 자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수의 삽화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타 만주전설집에 삽화가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문헌의 경우 삽화의 수가 다른 만주전설집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더불어 다른 만주전설집의 삽화가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제시하는 것인 반면, 이 문헌의 삽화는 이야기의 내용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설의 내용에 관한 해석의 가능성을, 도상(圖像)이 제시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삽화 또한 결텍스트의 하나인 만큼, 이 문헌을 다룰 때는 삽화의 도상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1.5. 『만주야화』

『만주야화(滿洲夜話)』는 1940년[康德 7] 7월 25일 봉천의 토풍서방(吐風書房)에서 간행한 만주전설집이다. 가격은 2원 50전이다. 저자는 에토 토시오(衛藤利夫)인데, 경력을 중심으로 저자의 약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²⁾ 에토 토시오는 1883년[明治 16] 11월 14일 쿠마모토현(熊本縣)에서 태어났다. 1907년[明治 41]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문학부(文學部)에 입학해 1911년[明治 45]년 졸업하고, 1915년[大正 4]부터 1919년[大正 8]까지 도쿄제국대학의 도서관 사서로 근무했다. 1919년 만철대련도서관(滿鐵大連圖書館)의 사서로 이직하였고, 1922년[大正 11]부터 1941년[昭和 15]까지 만철봉천도서관장(滿鐵奉天圖書館)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시기 만주국 정부에 만주국립중앙도서관(滿洲國立中央圖書館) 설립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서관장을 사임한 이후에도 관장 사무를 위촉 받아 근무하다가, 1943년[昭和 17] 만철 도쿄 지사의 사무 촉탁을 받아 일본으로 귀국했다. 귀국 이후에도 1945년[昭和 19] 7월 만철의 초청을 받아 만주를 여행하기도 했다. 1947년[昭和 21]부터는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을 지냈다. 평생 도서관에 관한 활동을 전개했고, 도서관학에 관한 다수의 논저를 발표하기도 했다. 1953년[昭和 28] 도쿄의 자택에서 서거했다.

62) 아래 나열한 에토 토시오의 약력은 다음의 논저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저자가 집필한 논저의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丸山泰通・田中隆子, 『衛藤利夫』, 東京: 日本図書館協會, 1980, pp.273~284.

『만주야화』는 에토가 만주에 거주하던 시기에 쓴 글을 엮어 출간한 문헌이다. 에토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26년간 거주했던 만주 인근 지역에 관한 관심 역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에토는 몽골에 관한 문헌을 모아 책을 집필한 바 있다.⁶³⁾ 만주에 관한 이야기와 전설을 수록한 『만주야화』의 집필 역시 이와 같은 관심사의 연장선에 있을 것이다.

국내에 현존하는 『만주야화』의 판본과 소장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장처	판	발행 시기	비고
국립중앙도서관	7판	강덕 7년[1940] 8월 17일 발행	초판 발행 관련 정보 ⁶⁴⁾

[표 9] 『만주야화』의 판본 사항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유일본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문헌의 물질적 형태에 관해서도 언급해 둔다. 책의 크기는 가로가 13cm이고 세로가 19cm이다. 본문은 총 316면이고, 본문 앞의 서문이 총 3면이다. 본문 앞에 권두화로 여섯 장의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문헌에서 확인할 수 없다.⁶⁵⁾

다음으로 『만주야화』의 내용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 책은 8개의 큰 편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큰 편목 아래 다시 개별적인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개중 전설편은 여섯 번째 편목이다. 전설편의 제목은 「만주 여러 민족의 개국전설(滿洲諸民族の開國傳說)」이고, 다섯 편의 전설을 수록하고 있다. 개국전설만을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설편을 중심으로 『만주야화』의 내용과 구성

63) 해당 문헌 자료집이 바로 다음의 논저이다. 衛藤利夫, 『韃靼』, 大連: 滿鐵社員會, 1938. 이 책은 만철사원회총서(滿鐵社員會叢書)의 제 27집이기도 하다. 표제인 “달단(韃靼)”은 몽골을 의미한다. 한편 에토는 이 책 외에도 자신이 여러 지면에 기고했던 다양한 글을 모아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다음의 논저이다. 衛藤利夫, 『短檠』, 大連: 滿鐵社員會, 1940. 만철사원회총서의 제 45집이기도 한데, 도서관 업무와 서적 관리에 관한 글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후반부에 몽골과 청에 관한 글도 함께 실려 있다. 植民地文化研究會 編, *op. cit.*, 2005, pp.105~106, pp.109~110.

64) 국립중앙도서관본 『만주야화』의 경우, 7판이지만 판권지에 다른 판본의 인쇄일과 발행일을 명기하고 있다. 초판의 인쇄일은 강덕 7년[1940] 7월 20일이고, 발행일은 강덕 7년[1940] 7월 25일이다. 3판의 발행일은 강덕 7년[1940] 8월 1일이고, 5판의 발행일은 강덕 7년[1940] 8월 10일이다.

65) *Ibid.*, p.107.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はしがき (서문)		이 책을 출간한 경위와, 출간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瀋陽夜話 (심양야화)		‘봉천’이라는 지역 명칭의 변천 과정과 함께, 변천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에 관해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營口に於ける「天路歷程」漢譯者の死 (영구에서 일어난 「천로역정」 한역자의 죽음)		「천로역정」을 한역한 윌리엄 번즈(William Burns)의 영구에서의 선교 활동과 죽음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日清戦争の傍杖を喰った遼陽のワイリー (청일전쟁의 화를 입은 요양의 와일리)		선교사 제임스 앨런 와일리(James Alan Wyle)가 1894년 요양에서 살해당한 사건의 경위를, 청일전쟁의 맥락에서 서술하고 있다.
滿洲切支丹 (만주의 크리스천)		만주 지역 기독교의 역사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선교사와 함께 순교자의 이야기 역시 설명한다.
奉天今昔 (봉천의 옛 이야기)		청일전쟁 시기 봉천의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봉천에 살고 있었던 여러 사람이나 가문의 삶에 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끝에서는 백 년 전 봉천의 모습을 상상하여 서술하고 있다.
滿洲諸民族の開國傳説 (만주 여러 민족의 개국전설)		
번 호	원제	해석
1	扶餘	부여
2	東扶餘	동부여
3	高句麗	고구려
4	遼	요
5	清朝	청조

奈良・東京城・長安 (나라·동경성·장안)	일본·만주·지나[日滿支]의 고도(古都)인 나라·동경성·장안을 기초로, 일본-발해-당 사이의 국가 간 교류를 내세워, 일본-만주-지나 간의 교류를 고대(古代)로 소급하고 있다.
マルコ・ポーロと滿洲 (마르코 폴로와 만주)	마르코 폴로(Marco Polo)가 원(元)을 방문했을 당시, 만주 건문의 내용에 관해 정리하고 있다.

[표 10] 『만주야화』의 목차와 내용

『만주야화』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와 같은 순서에 따라 개국전설을 배치하고 있다. 다만 금와의 전설을 고구려의 개국전설에서 분리해 “동부여”라는 별도의 편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와는 구별되고,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과는 유사한 형태라고 간주할 수 있다.

『만주야화』는 전설을 위시해 다양한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개중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과, 서양인의 만주 경험에 관한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만 개별적인 이야기가 연결되어 특별한 경향성이나 의도가 드러난다고 여기기는 어렵다. 오히려 개별 편목 사이에 유기적인 흐름은 부재한다고 간주하는 편이 타당하다. 이는 『만주야화』가 서로 다른 시기에 집필한, 서로 다른 내용의 글을 하나로 엮은 것이기 때문이다.⁶⁶⁾ 무관계한 글을 엮은 경위에 관해서는, 저자가 서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

오사카옥호의 만주 도매부 지배인으로 대륙의 도서배급 사업에 비상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던 야마나카 타이사부로 군이 어느 날 도서관에 찾아와서, 일을 하면서 배급의 전체 사정을 구석구석 알자 묘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바로 대륙의 것이 대단히 세력을 얻어 판매처도 대륙에 주재하는 쪽이 많은데, 저자는 대체로 내지인[日本人]이고 출판하는 곳도 내지[日本], 주로 도쿄라는 것이다. 소재도 대륙에서 얻고 독자도 대륙에 있는데, 집필과 간행이라는 중간 단계만 다른 지역의 역량을 빌리지 않을 정도로, 대륙은 그런 방면에서는 사실 빈한하지 않은지 어떤지. 자신은 이번에 오사카옥호의 도매부가 만주서적배급회사(滿洲書籍配

66) 각 편목의 집필 시기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심양야화」: 쇼와 13년[1938]~쇼와 14년[1939]. 「영구에서 일어난 「천로역정」 한역자의 죽음」: 쇼와 3년[1928]. 「청일전쟁의 화를 입은 요양의 와일리」: 쇼와 4년[1929]. 「만주의 크리스천」: 쇼와 10년[1935]~쇼와 15년[1940]. 「봉천의 옛 이야기」: 쇼와 10년[1935]~쇼와 15년[1940]. 「만주 여러 민족의 개국전설」: 쇼와 15년[1940]. 「나라·동경성·장안」: 쇼와 15년[1940]. 「마르코 폴로와 만주」: 쇼와 13년[1938]. 저자는 모든 글의 말미에 집필한 시기를 명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글이 1938년에서 1940년 사이에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給會社)의 통제를 받아 자연히 해소(解消)된 것을 기회로, 저자도 대륙에서, 간행도 대륙 현지에서라는 방침으로 철저히 자력으로 분발하여 출판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다. 대륙의 독서계가 도쿄의 신세를 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으나, 야마나카 군이 주장하는 바, 대륙이 자급자족하는 정신적 보람을 주고, 나아가 내지에도 이곳의 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큰 방향에서 기획에 찬성했다. 너무나 열심히 찬성한 결과, 이와 같이 봉천에 생긴 새로운 출판사 토풍서방의 첫 출판 도서로 나의 원고를 요청받고 말았다. 나의 원고는 성대한 일애 쓸 만한 것이 아니라고 백방으로 사절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야마나카 군의 거사에 쌍수를 들어 찬성한 이상 찬성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광외(郭隗)의 고사에서 말하듯이 죽은 말의 뼈를 사서 명마를 천하에 구한 예도 있다. 나의 원고는 명마를 끌어내기 위한 죽은 말의 뼈일 뿐이다. 이런 심산으로, 젊은 학우인 오오우치 나오유키 군이 원고를 운문하여 편집해 준 것으로, 야마나카 군의 새로운 시작에 조출한 축하의 뜻을 담아서 현상하기로 했다. 이런 경위로 나온 것이 바로 『만주야화』이다. (하략)⁶⁷⁾

- 67) 大阪屋號の滿洲卸部支配人として大陸に於ける圖書配給の事業に異常な力量を發揮して居た山中泰三郎君が或日圖書館にやつて來て、こんな仕事をして居て配給の表裏から隅々までの事情を知ると妙なことが目につくと云ふ、それは、大陸ものが非常な勢ひを出し、捌け先きも大陸在住の方面に多いが、著者は大抵内地の人で、出版されるところも内地-主として東京である。素材も大陸から、そして讀む人も大陸であつて、執筆と刊行との中間だけが、他の力を俟たなきやならぬほど、大陸はその方面に於て、事實貧寒であるかドウカ。自分は今度大阪屋號の卸部が滿洲書籍配給會社に統制されて自然解消になるのを機會に、著者も大陸から、そして刊行も大陸の現地だと云ふ建て前で飽まで自力で奮起して出版業を始めたいとのこと。大陸の讀書界に東京から世話をして貰うことも悪くはあるまいが、山中君の提唱する、大陸自給自足の精神的慈味の供給-更に進んで内地にもこちらのものを供給すると云ふことも一つの行き方だと、大にその企てに賛成した。あまり熱心に賛成し過ぎた結果、斯くして奉天に生れた新出版肆録吐風書房の處女出版として自分の原稿をと云ふ要求には參った。自分のものなどそんな晴れかましいことに使はるべきものぢやないと百方辭退したが、一面から云へば、山中君のこの長擧を雙手を舉げて賛成する以上、その賛成の實を示す爲には、隗より始めよと云ふこともある、死馬の骨を買つて、名馬を天下に求めた例もある。自分のものなど、名馬を曳出さんが爲の正に死馬の骨だ。そんな積りで若き學友大内直之君が、原稿や切抜きに手を入れて編輯して呉れたものを以て、山中君の新らしいスタートに對して、貧しい祝意を獻ぐことにした。かくして出來たものが即ち『滿洲夜話』一編である。(下略) 『만주야화』, pp.i~iii. “광외의 고사”란 『전국책(戰國策)』 제 29권 「연책(燕策)」 3에 등장하는 일화이다. 연나라의 소왕(昭王)이 즉위 후 인재를 모집하고자, 광외 선생에게 방법을 물었다. 광외는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1천금으로 천리마를 구하는 왕이 있었으나, 3년이 지나도록 구해지 못했다. 어느날 궁중의 청소부가 천리마를 구해오겠다고 하자, 왕이 허락했다. 청소부는 3개월 만에 5백금으로 죽은 말의 머리를 사왔다. 왕이 노하여 꾸짖었으나, 청소부는 죽은 말도 큰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 여길 것이니, 좋은 말이 물려들 것이라고 답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왕은 천리마가 3필이

만주에서 유통되는 서적 가운데 대다수가, 집필과 간행 모두를 일본 본토[内地]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지인이 저자 에토 토시오를 찾아왔다. 도서 집필과 간행 모두를 만주의 역량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판업을 시작하고자 하니, 원고를 청탁한다는 것이다. 응원의 의미로 청탁을 수용해, 원고를 정리해 출간한 책이 바로 『만주야화』이다. 즉 지인의 개인적인 청탁이 문헌 편찬의 큰 동기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만주야화』에 특별한 출간 목적이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우며, 이 문헌은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성격을 띤다. 문헌 편제에서 유기적인 흐름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출간의 배경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만주야화』는 잡다한 읽을거리를 모은 흥미 위주 대중서의 성격을 띤다. “야화(夜話)”라는 제목 역시 이와 같은 문헌의 성격을 방증한다. 실제로 이 문헌은 일정 정도 이상의 인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1940년 출간 이래 1942년에는 15판을 발행하기도 했는데, 2년 사이 지속적인 출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⁶⁸⁾

한편 『만주야화』가 수록한 전설과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수록한 전설 사이에 큰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사례를 제시한다.

昔々北方に一つの國があつたが、その王様の御殿に仕へてゐた一人の侍女が、いつの間にか身重になつてゐた。王はそれを知つて面白からず思ひ、其の女を殺さうとした。ところが女は、自分の妊娠したわけを泣いて告白した。それによると、或る日天上からチイツ鶏子(鶏卵)のやうな形をした幻のやうな氣體がすうつと降つて來て彼女の體內に入つたが、それから身重になつてしまつたといふのである。其の告白を聞いて見れば、別に女に罪があるわけではないので、王はその侍女を許した。そして間もなく男の子が生れたが王はその嬰兒を豚小屋の中にし棄てさせた。(天の氣で孕まれた東明王)⁶⁹⁾

옛날 옛날 북쪽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의 궁전에서 왕을 섬기던 한 시녀가 어느 새인가 몸이 무거워져 있었다. 왕은 그 사실을 알고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여자는 자신이 임신한 사연을 울면서 고백했다.

나 생겼다. 괘위는 같은 이치이니 자신을 잘 대우한다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인재가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왕이 괘위를 스승으로 모시자, 많은 인재가 연나라로 몰려들었다. 고사의 내용은 다음의 논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유향 지음, 임동석 역주, 『역주 전국책』 2, 전통문화연구회, 2004, 368~371면.

68) 제 15판의 발행일은 1942년 7월 15일이다. 植民地文化研究會 編, *op. cit.*, 2005, p.108.

69) 『만주의 전설과 민요』, pp.1~2.

그에 따르면, 어느 날 하늘 위에서 달걀 같은 형태의 환영 같은 기운 덩어리가 스욱 내려와 여자의 체내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고백을 듣고 보니 딱히 여자에게 죄가 있을 리가 없어서, 왕은 그 시녀를 용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왕은 그 젖먹이를 돼지우리 안에 버리게 했다. (하늘의 기운으로 잉태한 동명왕)

むかしむかしずっと北の方に一つの國があつた。その王様の御殿に仕へて居た一人の女官が、何時の間にか身重になつて居た。王はそれを知つて大變に面白くないことに思つて、その女を殺さうとした。ところがその女官が泣いて自分が振をした譯を白狀した。と云ふのは或る日天上から鶏の卵の形をした幻のやうな氣がスツと降つて來て、女の中に這入つた。それから身重になつた云ふのである。さう打明けられると女に罪はないので、王はその女を赦して置いた。程なく男の子が生れた。王はその赤ん坊を豚小屋の中にし棄てさせた。(扶餘)⁷⁰⁾

옛날 옛날 아주 먼 북쪽에 한 나라가 있었다. 그곳의 궁전에서 왕을 섬기던 한 여관이 어느 새인가 몸이 무거워져 있었다. 왕은 그 사실을 알고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여겨,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그 여관은 울면서 자신이 임신을 한 사연을 자백했다. 사연은 어느 날 하늘 위에서 닭의 알의 형태를 한 환영 같은 기운이 스욱 내려와 여자의 안에 기어 들어갔다. 그때부터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털어놓고 보니 여자에게 죄는 없어서, 왕은 그 여자를 용서해 주었다. 머지않아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왕은 그 아기를 돼지우리 안에 버리게 했다. (부여)

부여의 개국전설에서 동명왕의 탄생에 관한 부분이다. 표현상의 차이가 일부 존재하지만, 두 인용문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의 층위에서도 전제한 것처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헌의 출간 시기와 위상을 고려하면, 이는 에토가 『만주야화』를 집필하면서 『만주의 전설과 민요』를 다수 참조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에토가 『만주야화』를 집필하던 시기에, 이미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공식적인 위상을 획득한 채 널리 읽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70) 『만주야화』, p.263.

2.2. 자료의 성격

만주전설집의 내용과 기본적인 특징을 개관하였다. 개관한 바를 토대로 전설집 사이의 관계와, 개별 전설집의 위상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논의에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만주전설집 사이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가장 명확한 영향 관계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와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전자를 다시 정리해 편찬한 것이 후자이기 때문이다. 즉 전자는 후자의 편찬에 영향을 미쳤다고 간주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만주의 전설과 민요』와 『만주야화』 사이의 관계 역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자가 후자의 집필과 편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한편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은 학교 교육용 자료이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였음을 고려한다면,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만주의 전설과 민요』를 참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추론에 근거해 두 전설집 사이의 영향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더불어 『만몽전설집』도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과 공유하는 전설이 일부 존재한다.⁷¹⁾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만몽전설집』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역시 제기할 수 있다.

영향 관계뿐만 아니라, 전설집의 특성을 고려한 관계 설정 역시 가능하다. 만주전설집 각각의 편찬 목적을 고려해, 일종의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위계를 설정하는 기준은 공식성이다. 편찬의 주체가 개인적이기보다는 국가적일수록, 편찬 의도가 흥미 위주보다는 진지한 충위를 지향할수록 공식성이 강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만주의 전설과 민요』와 『만주야화』는 우선 확고한 위상을 규정할 수 있다. 전자는 가장 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만주전설집이다. 국책 기관에서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편찬한 문헌이자, 문화적인 전범의 역

71)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만몽전설집』의 35번 전설과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1번 전설. 『만몽전설집』의 35번 전설과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2번 전설. 『만몽전설집』의 35번 전설과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1번 전설. 『만몽전설집』의 42번 전설과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12번 전설. 『만몽전설집』의 16번 전설과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16번 전설. 『만몽전설집』의 55번 전설과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26번 전설.

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후자는 가장 공식적인 성격이 약한 만주전설집이다. 전적으로 사적인 동기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유기적인 구성 없이 잡다한 이야기를 모은 흥미 위주의 대중서이기 때문이다.

다른 세 편의 위상은 둘의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문헌이 공식성을 띠는 정도를 규정해 명확히 배치하는 일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근거를 따져 나열해 보고자 한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 다음으로 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문헌은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이다. 이 문헌은 학교 교육을 위한 참고 자료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연령층을 주된 독자로 삼았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참고 자료로 나온 문헌이기 때문에, 공식성이 높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주지하다시피 자연령층을 독자로 삼았기 때문에 서사의 흐름이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어, 『만주의 전설과 민요』 보다는 공식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 다음으로 공식성이 강한 문헌은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이다. 이 문헌은 흥미롭고 대중적인 읽을거리를 지향한다. 다만 『만주의 전설과 민요』를 재정리한 전설집이며, 무엇보다도 일본인 대중에게 맹방인 만주국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명확한 의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의도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편찬 의도와 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를 위계상 세 번째로 규정하였다.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 다음은 『만몽전설집』이다. 실상 『만몽전설집』 서문에서 저자가 밝히는 편찬 의도는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중적인 읽을거리를 통해 일본인의 교양 함양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만몽전설집』이 수록한 전설은 본래 전설집 편찬을 염두에 두고 수집한 자료가 아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록한 전설은 우선 전설집을 염두에 두고 수집한 자료가 아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문헌의 본문 서술에서 전설이 지리 정보에 비해 부차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더불어 목차와 편제의 체계성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보다 공식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개별 만주전설집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공식성을 기준으로 삼아 세운 위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 -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 -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 - 『만몽전설집』 - 『만주야화』. 가장 공식성이 강한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편제와 구성이 가장 체계적이며, 고려해야 할 결텍스트 역시 가장 풍부하다. 만주전설집의 내용과 구성 측면을 통해 이념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목적에 따르면,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를 중심에 두고, 여타의 만주전설집을 충분히 참조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 만주전설집 소재 개국전설의 재편 방식과 의미

3장에서는 문헌 개관의 내용을 토대로 삼아,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개국전설의 재편 방식과 그 의미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때 만주전설집 가운데 내용과 구성이 가장 체계적인 『만주의 전설과 민요』를 중심에 놓고, 여타의 문헌을 참조하면서 개국전설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질문은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개국전설의 구체적인 재편 방식에 관한 것이다. 만주전설집이 어떤 이야기를 수용해, 어떤 결텍스트를 서사적 장치로 부가하고 있는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주전설집이 개국전설 재편을 통해 창출하고자 하는 의미에 관한 것이다. 만주전설집이 개국전설을 통해 어떤 이념적 논리를 구축하고자 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3장에서는 만주전설집과 개국전설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1절에서는 우선 만주전설집이 수록한 전설의 수집 정황과 출전을 비정(比定)한다. 이어서 전설을 이야기하는 방식에 관해, 즉 결텍스트의 양상에 관해서 살피고, 결텍스트가 전설 본문의 해석을 어떤 방향으로 견인하고 있는지 살핀다. 2절에서는 먼저 개국전설이 속한 ‘전설’이라는 범주를 조망한다. 부여·고구려의 이야기를 ‘전설’로 분류할 때, 이야기에 어떤 성격이 부여되는지 검토한다. 이어 앞선 논의를 총괄적으로 살피면서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개국전설이 구축하는 의미망에 관해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 설화 연구의 관점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관한 의문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3.1. 개국전설 재편의 방식

3.1.1. 전설 출전의 은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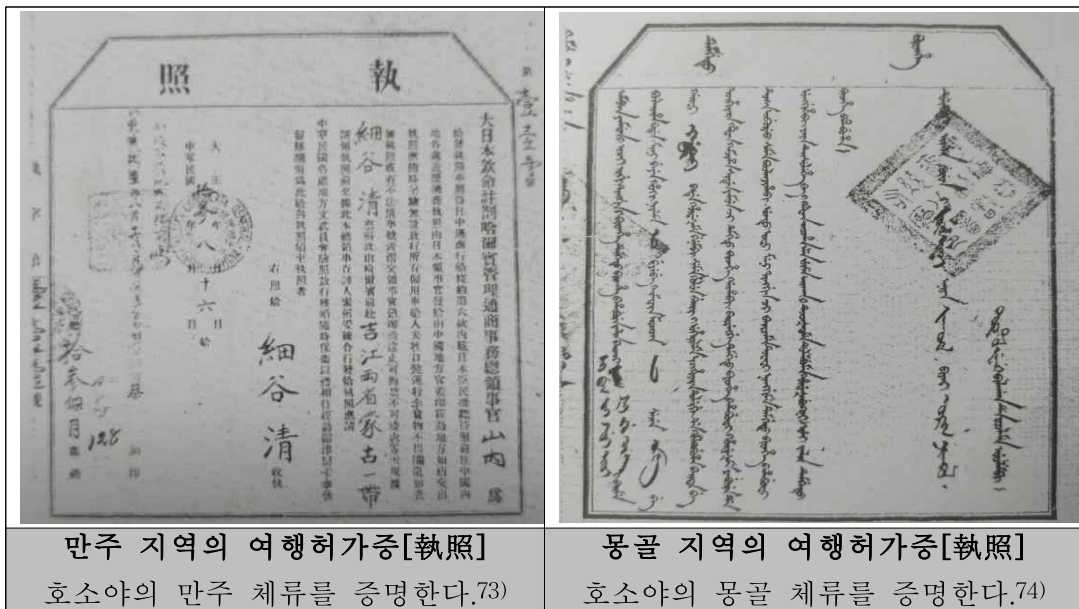
만주전설집은 개국전설을 위시해 다수의 전설을 수록하고 있다. 이때 수록된 전설은 문헌 저자의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다. 기존의 이야기에 윤문이나 편집을 가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이야기 자체는 이미 문헌이나 구전을 통해 이전 시기부터 전승되던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서문에서는 타니야마 츠루에를 ‘작가’가 아니라 “조사원”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개국전설을 위시해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전설이 이전 시기부터 존재하던 이야기라면, 당연히 그 출전에 관해 질문할 수 있다. 즉 이야기 조사와 수록의 경위에 관한, 혹은 보다 구체적인 조사의 정황이나 방법에 관해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실마리를 『만몽전설집』의 서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당초 나는 만몽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거의 300편에 달하는 구비와 전설을 얻었다. 지난 15년 간 국세북점(國勢北漸)의 사실(史實)을 탐구하기 위해 만몽 각지를 여행하던 도중, 또는 좌담(座談)이나 독서를 통해 얻은 것으로 (하략)⁷²⁾

서문에서 저자 호소야는 자신의 자료 수집 과정을 서술한다. 자신의 관심사인, 일본의 만몽 진출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구비와 전설 자료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서문의 서술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만몽전설집』 수록 전설의 출전을 가늠할 수 있다. 호소야는 서문에서 여행, 좌담, 독서를 자료의 주된 출처로 거론한다. 좌담이란 설화 현장 조사와, 독서란 설화 자료 조사와 상통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여행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설화 조사를 위한 현장 답사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실상 『만몽전설집』 권두에서 호소야는 현장 조사의 실재성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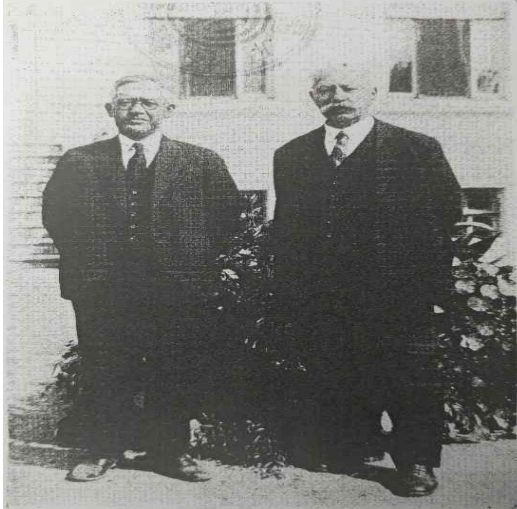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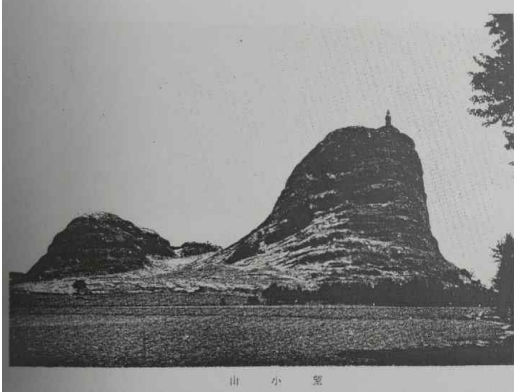


72) 當初、余は滿蒙に關する材料を整理し、口碑・傳説等、三百に垂んとするものを得た。こは過去十五年の間、國勢北漸の史實を採求せんがため、滿蒙各地を旅行せる途上、將た又、座談に讀書によつて得たもので (下略) 『만몽전설집』, p.ii.

73) 『만몽전설집』, p.iii.

74) 『만몽전설집』, p.iv.

75) 『만몽전설집』, p.vi.

	
<p style="text-align: center;">저자의 사진 호소야의 만몽 체류를 증명한다.⁷⁵⁾</p>	<p style="text-align: center;">만철(滿鐵)의 아시아호(あじあ號) 『만몽전설집』 전설의 지역성을 강조한다.⁷⁶⁾</p>
	
<p style="text-align: center;">웅악성온천(熊岳城溫泉) 16번 전설의 공간적 배경이다.⁷⁷⁾</p>	<p style="text-align: center;">망소산(望小山) 17번 전설의 공간적 배경이다.⁷⁸⁾</p>

[표 11] 『만몽전설집』 수록 사진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의 여행허가증은, 호소야가 실제로 만몽에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상 수단이다. 세 번째 사진은 만몽에 체류 중인 실제 자신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네 번째 사진은 만철 아시아호 기차인데, 기행문의 느낌을 준다는 『만몽전설집』의 특징과 관련해 조망할 수 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진은 이 문헌에 수록된 전설의 실제 공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

76) 『만몽전설집』, p.ii.

77) 『만몽전설집』, p.ix.

78) 『만몽전설집』, p.xi.

이다. 이 사진은 모두 저자가 만주에서 실제로 활동했다는 인식에 개연성(蓋然性)을 부여한다.

여행·좌담·독서라는 표현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설화 조사 방법은, 현재 학문적인 견지에서 통용되는 설화 조사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장 조사와 문헌 조사 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했을 것이라 여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만주전설집도 같은 방법을 통해 전설 자료를 수집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타니야마도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 서문에서 자신의 전설 조사 경위를 언급하고 있다.

줄거에 손을 대기 시작한 지 벌써 만 3년이 지났다. 이런 방면의 대단한 연구자도 아니고, 또한 이른바 통인(通人)도 아닌데, 그저 십 수 년 만주에서 생활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 한 여자인 내가 이런 책을 내놓는 것은, 적이 이상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이 일을 착수한 애초의 동기는, 신경의 만주사정안내소장 오쿠무라 요시노부 씨가 재촉한 것이다. 쇼와 10년·11년 경, 당시 봉천에 살았던 나는 오쿠무라 씨의 뜻깊은 권유로 인해 만주의 풍속·습관과 전설·민요 등에 관해 미력을 기울여 개략을 정리하고, 두 편의 보고서를 써서 만주사정안내소에 제출했다. 물론 간략한 보고서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이유로 인해 꽤나 곤란을 겪은, 애를 쓴 일이었다.⁷⁹⁾

서문을 통해 타니야마의 전설 조사 경위와 진행에 관해 파악할 수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저자가 구체적인 시공간을 거론하며, 자신이 실제로 만주에 체류했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만몽전설집』이 사진을 통해 증명하고자 했던 바와 상통한다. 실상 이는 타니야마와 호소야에 국한되는 경향이 아니다. 『만주야화』도 사례로 거론할 수 있다. 저자 에토는 서문에서 자신과 지인의 일화를 통해, 필자도 출판사도 만주에 존재하는 책을 간행하고자 한다고 서술하면서, 스스로가 만주 현지에 체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⁸⁰⁾

79) この小著に手をつけ初めてすでに滿三年になる。かういふ方面の大した研究者といふでもなく、またいはゆる通人でもなく、たゞ十數年を滿洲で生活したといふに過ぎぬ一女性人の私がかやうな書を公にすることは、些か潛上の沙汰かも知れない。此の仕事にかゝつたそもその動機は、新京の滿洲事情案内所長奥村義信氏により促されたものである。昭和十年・十一年の、當時奉天に在住してゐた私は、氏の厚意ある獎めにより、滿洲の風俗習慣更に傳説や民謠等に就き微力を傾けて概略をまとめ、二つの報告書をもつて、滿洲事情案内所に提出したのであつた。もちろんそれは簡略な報告書であつたが、私自身の仕事としては種々の理由からかなり困難な骨の折れる仕事であつた。『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 p.i.

서문이나 사진과 같은, 만주전설집의 저자가 만주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결텍스트 장치는 모두 본문의 앞에 사전 제시된다. 사전 제시된 장치는 우선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면서, 전체 문헌의 성격과 방향성을 밝히는 기능을 수행한다. 더불어 이는 저자의 현지 채류와 조사 작업에 실재성을 부여하는 장치로도 작동한다. 저자의 현지 채류와 조사 작업이 실재했다면, 조사 작업을 통해 수집된 전설 역시 실재하는 것이라 여길 수 있다. 즉 서문이나 사진은 결국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전설이 만주에 실재할 것이라는 신뢰감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한다.⁸¹⁾

다만 장치를 통해 전설의 실재함을 담보하고자 하더라도,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모든 전설이 그 혜택을 동등하게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전설은 오직 현지 조사를 통해 획득된 전설에 한정된다. 예컨대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지역전설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역에 얹힌 전설의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인물전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영웅적인 역사 인물에 관한 전설이지만, 역시 구체적인 지역에 얹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개국전설이 사진과 서문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다 면밀히 따져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전설은 특정 지역에 고착된 채 전승되는 설화 유형이다.⁸²⁾ 다만 개국전설이 이와 같은 정의와 합치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개국전설은 특정한 지역이나 증거물에 얹힌 전설이 아니다. 따라서 그 서사적 논리에 따라 특정한 지역에 고착되지 않는다.⁸³⁾ 오히려 개조(開祖)가

80) 『만주야화』, pp.i~iii. 한편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에서는 저자가 만주에 채류했음을 밝히는 결텍스트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이 문헌은 여타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주국 학교의 교육용 자료로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81) 클리퍼드 기어츠는 이와 같은 서술 전략을 “그곳에 있기(Being There)”라고 지칭한다. 현지 조사를 토대로 하는 민족지 서술에서, 민족지의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현지 조사를 수행했음을, 따라서 민족지의 내용도 사실임을 독자를 상대로 증명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민족지 전체를 관통하는 글쓰기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는 우선 펴진한 서술을 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현지 조사의 정황을 상세히 묘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족지 저자는 인터뷰, 묘사, 삽화, 사진 등의 장치를 다수 동원한다. 민족지 서술에 관한 저자의 고민과, 그에 따른 장치의 활용은 민족지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특히 서두에 집약되어 있다고 기어츠는 주장한다. 클리퍼드 기어츠 지음, 김병화 옮김, 앞의 책, 2014, 11~36면.

82) 장덕순 외, 앞의 책, 2006, 70면; 강등학 외, 앞의 책, 2002, 116면.

83) 일반적인 전설은 지역적 증거물에 관한 설명과 논증의 서사로 성립한다. 이 때문에 서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내적 논리에 따라 증거물에 얹매일 수밖에 없다. 반면 개국전설은 지역적 증거물에 얹힌 전설이 아니기 때문에, 서사 전개 과정에서 여타의 지역이나 증거물에 고착되지 않는다. 강등학 외, 위의 책, 118~121면.

나라를 세우는 과정 자체가 서사적으로 강조될 뿐이다. 실상 전설 본문에 앞서 지리적 정보를 상세히 서술하는 『만몽전설집』도, 개국전설에는 관련 내용을 덧붙이지 않는다.⁸⁴⁾ 이를 고려하면, 개국전설은 현지 조사에 관한 신뢰감을 제고하는 서사적 장치의 혜택을 입기 어렵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개국전설이 만주전설집 내에서 결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인물전설이나 지역전설과는 따라서 개국전설이 만주전설집 내에서 결텍스트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인물전설이나 지역전설과는 별도로 고찰해야 한다. 이때 우선 개국전설의 출전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국전설이 특정한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어, 현지 조사를 통해 만주전설집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로 개국전설 본문을 살펴보면, 보다 설득력이 있는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고구려 개국전설부터 검토할 것이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 수록된 고구려 개국전설 “돌 아래 있던 금와와 알에서 태어난 주몽”의 서사 단락을 정리해 제시한다.⁸⁵⁾

① 도입부: 고구려는 부여의 동쪽인 압록강(鴨綠江) 상류에 위치한, 부여의 분가적인 나라로, 강대한 독립국을 이루었다. 고구려의 개국에 관한 전설이 있다.

② 본문

②-1: 동명(東明)의 먼 자손이 부여의 왕일 무렵, 왕실에 손이 귀해져 왕은 명산 대천에 아이를 얻고자 기도했다. 어느 날 왕이 지나는 길에 맞물린 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돌을 치우자 돌 아래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개구리처럼 생긴 아이가 있었다. 하늘이 준 아이로 여기고 금와(金蛙)라 이름 붙여 태자로 삼았다.

②-2: 어느 날 천제(天帝)가 부여의 땅은 자신의 자손이 강림해 다스릴 곳이니 동쪽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왕은 응해 동쪽으로 옮겨 동부여를 세웠다. 금와가 왕위를 물려받았다.

②-3: 어느 날 장백산(長白山) 기슭 압록강 하안에서 울고 있는 젊은 여자를 만나 사연을 들었다. 여자는 강의 신의 딸인 유화로, 자매와 목욕하러 왔다가 젊은 남자를 만났다. 젊은 남자의 정체는 천제의 아들인 태양으로, 유

84) 지리적 정보를 서술하지 않는 것은 『만몽전설집』에 수록된 개국전설과 시조전설 모두에 해당되는 특징이다. 『만몽전설집』, pp.123~126(「붉은 나무 열매」: 청의 시조전설), pp.126~130(「고구려의 개국」: 고구려의 개국전설), pp.138~140(「동명왕」: 부여의 개국전설), pp.252~255(「흰 말과 잿빛 소」: 거란의 시조전설).

85) 도입부와 후주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문헌상 특징이기 때문에, 본문 내용과 함께 제시한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 pp.3~7.

화는 산속의 집에 가서 태양과 동침했다. 남자는 그 길로 떠났고, 양친은 부끄럽다며 유화를 쫓아냈다. 금와는 유화를 궁으로 데려왔다.

②-4: 햇살이 유화를 따라다녔고, 유화는 큰 알을 낳았다. 금와가 불길하게 여겨 길과 들에 버렸으나 개와 돼지가 보호했다. 부수고자 시도했으나 부수어지지 않았다. 금와는 알을 돌려주었다.

②-5: 알에서 장부가 태어났고, 7살에는 활을 만들어 백발백중했다. 따라서 활 잘 쏘는 아이라는 뜻의 주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금와는 주몽을 왕자로 길렀으나, 다른 왕자가 시기하였다.

②-6: 여러 왕자가 죽이고자 하나 왕은 허락지 않고 마구간지기를 시켰다. 주몽은 안 좋은 말을 많이 먹이고 준마를 굿겨, 왕으로부터 마른 준마를 하사 받았다. 이후 준마를 잘 먹여, 말을 타고 사냥대회에서 1등을 했다.

②-7: 여러 왕자가 모의하여 다시금 주몽을 죽이려 하자, 유화가 미리 알고 떠나 보내 동남쪽으로 갔다. 큰 강물이 나타나 건너기가 어려워지자, 주몽은 아버지가 천신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강의 신의 딸이며, 위험한 상황이니 도와달라고 외쳤다. 이에 물고기가 다리를 만들어 건널 수 있었다.

②-8: 강을 건너 주몽은 세 현인을 만났고, 보좌로 삼아 고구려를 세웠다.

③ 후주: 조선에 전해지는 주몽전설은 이후의 역사적 사실을 더하고 있는데, 고구려가 부여의 분파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역사적으로는 부여국 일파가 이주해 모국의 압박을 피하면서 성장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동명전설에서 등장하는 달갈 형태의 기운과 주몽의 난생(卵生)은 상통하는 변형형인데, 전설이 진화(進化)한 흔적을 보여준다. 부여와 고구려 이외에도 만주 지역의 여러 전설에 물고기나 게 등을 밟고 강을 건너 위험을 피하는 이야기가 다수 존재한다.

고구려의 개국전설이지만, 전반부는 부여의 왕인 금와의 탄생과 등극에 관한 이야기이다. 주몽의 탄생은 금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덧붙인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다만 이 문제는 결국 출전의 문제와 관련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시조 동명성왕(始祖東明聖王)”조의 내용은 북부여의 왕인 해부루(解夫婁)의 아들 금와의 탄생으로 시작된다. 이후 동부여 천도(遷都)와 금와의 왕위 계승이 이어지고, 왕이 된 금와와 유화가 대면하고 나서 주몽이 탄생한다.⁸⁶⁾ 한편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 편 “고구려”조의 내용은 금와와 유화가 대면하면서 시작된다. 금와가 등장하기는 마찬가지이다.⁸⁷⁾

86) 『삼국사기』 권 제 13, 「고구려본기」 제 1, “시조 동명성왕”.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를 참고했다. 아래에서 『삼국사기』를 거론할 경우의 출처도 동일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한 사실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

후주의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 후주에 따르면, 조선에 전해지는 주몽 전설은 고구려가 부여의 분파임을 증명하는 이후의 역사적 사실을 덧붙이고 있다. 이 역시 출전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후주의 서술은 『삼국유사』 “고구려”조의 다음 기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주림전(珠琳傳)』 제 21권에서 “옛날에 영품리왕(寧稟離王)의 여종이 잉태하자, 점쟁이가 점을 쳐서 ‘아이는 귀해질 것이니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니, 왕은 ‘나의 자식이 아니니,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종은 ‘기운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잉태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아들을 낳으니 상서롭지 않다고 여겨, 돼지우리에 버리니 돼지가 숨을 불어 주고, 마구간에 버리니 말이 젖을 주어, 죽지 않고 마침내 부여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였다. (곧 동명제東明帝가 졸본부여왕이 된 것을 이른다. 이 졸본부여는 마찬가지로 북부여의 별개 도읍이므로, 부여왕이라고 한 것이다. 영품리는 부루왕의 다른 이름이다.)⁸⁸⁾

이 기사 내용은 주몽 이야기와 유사하다. 다만 결말에서 주인공이 고구려가 아니라 졸본부여의 왕이 된다는 것이 다르다.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一然)은 이 기사의 주인공을 동명왕[東明帝]이라 간주하고, “고구려”조의 말미에 이 기사를 제시해 주몽 관련 기사와 병치했다. 이는 서사 구조의 유사성을 근거로 삼아, 동명왕 이야기와 주몽 이야기의, 나아가 부여와 고구려의 계통적 친연성을 주장한 것이라 여길 수 있다. 부여·고구려 건국신화는 문헌 자료의 출전이 다양하고, 역사학적 고찰의 대상이기도 해서, 두 건국신화 사이의 계통을 두고 시비가 존재해 왔다.⁸⁹⁾ 다만 여기서 계통적 시비나 사실(史實) 자체보다 중요한

87)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과 『만주야화』에서는 금와의 이야기와 주몽의 이야기를 분리해 수록하고 있는데, 주몽의 이야기는 금와와 유화가 대면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이는 아마도 『삼국유사』 서술 편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삼국유사』 권 제 1, 제 1 「기이」, “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를 참고했다. 아래에서 『삼국유사』를 거론할 경우의 출처도 동일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한 사실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

88) 珠琳傳第二十一卷載, “昔寧稟離王侍婢有娠, 相者占之曰 ‘貴而當王’, 王曰 ‘非我之胤也, 當殺之’. 婢曰 ‘氣從天來故我有娠’. 及子之產謂爲不祥, 捐圈則猪噓, 奔欄則馬乳, 而得不死卒爲扶餘之王.” (即東明帝爲卒拏扶餘王之謂也. 此卒拏扶餘亦是北扶餘之別都, 故云扶餘王也. 寧稟離乃夫妻王之異稱也.) 『삼국유사』 권 제 1, 제 1 「기이」, “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번역문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89) 부여 동명왕의 이야기는 중국의 사서인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인용된 『위략(魏略)』의 일부를 주요한 출전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후한서(後漢書)』와 『논형(論衡)』 등을 함께 거론할 수 있다. 고구려

것은, 부여와 고구려의 관계를 조망하는 만주전설집의 인식이다. 고구려 개국전설의 후주를 참고한다면,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일연과 같은 관점에 따라 부여와 고구려의 관계를 조망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미루어 보면,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 수록된 고구려 개국전설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주로 참고해 재구성한 것으로 여겨진다.⁹⁰⁾ 다음으로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 수록된 부여 개국전설인 “하늘의 기운으로 잉태한 동명왕”의 서사 단락을 정리해 제시한다.⁹¹⁾

① 도입부: 부여는 만주 최초의 국가로, 서쪽에서 이주해 요하(遼河)와 송화강(松花江) 일대의 비옥한 토지에 자리 잡았다. 만주 최초의 농업민이며, 원시인인 숙신(肅愼)과 읍루(挹婁)에 문화적 영향을 미쳤다. 부여의 개국에 관한 전설이 있다.

② 본문

②-1: 어느 나라 왕의 시녀가 임신했다. 왕이 이상히 여겨 죽이려 하자 사연을 고백했다. 하늘에서 계란 같은 기운이 내려와, 몸 안으로 들어가더니 임신했다는 것이다. 왕이 배려해 시녀는 사내아이를 낳았다.

②-2: 왕이 마음이 변해 죽이고자 돼지우리과 마구간에 버렸으나, 돼지와 말이 돌보았다. 하늘의 아이라고 여겨 기르도록 했다. 아이의 이름은 동명(東明)으로, 날로 성장해 활을 잘 쏘는 호걸로 자랐다.

주몽의 이야기는 『삼국사기』·『삼국유사』·「동명왕편(東明王篇)」 이외에도, 중국의 사서인 『양서(梁書)』·『위서』·『수서(隋書)』·『북사(北史)』 등을 출전으로 거론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전자가 후자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고하였다. 이복규, 『부여·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집문당, 1998; 「고구려신화의 성립과 민족신화적 성격」, 『역사민속학』 18, 역사민속학회, 2004.

90) 일본에서는 만주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른 시기부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문헌 자료로 동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야기 소자부로(八木裝三郎)의 연구를 거론할 수 있다. 야기는 도쿄제국대학 인류학 교실의 일원으로, 1900년 조선에서 낙랑의 벽돌 유적을 조사하기도 한 인물이다. 야기는 1928년 출간한 저서 『만주고고학(滿洲考古學)』에 실린 논문인, 「민족 기원의 여러 전설(民族起源の諸傳説)」에서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기원 전설을 논의한다. 일본 이외에도 조선·만주·대만 등의 전설을 거론하면서, 야기는 특히 난생 화소의 공통성에 주목한다. 이 논문에서는 신라 혁거세와 알영의 전설을 논의하기 위해 『삼국사기』를, 가락국 김수로의 전설을 논의하기 위해 『삼국유사』를, 부여 동명왕과 고구려 주몽의 전설을 논의하기 위해 「광개토왕릉비문」·『삼국사기』·「동명왕편」·『위략』·『후한서』·『동환록(東寶錄)』 등의 문헌을 동원하고 있다. 八木裝三郎, 「民族起源の諸傳説」, 『滿洲考古學』, 東京: 岡書院, 1928, pp.1~67.

91) 문헌의 특징인 도입부와 후주를 함께 제시한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 pp.1~3.

②-3: 왕이 다시금 심성이 뒤틀려 죽이고자 했다. 동명은 도망쳐 남쪽으로 향하던 중, 앞에 강물이 나타나 건널 수 없었다. 활로 물을 치자 물고기 다리가 생겨서 무사히 건넜다. 이후 부여를 세우고 왕위에 올랐다.

③ 후주: 강원(姜原)이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임신해 낳은 아이를 불길하다 여겨, 길거리에 버리자 마소가 피하고, 얼음 위에 버리자 새가 깃털로 덮어, 신의 아이로 여겨 기르며 버렸던 아이라는 뜻의 기(棄)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던 주(周)의 시조전설과 유사하다. 동명이 건넌 강은 송화강이다.

부여 개국전설의 주요한 출전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만주의 전설과 민요』도 이 문헌을 참고했을 것으로 우선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후주의 서술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주에 따르면, 부여 개국전설은 주(周)의 시조전설과 유사하다. 이 서술을 고려할 때,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위략』 이외의 문헌도 참조했다고 여겨진다. 바로 후한(後漢)의 사상가 왕충(王充)의 저서인 『논형』이다.⁹²⁾ 『논형』의 「길험(吉驗)」편은 천명(天命)을 받은 인간의 행적에 드러나는 상서(祥瑞)의 양상을 다룬 편목인데, 여기서 주의 시조인 후직(后稷)과 동명의 이야기를 병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직의 어머니는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혹은 제곡(帝嚳)의 옷을 입고 그의 거처에서 앉아서 쉬다가 임신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후직을 낳고 괴이히 여겨 길가에 버렸는데, 소와 말이 감히 밟지 못했다. 얼음 위에 두자 새가 날개로 덮어주어, 그 몸에 새떼가 모였다. 어머니가 일의 신비로움을 알고, 이에 후직을 거두어 키우니, 자라서 요(堯) 임금을 보좌하였고 벼슬이 사마(司馬)에 이르렀다. (중략) 무릇 후직은 마땅히 버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와 말이 밟지 않았고 새가 날개로 덮어 보호했으며, 곤막(昆莫)은 마땅히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가서 그를 먹인 것이다.

북이(北夷) 탁리국(橐離國) 왕의 여종이 잉태하자, 왕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여종이 답하여 “큰 계란과 같은 기운이 있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임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아들을 낳았는데, 돼지우리 가운데에 버리자, 돼지가 입김을 불어주어 죽지 않았다. 다시 옮겨 마구간 가운데 두어, 말을 시켜 짓밟아 죽이게 하려고 했으나, 말이 다시 입김을 불어주어 죽지 않았다. 왕은 하늘의 아들이라고 의심하고, 어머니가 거두어 종으로 기르도록 하고, 동명이라고 이름 붙여 소와 말을 치도록 하였다. 동명이 활쏘기를 잘하자, 왕은 나라를 빼앗길 것

92) 실상 『논형』은 당시 이미 부여 동명왕의 개국전설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였다. 白鳥庫吉, 「夫餘國の始祖東明王の傳説に就いて」, 『服部先生古稀祝賀紀念論文集』, 1936(이복규, 앞의 책, 1998, 213~214면에서 재인용).

을 두려워하여 죽이고자 하였다. 동명이 달아나다가 남쪽의 엄호수(掩淲水)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동명은 건널 수 있었다.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져, 추격하던 병사는 건널 수 없었다. 이에 나라를 세우고 부여의 왕이 되니, 북이에 부여국이 있게 되었다. 동명의 어머니가 처음 임신했을 때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태어나서 버리자 돼지와 말이 입김을 불어 따뜻하게 하여 살렸다. 자라서 왕이 죽이려고 하니, 활로 물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었다. 천명이 마땅히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돼지와 말의 구원이 있었다. 명이 마땅히 나라를 세우고 부여의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도운 것이다.⁹³⁾

여기서 제시한 동명왕 이야기는, 『삼국유사』 “고구려”조에 인용된 『주립전』 이야기와도 유사하다. 후직과 동명왕의 이야기를 같은 편목에 병치한 것은, 두 이야기를 동일한 범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두 이야기가 유사하다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서술은, 이와 같은 『논형』의 편제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부여 개국전설의 주된 문헌 출전은, 특히 『논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즉 개국전설은 현지 조사가 아니라 문헌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전설일 가능성이 크다.⁹⁴⁾ 따라서 서문과 사진을 활용하는 만주전설집의 전략은, 개국전설에

93) 後稷之時，履大人跡，或言衣帝嚳之服，坐息帝嚳之處，妊身。怪而棄之隘巷，牛馬不敢踐之。置之冰上，鳥以翼覆之，慶集其身。母知其神怪，乃收養之，長大佐堯，位至司馬。(中略) 夫后稷不當棄，故牛馬不踐，鳥以羽翼覆愛其身，昆莫不當死，故鳥銜肉就而食之。北夷橐離國王侍婢有娠，王欲殺之。婢對曰：“有氣大如雞子。從天而下，我故有娠。”後產子，捐於豬溷中，豬以口氣噓之，不死。復徙置馬欄中，欲使馬藉殺之，馬復以口氣噓之，不死。王疑以爲天子，令其母收取，奴畜之，名東明，令牧牛馬。東明善射，王恐奪其國也，欲殺之。東明走，南至掩淲水，以弓擊水，魚鱉浮爲橋，東明得渡。魚鱉解散，追兵不得渡。因都王夫餘，故北夷有夫余國焉。東明之母初妊時，見氣從天下，及生，棄之，豬馬以氣籲之而生之。長大，王欲殺之，以弓擊水，魚鱉爲橋。天命不當死，故有豬馬之救。命當都王夫餘，故有魚鱉爲橋之助也。『논형』 권 2, 「길힘」 제 9. 원문은 다음의 논저를 인용하였다. 王充 著, 袁華忠·方家常 譯注, 『論衡全譯』 上,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1, p.126, p.128. 이 논저의 원문은 간체로 쓰여 있는데, 번체로 수정하였다. 같은 책 pp.127~128, p.129의 중국어 번역문을 참고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94) 시조전설도 개국전설과 마찬가지로 문헌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조의 시조전설은 청의 역사서인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를 참고했을 것이다. 일본인이 『만주원류고』를 접한 것은, 조선을 병합하기 이전 시기에 조선의 고서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였다.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가 출간한 “조선군서대계(朝鮮群書大系)”는 이 고서 정리 사업의 결과물인데, 대계의 별집(別集) 가운데 1916년에 출간된 제 7집이 바로 『흙정(欽定) 만주원류고』이다. 『만주원류고』가 학술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후 1931년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제자인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가 신라의 석탈해 전설을 연구하는

적용하기는 어색하다. 따라서 개국전설의 실재성 증명을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관점에 따르면, 가장 타당한 방법은 전설의 문헌 출전을 명기(明記)하는 것이다. 실재하는 문헌의 이름을 기재한다면, 그 문헌을 출전으로 기재한 전설의 실재성도 일정 부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만주전설집은 이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만주전설집에는 수록된 전설의 출전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개국전설의 출전을 비정하면서, 문헌 비교에 근거한 추론을 전개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설화 연구에서 자료의 출전을 기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루는 자료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주전설집 편찬 시기만이 그 예외였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실상 설화 조사 방법과 형식 자체는 그 이전 시기부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창(南滄) 손진태(孫晋泰)의 사례를 거론할 수 있다. 손진태는 1920년대에 수집한 설화를 정리해, 1930년 『조선민담집(朝鮮民譚集)』을 출간한다. 『조선민담집』은 일제강점기의 설화집 가운데 가장 많은 자료를 수록하고 있고, 체계를 세워 설화를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더불어 수집한 설화 자료의 내력을 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고평가된다.⁹⁵⁾ 이 문헌이 기재하는 설화 자료의 내력은 구체적인 수집 시기, 지역, 자료 제공자로 자세하다. 나아가 수집 정황 역시 언급된다.⁹⁶⁾

과정에서 거론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미시나가 석탈해 전설을 연구하여 집필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三品彰英, 「脫解傳說考」, 『靑丘學叢』 5, 1931. 이 논문은 이후 다음의 논저에 「脫解傳說」이라는 이름으로 재수록되었다. 三品彰英, 『日鮮神話傳説の研究』, 東京: 柳原書店, 1943. 船越亮佑, *op. cit.*, 2017, p.125, p.128.

95) 장덕순, 『설화문학개설』, 이우출판사, 1975, 63~64면; 조희웅, 「설화 수집의 역사와 현황」, 『구비문학』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979, 18면; 조희웅, 『설화학강요』, 새문사, 1989, 21면; 梶井陟, 「朝鮮文學の翻譯足跡 (三): 神話、民話、伝説など」, 『季刊 三千里』 24, 東京: 三千里社, 1980, p.180; 이재윤, 「한국설화의 자료 수집 연구사」, 『세종어문연구』 5·6, 세종대학교 세종어문학회, 1988, 74면; 이수자, 「구비문학연구의 성격과 의의」, 한국역사민속학회 편,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 민속원, 2003, 223면.

96) 『조선민담집』은 수록된 설화의 말미에 자료의 내력을 기재하면서, 수집 정황을 “이야기[談]”과 “기여[寄]”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가 현지 조사의 구술 채록을 통해 획득한 설화를 가리키는 비교적 명확하다. 반면 후자는 모호하다. 다만 손진태가 신문 광고를 통한 현상 공모를 활용해서도 설화를 수집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문헌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孫晋泰, 『朝鮮民譚集』, 東京: 郷土研究社, 1930, p.3, p.187(손진태 지음, 이시준 외 편, 『조선민담집』, 제이앤씨, 2013, 33면, 217면); 김광식, 「한일 설화 채집·분류·연구사로 본 손진태 『조선민담집』의 의의」, 『동방학지』 17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6면.

『조선민담집』의 편찬은 손진태의 업적이지만, 그 구성 방식은 다시 이전 시기 설화 조사 작업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손진태는 1920년대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서 학술적 지식과 방법론을 습득한 후 조선 현지 조사를 수행했다.⁹⁷⁾ 더불어 이 시기 그는 일본 구비전승의 수집과 연구를 시작한 인물인 타카기 토시오(高木敏雄)의 『일본전설집(日本傳説集)』을 접했다.⁹⁸⁾ 『일본전설집』에서는 전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한편, 수집한 내력도 기재하고 있다. 손진태는 『조선민담집』에서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⁹⁹⁾

손진태의 학맥(學脈)을 고려한다면, 설화 수집의 내력을 기재하는 것은 당시 이미 존재하던 형식이었다. 따라서 『조선민담집』의 사례를 고평가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만주전설집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 즉 수록된 전설의 실재성 제고를 일정 포기하면서도, 설화의 내력과 출전을 기재하지 않으면서 획득하고자 하는 효과에 관해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개국전설이 출전 문헌을 기재한다면 모순이 발생한다. 주지하다시피 부여·고구려 개국전설의 주된 출전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논형』 등의 문헌이다. 이는 만주 고유의 것이 아니며, 한국이나 중국 본토의 것이다. 반면 『만주의 전설과 민요』를 위시한 만주전설집은, 범례나 서문의 서술을 통해 만주 고유의 향토전설만을 수록했다고 주장한다. 이때 만주 고유의 전설을 수집하기 위해 만주 고유의 것이 아닌 문헌을 참고했다는 모순이 일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주전설집이 개국전설의 출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우선 이 모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개국전설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개국전설은 구체적인 지역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서문과 사진의 겹텍스트 장치는 여기서 작동한다. 정체성의 문제에 관해 개국전설에 발생한 공백을 채우는 것이다.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개개의 사진은 만주 내의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단순히 특정한 지역만을 표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여러 편의 사진과 서문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개별적인 지역의 집합으로 만주 공간 전체를 표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사적 장치의 자장(磁場) 아래, 개국전설 역시 만주 공간 전체를 표상하는 전설로 규정된다. 개별 지역을 가리키는 다른 전설

97) 전경수, 『손진태의 문화인류학: 제국과 식민지의 사이에서』, 민속원, 2010, 53~56면; 김일권 외 편, 『한국 근현대 100년과 민속학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33~34면; 김광식, 앞의 논문, 2016, 7면.

98) 高木敏雄, 『日本傳説集』, 東京: 郷土研究社, 1913.

99)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설치된 남창문고(南滄文庫)에도 타카기 토시오의 『일본전설집』이 포함되어 있다. 손진태는 『조선민담집』을 편찬하면서 이 문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타카기는 신문 광고의 독자 현상 공모를 통해 이야기를 수집한 후, 기준과 체계를 세워 전설을 분류했다. 김광식, 위의 논문, 4~8면.

과 달리 정체성이 모호했기 때문에, 오히려 서사적 장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다.

3.1.2. 논평과 도상의 부가

만주전설집은 서문이나 범례의 서술을 통해 만주 고유의 전설만을 수록했다고 밝힌다. 다만 개국전설을 검토한 바, 이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만주전설집은 만주 고유의 전설만을 수록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문과 사진의 서사적 장치를 활용해 수록한 전설을 만주 고유의 것으로 재편하고 있었던 것이다. 범례 역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만주전설집의 결텍스트 장치가 사진, 서문, 범례와 같이 본문에 사전 제시되는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전설 본문의 전후에서도 미시적인 장치를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단적인 사례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특징인 전설 본문 전후에 부가된 논평과 주석이다.¹⁰⁰⁾ 이 문제와 관련해 개국전설에 부가된 논평과 주석은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 수록된 부여 개국전설의 도입부와 후주를 제시한다.

먼 옛날 만주의 땅에 국가처럼 보이는 형태를 처음 만든 것은 부여족이었다. 그들은 서쪽에서 옮겨 와서, 요하(遼河)나 송화강(松花江)의 상류에 해당하는 비옥한 토지에 머물렀던 집단으로, 만주 최초의 농업민족이며, 농안(農安)을 중심으로 상당히 유력한 국가를 만들어, 원시인 상태에 있던 숙신(肅慎)이나 읍루(挹婁)에 강렬한 문화적 영향을 주었다. 이곳에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부여의 개국에 관한 전설이다.¹⁰¹⁾

100) 주석의 기본적인 기능은 본문에 관한 추가적 정보를 전하거나, 본문을 해설하는 것이다. 이때 본문의 서술이 의존하는 근거나 자료를 특정하기도 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논의의 신빙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독자는 이를 직접 참조해 본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주석은 비판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학술적 형식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만주전설집의 주석은 그 기능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주석을 서술의 책임을 다하며 비판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활용하지 않고, 본문의 의미를 의도하는 바에 따라 견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브루스 링컨 지음, 김윤성 외 옮김,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이학사, 2009, 339~355면; 앤서니 그래프턴 지음, 김지혜 옮김, 『각주의 역사: 각주는 어떻게 역사의 증인이 되었는가』, 테오리아, 2016, 289~303면.

101) ずっと古い時代に、滿洲の地で國家らしい形を初めて造り得たのは扶餘族であつた。彼等は西方から移つて來て、遼河や松花江の上流に肥沃な土地に土着したもの

다만 이 전설은, 주(周)의 시조전설-즉 강원(姜原)이라는 여자가 들에 나가 거인의 발자국을 보고 나서 임신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불길하게 여겨 길거리에 버렸더니, 거기를 지나가는 소와 말도 모두 아이를 피해 밟지 않았다. 아이를 숲속에 옮기고 다시 얼음 위에 버렸지만, 새가 와서 날개로 아이를 덮었다. 강원은 이를 보고 “이 아이는 신의 아들이 틀림없다”고 생각해 키우기로 했지만, 처음에 버렸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름을 기(棄)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취향이 자못 비슷하다.

더불어 동명이 기적에 의해 건널 수 있었던 큰 강은 송화강으로 보인다.¹⁰²⁾

전자가 도입부, 후자가 후주이다. 도입부에 따르면, 부여는 먼 옛날 만주에 등장해 최초로 국가를 세운 농경민족이다. 농안을 중심으로 세력권을 형성해 숙신과 읍루에 영향을 미쳤다. 후주에 따르면, 부여 개국전설과 주의 시조전설은 유사하며, 동명왕이 기적을 일으켜 건널 강은 송화강으로 비정된다. 농안과 송화강의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는 서술은 전설의 구조를 연상시킨다. 주지하다시피 지명유래담 유형의 일반적 전설은, 서두와 결말에서 전설이 얹힌 시공간과 증거물을 제시한다.¹⁰³⁾ 이는 전설의 성격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부여 개국전설에 부가된 도입부와 후주의 서술은, 만주에 얹힌 공간성을 전설에 부여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작동한다.

한편 동명왕이 일으킨 기적에 관한 서술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개국전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 수록된 고구려 개국전설의 도입부와 후주를 제시한다.

고구려는 부여국의 얼마간 동남쪽-압록강 상류 지역에, 부여국의 분가(分家)격으로 세워진 강대한 독립국인데, 그 개국에 얹혀서는 자못 정성들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¹⁰⁴⁾

で、滿洲に於ける最初の農業民族であり、農安を中心に相當有力な國を形造り、原始人の状態に在った肅愼や挹婁にかなり強烈な文化的影響を與へたものである。此處に記さうとするのは其の夫餘の開國に就いての傳説である。『만주의 전설과 민요』, p.1.

102) 但しこの傳説は、周の始祖傳説-即ち姜原といふ女が野に出て巨人の足跡を見てから妊娠したので、その子を不祥として陋巷に棄てたところ、そこを通る牛馬も皆これを避けて踏まなかつた。これを林中にうつし、又更に氷上に棄てたが、鳥が來て翼でこれを覆うた。姜原はこれを見て「これは神の子に違ひない」と思つて育てる事にしたが、始めて棄て子にしたからといふわけで名を棄と呼んだ云々とあるのに趣向が頗る似通つてある。なほ、東明が奇績によつて渡る事を得た大きな河といふのは松花江と見られる。『만주의 전설과 민요』, p.3.

103) 강등학 외, 앞의 책, 2002, 122면.

조선에 전해지고 있는 주몽전설은 위와 같은 사항에 다시 후세의 사실이 덧붙여 있다고 하는데, 요컨대 고구려의 시조가 부여에서 분파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를 사실적(史實的)으로 말한다면, 평원지대에 있는 송화강 유역에서 동쪽의 장백산(長白山) 압록강의 상류, 일본해(日本海)에 인접한 지방에 부여국의 일파가 이주해 와서 그 산의 험준함을 이용하여 모국의 압박을 면했음이 될 것이다.

이전 부여국의 개국전설에서는 동명의 어머니가 달갈과 같은 기운에 의해 잉태한 것이, 주몽의 경우에는 난생인 것은 형식의 변화[脫化]로 보이며, 그곳에서 전설 진화(進化)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앞의 동명도 이 주몽도, 동일하게 추격자에게 쫓겨 강가에 도망쳐 와서 마침내 물고기나 자라의 도움으로 구해지는데, 만주의 전설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종류의 취향-다시 말해 이야기의 주인공이 물고기나 자라나 혹은 게의 등을 건너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진다는 줄거리의 전설을, 이 양자 이외의 경우에서도 자주 찾아 볼 수 있다.¹⁰⁵⁾

역시 전자가 도입부, 후자가 후주이다. 도입부에 따르면, 고구려는 부여의 분파가 세운 나라로, 부여 동남부 장백산과 압록강 상류 인근에 위치한다. 두 나라의 관계에 관한 인식은 후주에서도 이어지는데, 이때에는 전설 자체에 주목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부여·고구려 개국전설의 구체적인 유사성을 주인공 탄생의 화소(話素, moti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⁶⁾ 동명왕의 어머니를 잉태

104) 高句麗は扶餘國のやゝ東南寄り-鴨綠江の上流地に、扶餘國の分家格として建國された強大な獨立國であるが、その開國に絡んでは頗る念の入った話が傳つてゐる。『만주의 전설과 민요』, p.3.

105) 朝鮮に傳つてゐる朱蒙傳説は、右のやうな事柄の上に更に後世の史實が附加されてゐるさうであるが、要するに高句麗の始祖が扶餘から分派したものであることを裏書きすると見られる。即ちこれを史實的に言ふなら、平原地帯である松花江流域から、東方の長白山鴨綠江の上流、日本海に臨んだ地方に扶餘族の一派が移住して來て其の山險を利用して母國の壓迫を免れた、となるであらう。前の扶餘國の開國傳説に於ては、東明の母が鷄子のやうな氣によつて孕んだとされてゐるのが、朱蒙の場合には卵生となつてゐるのは脫化と見られ、そこに傳説進化の形迹をうかがふ事が出来る。先の東明もこの朱蒙も、等しく追手から追はれ河のほとりに逃げて來て遂に魚や鼈の御蔭で救はれたとなつてゐるが、滿洲に於ける傳説中には、此の種の趣向-即ち物語の主人公が魚だの鼈だのの背に渡されて危急の場合を救はれるといふ仕組みになつてゐる傳説が、此の兩者以外の場合にも屢々見受けられる。『만주의 전설과 민요』, pp.6~7.

106) 여기서 사용하는 ‘화소’라는 용어는 ‘모티프(motif)’의 번역어이다. ‘모티프’는 스티스 톰슨(Stith Thompson)이 제안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특이하고 인

시킨 달걀 형태의 기운과 주몽의 난생은 유사하며, 화소의 유사성을 통해 전설의 형식적 변화와 진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한편 후주의 말미에서는 만주 전설 가운데 주인공이 물고기, 자라, 게 등의 등을 밟고 강을 건너 위기를 피한다는 화소가 널리 분포한다는 서술이 이어진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 수록된 전설 가운데 유사한 화소를 발견할 수 있는 전설은 두 편이다. 청 태조에 관한 전설인 “살이호 전투의 기적적인 승리”와, 당 태종에 관한 전설인 “한여름의 얼어붙음”이다. 전자에서는 청 태조가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리자, 자라와 게가 나타나 물이 불어난 강을 메웠고, 태조는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적침을 막을 수 있었다.¹⁰⁷⁾ 후자에서는 당 태종이 강을 앞에 두고 무리한 진군을 명하자, 자라와 게가 나타나 다리를 만들어 주었고, 태종과 군사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¹⁰⁸⁾ 두 전설의 후주에서도 이 화소가 널리 분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예의 자라나 게가 강을 메워서 태조의 군을 건넜다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유형적인 전설이다. 하지만 토착민 사이에서는 지금도, 자라나 게 등딱지의 흠 자국은 그때 인마의 발자국이 남은 것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¹⁰⁹⁾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부분적으로 다른 전설의 취향과 자못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게나 자라가 떠올라서 그 등 위를 건네주었다고 하는 정황은 말할 것도 없고, 계절이 한여름인데도 종자를 시켜 강물이 얼어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여 “아니”라고 보고한 자는 베어버렸다고 하는 정황, 그리고 말발굽의 흔적이 게의 등에 찍혀 있다고 하는 정황은, 만주에 존재하는 전설의 내용으로는 자못 유형적인 것으로, 이 경우 이외에도 여러 예를 찾아 볼 수 있다.¹¹⁰⁾

상적인 내용을 의미한다. ‘모티프’는 특이하고 인상적이기 때문에 쉽게 과과되지 않고, 기억하기 용이해 전승의 차원에서 생명력을 발휘한다. 톰슨은 ‘모티프’를 설화의 등장인물,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항, 하나의 단순한 사건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모티프’의 번역어로 ‘화소’를 선택한 것은 『구비문학개설』을 따른 것이다. 스티스 톰슨 지음, 윤승준·최광식 옮김, 『설화학원론』, 계명문화사, 1992, 508면; 장덕순 외, 앞의 책, 2006, 85면.

107) 『만주의 전설과 민요』, pp.21~22.

108) 『만주의 전설과 민요』, pp.27~28.

109) これでは例の鼈や蟹が河を埋めて太祖の軍を渡したといふあたりが、全く類型的の傳説になつてゐる。しかし土民の間では今でも、鼈や蟹の甲羅に疵痕があるのはその時の人馬の足跡だと噂してあるさうである。(下略) 『만주의 전설과 민요』, p.21.

110) これに見る内容は、部分的に他の場合の傳説の趣向と頗る相通じるところがある。蟹や鼈が浮び出てその背の上を渡して呉れたといふ事柄は言ふに及ばず、盛夏

전자는 청 태조에 관한 전설의 후주, 후자는 당 태종에 관한 전설의 후주이다. 여기서는 물고기, 자라, 게가 떠올라 강을 건네주는 화소를 토대로, 만주 전설의 유형을 설정한다. 고구려 개국전설 역시 이 유형에 속한다.¹¹¹⁾

장백산이나 압록강의 지명을 언급하는 것이나, 다른 지역전설과 결부해 유형을 설정하는 것은, 모두 고구려 개국전설을 만주에 얹힌 전설로 재편하기 위한 작업이다. 한편 같은 화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유형 범주 설정은 부여 개국전설도 포괄한다. 도입부와 후주에서 부여와 고구려의 동일 계통을 강조한다는 사실도 특기할만하다. 부여·고구려 개국전설은 화소의 유사성을 근거로 계통이 설정되고, 다시 만주에 얹힌 전설로 재규정된다.

한편 언어적 장치 이외에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만주전설집의 결텍스트로 도상(圖像)을 거론할 수 있다. 도상이란 만주전설집의 전설 본문에 부가된 삽화를 가리킨다. 삽화란 본문을 보충하고, 본문 내용의 이해를 보조하기 위해 삽입된 그림이다. 따라서 삽화는 기본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따르지만, 본문을 충실히 반영해 이미지로 재현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다. 오히려 본문을 이미지로 변형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삽화가 생산한 새로운 의미는 다시 본문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국전설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 본문과 병치를 이루는 삽화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¹¹²⁾

の候なのに家來をやつて河水が凍結してゐるかどうかを見させ「否」と復命した者はこれを斬り捨てたといふやうな事柄、それから、馬蹄の痕がの背に印されてゐるといふやうな事柄は、滿洲で行はれる傳説の内容としては頗る類型的なものであつて、此の場合以外にも屢々その例が見受けられる。『만주의 전설과 민요』, p.28.

111) 전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다. 다만 유사한 줄거리가 나타나는 전설이 각 지역의 지형지물과 결부되어, 결과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전설을 여러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이주적 전설(migratory legend) 혹은 광포전설(廣布傳説)이라고 부른다. 화소의 공통성을 기초로 전설 유형을 설정한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작업은, 하나의 광포전설 유형을 설정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장덕순 외, 앞의 책, 2006, 70면; 강동학 외, 앞의 책, 2002, 131면.

112) 본문을 충실히 재현하기만 하는 삽화는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서사와 도상은 서로 다른 매체로, 그 특성이 완전히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사가 가지는 시간성을 도상은 가지지 못하고, 도상이 가지는 공간성을 서사는 가지지 못한다. 즉 도상은 서사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상은 서사와 특정한 자질을 공유하지만, 공유하지 않는 자질 역시 생산한다. 공유하지 않는 자질을 생산하면서, 도상은 서사의 의미를 건인한다. 요컨대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서사와 도상은 상호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송효섭은 신화와 자질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도상을 “신화도상”이라 지칭하고, 신화와 신화도상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송효섭, 『신화의 질서: 도상기호학적 탐구』, 문학과 지성사, 2012, 54~64면.

주지하다시피 만주전설집 가운데 삽화가 가장 풍부한 것은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이다. 이 문헌의 삽화는 우선 양적으로 풍부하다. 더불어 다른 만주전설집의 삽화가 전설의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반면, 이 문헌의 삽화는 전설의 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삽화는 개국전설 재편의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부여와 고구려의 전설에 부가된 삽화 가운데 특기할만한 것을 제시한다.



[표 12]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삽화

첫 번째 삽화는 부여 전설 「금와왕자 이야기」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원행(遠行)하던 도중 왕이 탄 말이 어떤 바위 앞에서 멈춘 후, 눈물을 흘리며 움직이지 않았다. 왕이 이상히 여기고 종자를 시켜 바위를 들어보니, 아래에 금와가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삽화는 고구려 전설 「물고기 배다리」의 내용을 묘사한 것이다. 주몽이 어릴 때부터 활쏘기에 능했다는 것을 묘사했다.

삽화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등장인물의 복식(服飾)이다. 삽화의 등장인물은 실상 친숙한 존재이다. 첫 번째 삽화의 등장인물은 금와 이전 부여의 왕인 해부루(解夫婁)이다. 두 번째 삽화의 등장인물은 물론 주몽이다. 다만 해부루와 주몽 자체의 친숙함과 달리, 삽화 속 인물의 차림새는 생소하다. 우선 해부루는 관(冠)과 함께 무늬가 새겨진 옷을 착용하고 있다. 이색적인 형태의 복식인데, 이는 청의 만주족 황제가 입었던 조복(朝服)의 형태와 유사하다.¹¹⁵⁾ 한편 주

113)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 p.3.

114)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 p.13.

몽도 깃털 달린 모자와 무늬가 새겨진 옷을 착용하고 있다. 역시 이색적인 형태의 복식인데, 청대 관료의 관복(官服)과 형태가 유사하다.¹¹⁶⁾

여기서 해부루와 주몽의 실제 복식에 관해 고증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고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삽화가 등장인물의 복식을 청대 만주족의 것으로 묘사한 이유이다. 이는 다른 곁텍스트 장치와 같이 개국전설을 ‘만주’에 얹힌 전설로 재편하기 위해서이다. 해부루와 주몽이 만주족이라면, 부여와 고구려도 만주족의 나라가 되고, 따라서 두 나라의 개국전설도 만주의 전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만주전설집은 사진, 서문, 범례, 논평과 주석, 삽화 등의 곁텍스트를 서사적 장치로 활용해, 부여·고구려 개국전설을 만주에 얹힌 전설로 재편하는 것이다.

115) 패멀라 카일 크로슬리 지음, 양희웅 옮김, 『만주족의 역사: 변방의 민족에서 청 제국의 건설자가 되다』, 돌베개, 2013, 163면.

116) 위의 책, 249면,

3.2. 개국전설 재편의 의미

3.2.1. 전설 범주 활용의 목적

만주전설집은 결텍스트를 활용해, 지역성이 희박한 개국전설을 만주에 얹힌 전설로 재편한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설은 구체적인 지역에 고착된다는 특성을 가진 설화의 하위 갈래이다.¹¹⁷⁾ 이미 전설의 범주에 속한 개국전설이 지역성이 희박하다면 모순이다. 특정한 지역에 고착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그 설화를 전설로 분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부여·고구려 개국전설은 신화로 분류된다. 설화 분류에서 전설의 기준보다는 신화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건국신화”이기 때문이다.¹¹⁸⁾ 따라서 개국전설의 문제와 관련해, 우선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만주전설집이 편찬된 시기인 1930년대 후반의 설화 분류와 전설 개념이 오늘날과 다른 경우와, 혹은 다르지 않지만 전설로 분류한 경우이다. 전자라면 자연스러운 분류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후자라면 부자연스러운 분류를 실행한 이유를 살펴야 할 것이다.

결국 주목해야 할 것은 1930년대 후반의 전설 개념이다. 우선 전설 개념의 연원부터 살펴 나가면서, 1930년대로 접근하고자 한다. 한자어 ‘전설(傳説)’ 자체는 학문적인 견지에서 쓰이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¹¹⁹⁾ 다만 민속학자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에 따르면, 전설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례는 타카기 토시오의 1913년 저작인 『일본전설집』이다.¹²⁰⁾ 주지하다시피 이 문헌에서 타카

117) 장덕순 외, 앞의 책, 2006, 70면; 강등학 외, 앞의 책, 2002, 114면.

118) 설화 분류에 관해서는 다음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장덕순 외, 위의 책, 39~43면.

119) 최원오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등장하는 한자어 “전설(傳説)”의 용례를 조사한 바 있다. 여기서 ‘전설’은 “전한 말”이나 “말을 전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한편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는 “언전(諺傳)”이 쓰였다. 최원오, 「일제강점기 조선전설 자료집의 간행과 전설 범주의 설정」, 『구비문학연구』 54,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102~103면.

120) “전설이 하나의 일본어로 통용하게 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현재 이 말을 써서 부르고 있는 구전(口傳)은 물론 언제인지도 모를 먼 옛날부터 있었고, 한편으로 또 문자를 아는 사람들은 전설이라고 하는 낱말을 때때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전설’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사십 년 정도 이전 타카기 토시오 씨와 그 친구 등이 열심히 이 문제를 논의하던 때에, 처음 독일어로 자계(Sage), 프랑스어로 레장드(légende)라고 하는 낱말과 거의 가까운 의미로 이 ‘전설’이라는 문자를 써서, 그것이 또한 곧 전국적인 말로도 된 것이다.(傳説が一つの日本語として通用するやうになつたの

기는 체계를 세워 전설을 분류한다. 설정된 분류 항목은 23개이다.¹²¹⁾ 분류의 체계성을 고려할 때, 23개 항목을 종합한다면 당시 전설 개념의 외연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분류 체계가 복잡하며, 오늘날의 관점에서 전설로 분류되기 어려운 대상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헌만을 근거로 전설 개념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이때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에 수록된 타카기의 글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문헌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산하 조선교육회(朝鮮教育會)에서 발간했던 교육잡지로, 1925년[大正 14]부터 1942년[昭和 17]까지 간행되었다. 타카기의 글이 수록된 1927년 1월호는 특집 “조선전설호(朝鮮傳說號)”인데, 조선 전설에 관한 기사만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타카기는 보다 명확한 언어로 전설 개념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구비 또는 문서로 전해지는 과거의 사실, 또는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사건의 전승을 말한다. 다만 오늘날 토속학(土俗學)이나 민족학(民族學)에서 말하는 협의의 전설은, 신앙을 기초로 발생한 이야기의 체재(體裁)를 갖춘 전승을 가리킨다. 이 의미로 전설은 역사적 전승과 다르고, 다른 한 면에서 신화와 접촉

は、ほんの近頃からのことである。現在この言葉を以て呼んで居る言ひ傳へは、無論いつとも知れない大昔からあり、一方には又文字を識つた人たちは、傳説といふ語を時々使つて居たのだが、それが今日我々のいふ「傳説」ばかりを、言ひ表はすものともきめては居なかつた。四十年ほど以前、高木敏雄氏と其友人などが、頻りにこの問題を論じた際に、始めて獨逸語でザアゲ、佛蘭西語でレジャンドといふ語とほゞ近い意味に、この「傳説」の文字を用ゐ、それが又忽ちに全國の口言葉にもなつたのである。) 柳田國男, 『傳説』, 東京: 岩波書店, 1940, p.1(柳田國男, 「傳説」, 『定本 柳田國男集』 5, 東京: 筑摩書房, 1968, p.5).

121) 타카기가 설정한 분류 항목을 아래 나열한다. ① 설명신화적 전설(説明神話的傳説第一) / ② 거인전설과 두 산의 키 재기 전설(巨人傳説及兩岳背競傳説第二) / ③ 츠쿠모 전설(九十九傳説第三) / ④ 수목에 관한 전설(樹木傳説第四) / ⑤ 돌에 관한 전설(石傳説第五) / ⑥ 성터전설과 장자못전설(地跡傳説及長者傳説第六) / ⑦ 금계저주 전설(金鷄咒呪傳説第七) / ⑧ 그릇 빌려주는 동굴 전설(椀貸穴傳説第八) / ⑨ 빠져나가는 구멍 전설(拔穴傳説第九) / ⑩ 침중 전설(沈鐘傳説第十) / ⑪ 수계신화적 전설(水界神話的傳説第十一) / ⑫ 이누가미 전설과 늑대인간 전설(犬神傳説及人狼傳説第十二) / ⑬ 영웅전설(英雄傳説第十三) / ⑭ 아내 빼앗기 전설(妻爭傳説第十四) / ⑮ 후나바시 전설(船橋傳説第十五) / ⑯ 신의 혼인에 관한 전설(神婚傳説第十六) / ⑰ 의로운 개의 무덤 일명 사루가미 퇴치 전설(義犬塚一名猿神退治傳説第十七) / ⑱ 연기전설(緣起傳説第十八) / ⑲ 민간신앙편(民間信仰篇第十九) / ⑳ 인신공양에 관한 전설(人柱傳説第二十) / ㉑ 민간설화편(民間說話篇第二十一) / ㉒ 자연물에 관한 전설(天然傳説第二十二) / ㉓ 자연물에 준하는 것에 관한 전설(准天然傳説第二十三). 개별 항목의 이름은 다음 논저를 참고해 번역했다. 미야케 히토시 지음, 김용의 외 옮김, 『종교민속학』, 민속원, 2013, 224면.

한다. (중략) 이와 같이 신화와 전설은 서로 융통(融通)하는 점이 많아, 각각의 전승에 관해 엄밀히 구별하는 것은 때로 곤란한 점이 있지만 통상 국민신앙의 대상인 고급 신기(神祇)에 관한 전승을 신화라고 하고, 이에 반해 저급 신기 등에 관한 전승이 내용보다는 오히려 형식에 중점을 두어 관찰되는 것을 전설이라고 한다. 때문에 동일한 국민신앙 또는 민간신앙에 관한 전승이 어느 때는 내용에 중점을 두면 이를 국민신화 또는 민간신화라고 이름 붙이고, 어느 때는 이에 반해 오히려 형식에 중점을 두면 이를 국민전설 또는 민간전설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다. 요컨대 전설은 신화와 역사의 중간에 위치하고, 신기를 중심인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신화와 접촉하고, 형식에 중심을 두는 한 편의 이야기로 독립하는 점에서는 역사적인 이야기와 접촉한다. 더욱이 신화와 전설의 중요한 차이점은, 신화가 어느 정도까지 시대와 국토를 떠나 초연함을 얻는 반면, 전설은 어디까지나 어떤 민족의 국토와 역사적 시대에 속박된다는 것에 있다.¹²²⁾

전설은 사실로 믿어지는 전승이며, “신앙을 기초로 발생한 이야기의 체재를 갖춘 전승”이다. 이야기라는 점에서 전설은 신화와 성격을 공유하며, 역사 전승과는 다르다. 다만 전설과 신화가 같지는 않다. 등장하는 신의 격(格)도 다르지만, 전설은 형식적인 측면에 얽매인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차이점이다. 형식이란 구체적인 시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설은 신화와 역사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어서 타카기는 전설의 갈래를 분류한다.

전설에는 여러 가지의 구별이 있어, 신화적 전설이란 국민신앙의 대상인 국민신화의 신기(神祇)를 중심인물로 하는 전승으로, 전승하는 민족의 국토와 역사적 시

122) 一般に口碑又は文書によりて傳へられたる過去の事實、若くば事實と信ぜられたる事件の傳承をいふ。但し今日の土俗學或は民族學にていふ狹義に於ての傳説は、信仰を基礎として發生したる物語の體裁を具へたる傳承を指す。此の意義に於て傳説は史的傳承と異なり、他の一面に於て神話と接觸す。(中略) かくのごとく神話と傳説とは互に相融通する多きを以て、箇々の傳承に就いて嚴密に區別を立つること往往困難なるものありと雖も通常國民信仰の對象たる高級神祇に關する傳承を神話とし、これに反して低級神祇其他に關する傳承にして、其内容よりは寧ろ形式に重きを置きて觀察せらるゝものを傳説とす。故に等しく國民信仰若くは民間信仰に關する傳承にして、或時は其内容に重きを置きてこれを國民神話若くは民間神話と名け、或時はこれに反して寧ろ其形式に重きを置きてこれを國民傳説若くは民間傳説とすることあり。要するに、傳説は神話と歴史との中間に位し、そが神祇を中心人物とする點に於ては神話と接觸するも、形式に重きを置きて一篇の物語として立つる點に於ては、史的物語と接觸す。なほ神話と傳説との重要な相異の點は、神話が或程度まで時代と國土とを離れて超然たるを得るに反し、傳説は飽まで或民族の國土と史的時代に束縛せらるゝに在り。高木敏雄, 「傳説の意義 (一)」, 『文教の朝鮮: 朝鮮傳説號』 壹月號, 朝鮮教育會, 1927, p.51.

대에 속박된 것을 말한다. 신화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볼 때는 신화로 논하지 못할 것도 없지만, 국토와 시대의 속박을 받으므로 전설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역사적 전설이란, 민족 역사상의 인물 또는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전승으로, 초자연적인 특성[分子]를 가미하여 신앙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역사적 전승과는 다르다. 다수는 영웅의 위업에 관한 이야기로, 특히 이를 영웅전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중략) 신화적 전설과 역사적 전설은 대체로 어떤 민족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되어, 그 전승은 그 민족 전체의 공유 재산인데, 바꾸어 말하면 신화적 전설과 역사적 전설의 중심인물은 민족 전체가 신앙하는 종교적인 신기(神祇) 또는 초자연적인 영웅이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전설을 일괄하여 국민전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국민전설과 반대의 의미로, 민간전설이라는 이름이 있다.¹²³⁾

전설은 우선 국민전설과 민간전설로 나뉜다. 전자는 민족 전체가 전승 단위이고, 후자는 특정 지역이나 민간만이 전승 단위이다. 국민전설은 다시 신화적 전설과 역사적 전설로 나뉜다. 전자는 신화에 등장하는 신격에 관한 전설을, 후자는 역사 인물에 관한 전설을 가리킨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개국전설은 역사적 전설에 해당한다.

특기할만한 점은 신화, 역사 개념을 동원해 전설 개념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타카기의 서술에서 드러나는 바 전설, 신화, 역사 사이에는 중첩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설 개념과 적용 범주를 규정하면서 신화, 역사 개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즉 전설은 당시 신화, 역사 개념과 길항(拮抗) 관계를 이루며 개념 범주를 형성했던 것이다.¹²⁴⁾

123) 傳説には種々の區別あり、神話的傳説とは、國民信仰の對象たる國民神話の神祇を中心人物とする傳承にして、これを傳承する民族の國土と史的時代とに束縛せらるゝものをいふ。神話に關する物語たる點より見るときは、神話たるに論なしと雖も、國土と時代との束縛を有するを以て、傳説の範圍を脱する能はざるなり。史的傳説とは、民族の歴史上の人物若くは事實を中心とするにして、超自然的分子を加味し、信仰を基礎とする點に於て普通の史的傳承と異なるものなり。多くは英雄の偉業に關する物語にして、特に之を英雄傳説といふことあり。(中略) 神話的傳説と史的傳説とは大抵或民族全體を通じて物語られ、其傳は其民族全體の共有財産たり、換言すれば神話的傳説と史的傳説との中心人物は、民族全體の信仰する宗教的神祇若くは超自然的英雄なるの故を以て、此兩種の傳説を一括して特に國民傳説といふことあり。國民傳説と反對の意義に於て、民間傳説といふ名目あり。Ibid., p.51; 高木敏雄, 「傳説の意義 (二)」, 『文教の朝鮮: 朝鮮傳説號』 壹月號, 朝鮮教育會, 1927, p.59.

124) 당시 전설은 ‘동화(童話)’와도 길항 관계에 있었다. 『일본전설집』의 출간과 같은 시기인 1913년,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주도한 전설과 동화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조사의 결과 보고서가 『전설동화조사사항(傳説童話調査事項)』과 『조선전설급동화(朝鮮傳説及童話)』이다. 보고서의 제목을 고려할

검토한 바에 따르면, 당시의 전설 개념 자체는 오늘날의 규정과 큰 차이가 없다. 범주의 적용 문제나 개념 간 길항 관계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하나의 설화가 분류 범주를 넘나들 수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¹²⁵⁾ 다만 논법의 차이는 확인할 수 있다. 개념 규정 단계에서 이미 신화, 전설, 민담을 명확히 구별하는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는 다른 개념을 활용해 중첩되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논의를 전개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개념이 형성되고 있었고, 이후 논의의 예각화를 거쳐 오늘날로 이어졌기 때문이라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만주전설집이 편찬된 시기 역시, 이와 같은 전설 개념의 자장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다만 1930년대에 전설 개념이 활용될 때, 시대적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당시 전설 개념은 주목 받아 급격히 부상(浮上)한다. 이는 정치적인 환경과 관련된다. 1920년대 후반 발생한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자, 일본 문부성은 향토(郷土) 의식을 매개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향토 교육을 통해 애국심을 함양해, 사회의 동요를 무마하고자 했던 것이다.¹²⁶⁾

향토는 기본적으로 고향의 땅이나 지역적 특색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때 ‘향토’는 농촌으로, 근대 문명이 훼손한 민족 공동체의 원형과 전통을 보존한 순수한 공간이다.¹²⁷⁾ 향토 담론의 호명 아래 구

때, 전설과 동화가 우선 분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에 관한 지침에서도 이야기를 전설과 동화로 나누어 수록할 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면, 동일한 이야기가 지역에 따라 분류를 달리하는 등, 체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개념적 분별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실제 적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전설과 동화의 길항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동화는 아동문학이 아니라, 오늘날의 민담이나 설화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동화가 아동문학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20년대 이후이다. 전설과 동화의 길항 관계는 19세기 그림(Grimm) 형제의 『독일 전설(Deutsche Sagen)』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강재철 편, 『조선전설동화: 조선총독부가 191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화 자료 조사 보고서』 상·하,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2; 그림 형제 편, 임한순 외 옮김, 『독일 전설』 I,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v~vii면.

125) 장덕순 외, 위의 책, 39면; 강등학 외, 위의 책, 53면.

126) 김광식, 앞의 논문, 2018, 240면.

127) 독일 나치(Nazi) 정권도 유사한 작업을 수행했다. 나치는 “피와 땅(Blut und Boden)”의 표어를 내세워 농촌과 농민을 이상화했다. 여기서 “피”는 민족의 계보를, “땅”은 민족의 터전을 가리킨다. “피와 땅”은 독일 농민 문화와 향토의 우월성을 강조한 선전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했다. 이는 민족 공동체의 문화적 형상화를 위해 “정치의 미학화”를 추진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나치의 정책은 19세기 낭만주의 독일 민속학의 인식에 기초한다. 김면, 『독일 민속학: 향토연구에서 유럽인류학으로』, 민속원, 2012, 75~80면; 데틀레프 포이케르트 지음, 김학이 옮김, 『나치 시대의 일상사: 순응, 저항, 인종주의』, 개마고원, 2003, 281~300면.

체적 지역성은 사상되고, 국토의 이상화된 균질성만 남는 것이다.¹²⁸⁾ 따라서 애향심은 애국심과 직결된다.¹²⁹⁾ 이와 같은 구도 아래 향토는 근대 문명이 초래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재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다.¹³⁰⁾

향토 담론과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1930년대에는 조선교육회 산하 지방교육회의 주도로 향토지[鄉土地誌]와 향토독본(鄉土讀本)이 다수 발간되었다.¹³¹⁾ 여기도 지역 설화가 실렸는데, 특히 구비전승 가운데 전설이 주목을 받아 전설집이 다수 간행된 바 있다.¹³²⁾ 구비전승 가운데 전설이 주목 받은 이유는 그 성격에서 기원한다. 지역에 관한 논의에 활용할 때, 특정한 시공간에 고착된 설화 유형인 전설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 향토 담론과 전설 개념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기타 타키지로의 논설에서 그 양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 점에 의하면 농어촌, 아니 금주(今州)와 같은 성곽 안에 사는 만주인[滿人]이라도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들의 전설이 땅과의 관련이 깊고, 땅의 냄새가 짙은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설령 비판적으로라도 어쨌든 그들의 전설에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심정에 다가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마음에도 다가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¹³³⁾

128) 한지은, 「식민지 향토 개념의 중층성」, 『한국학연구』 34,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232~233면.

129) 위의 논문, 232면.

130) 김면, 앞의 책, 75면.

131) 김광식, 앞의 논문, 2018, 240~243면.

132) 이 시기 편찬된 전설집과 향토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의 문헌을 거론할 수 있다. 難波專太郎, 『朝鮮風土記』, 京城: 大阪屋號書店, 1928; 近藤時司, *op. cit.*, 1929; 社會教育會 編, 『日本郷土物語』 上·下, 東京: 大日本敎化圖書株式會社, 1934; 朝鮮總督府鐵道局 編, 『朝鮮旅行案内記』, 京城: 朝鮮總督府鐵道局, 1934; 石橋謙吉, 『郷土讀本』 上·下, 釜山: 釜山第二公立尋常小學校, 1934 등. 한편 평양이나 경주와 같은 고도(古都)를 일본의 역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작업 역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작업에도 전설이 동원되었다. 우선 평양의 사례로는 다음의 문헌을 거론할 수 있다. 八田蒼明, 『樂浪と傳説の平壤』, 平壤: 平壤研究會, 1934; 八田蒼明, 『傳説の平壤』, 平壤: 平壤名勝舊蹟保存會, 1937 등. 경주의 사례로는 다음의 문헌을 거론할 수 있다. 大坂六村, 『趣味の慶州』, 慶州: 慶州古蹟保存會, 1931; 大坂六村, 『慶州の傳説』, 京都: 桑名文星堂, 1942 등. 위의 논문, 242면.

133) その點になると、農漁村、いや今州のやうな城廓の中に住む滿人達でも自然と共に生活してゐる。彼等の傳説が土地との關聯が深くて、土地の匂が高いのは當然である。従つて、たとひ批判的にでもとにかく彼等の傳説にふれるといふことは、彼等自身の心情に觸れるばかりでなく、この土地の心にもふれる部面があると思はれるのである。喜田瀧治郎, 「滿洲と傳説 (二)」, 『滿洲日日新聞』 第 11997號(康

키타가 1939년[昭和 14] 8월 3일 『만주일일신문』에 기고한 논설이다. 땅과 거주민의 관계를 기초로, 그 성정(聖情)을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향토 담론의 논법이다. 여기서 전설은 땅과 거주민의 성정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 경로로 간주된다. 향토 담론과 전설 개념의 결합은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만주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만주전설집이 만주의 “향토전설”을 거론하는 것이 그 방증이다.

따라서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개국전설 역시 전설 개념과 향토 담론의 자장 아래 있다. 개국전설이 전자와 관계 맺는 방식은 명확하다. 전설은 특정 지역에 고착되는 성격을 가지는 만큼, 개국전설에도 이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만주전설집의 전설 개념은 개국전설을 만주에 얹힌 전설로 재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검토한 사진, 서문, 논평과 주석, 도상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결텍스트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개국전설이 후자와 관계 맺는 방식은 다소 모호하다. 오히려 인물전설이나 지역전설이 경우는 명확하다. 향토 담론은 지역을 겨냥하고, 두 유형은 구체적인 지역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반면 개국전설은 구체적인 지역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향토 담론은 개국전설을 매개로 지역을 겨냥할 수 없다. 이는 개국전설과 향토 담론이 관계 맺는 방식에 관해, 인물전설이나 지역전설과는 다른 방식의 조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지하다시피 향토 담론은 지역을 재료로 삼지만, 결국 국가 전체의 이상화된 동질성을 주조하는 것이 목표이다. 만주전설집이 지역성을 드러내는 전설을 수록해도, 그 목적은 개별 지역을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지역의 종합인 만주 공간을 표상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개국전설인 이 층위에서 작동한다. 즉 개국전설은 만주에 얹힌 전설로, 동질화된 만주 공간 전체를 표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개국전설은 향토 담론의 구현자이자 매개자이다.¹³⁴⁾ 개국전설이 국민전설인 것도 이와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 혹은 본래 “건국신화”로 담당하던 동질성 주조의 기능을, 유사한 형태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다.¹³⁵⁾ 오히려 지역성이 드러나지 않는 개국전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능을 만주전설집을 통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德 6年 8月 4日), 大連: 滿洲日日新聞社, 1939, p.4.

134) 만주는 대련이나 봉천 등의 지역을 향토로 삼는 하나의 구성된 공간의 전체 상(像)이자, 제국 일본을 구성하는 하나의 지역이기 때문이다. 프래신깃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옮김,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008, 370면.

135) 건국신화는 국가의 이념적 동질성을 주조한다. 조현설, 앞의 책, 2003, 454면.

다.

3.2.2. 만주사 계보의 구축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개국전설은 만주 전체에 얹힌 이야기로 자리매김하며, 전설 개념과 결합한 향토 담론의 구현자이자 매개자로 기능한다. 다만 그 기능이 문헌 내용과 구성의 측면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보다 면밀한 논의가 요청된다. 여기서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범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범례에서 이 문헌에 수록된 전설의 총괄적 성격에 관해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주의 향토전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선 청조의 발상에 관한 전설이다. 생각건대 청조 시대에 정책적으로도 민중심리적으로도 청조의 선조에 관한 일이 여러 가지로 퍼져 신성화하고, 한편 청조 이전의 전설은 어찌면 쫓겨나서 뿌리를 잃고 청조의 선조에 관한 일화에 덧붙였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청조의 발상에 관한 전설을 제외하면, 당 태종의 고려 원정 때의 일에 덧붙은 전설이 두드러진다. 다시 말해 당의 태종과 같은 혁혁한 영웅이 대군을 이끌고 강국 고려를 정벌하기 위해 원정해 잠시 발걸음을 멈춘 요동 반도에서, 그때의 일이 여러 가지로 지역민의 화제에 올라 언제부터인가 전설화했을 것임은 자명한 일로, 유래 불명의 고성이나 고사(古寺)에, 혹은 산이나 강이나 온천 등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물에,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태종의 이름이나 부장(部長)의 이름이나 고려 장군의 이름이 얹혀서, 여기저기에 전설적인 모습을 남겼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위의 두 계통의 것을 제외한다면, 만주의 향토전설은 정말로 빈약한 모습만이 남는다.¹³⁶⁾

136) 滿洲の郷土傳説に於いて其の重要部を占めるものは、先づ清朝の發祥に關する傳説である。蓋し清朝時代に於いて、政策的にも亦民衆心理の上からも、清朝の祖先に關する事柄が種々に粉飾され神聖化され、一面又清朝以前の傳説が或は驅逐されお株を奪はれて、清朝の祖先に關する事柄へ府會されたものが有らう事は想像に難くない。清朝の發祥に關する傳説を除いては、唐の太宗の高麗遠征の際に於ける事柄を府會したものが著るしい。郎ち、唐の太宗の如き赫々の英主が、大軍を率ゐて強國高麗を伐つために遠征し來り暫く蹕を駐めた遼東半島に於いて、其の際の事柄が種々と土民の話題に上りいつかそれが傳説化されてゐる事は尤もな次第で、由緒不明の古城なり古寺なりに、或は山とか河とか温泉とかに、その外いろいろな事物に、何時とはなく太宗の名なり其の部長の名なり高麗方の大將の名なりが結びつけられて、あちこちに傳説的影面をとどめてゐるものと考へられる。右の兩系統のものを取り除けば、滿洲の郷土傳説はまことに貧しいものになつてしまふ。『만주

범례의 서술에 따르면, 만주 전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조의 발상에 관한 전설과 당 태종의 고구려 원정에 관한 전설이다. 전자는 만주가 청조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생겨난 전설이다. 후자는 태종이 원정 도중 만주를 지나갔기 때문에 생겨난 전설이다. 두 유형을 제외한다면, 만주 전설은 실상 빈약한 수준을 면치 못한다.

여기서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편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청조에 관한 전설과 당 태종에 관한 전설이 중요하다면, 편제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문헌 구성 측면에서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두 유형을 강조하고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우선 두 유형은 편제상 전면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 한편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 수록된 전설 23편 가운데 청조에 관한 전설은 7편, 당 태종에 관한 전설은 4편이다. 23편 중 11편은 물론 일정 비중을 차지하지만, 다른 전설 12편을 단순히 빈약하다고 간주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편제 측면에서도, 양적 측면에서도 두 유형은 만주전설집에서 특별히 강조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전면에 배치된 전설은 부여·고구려의 개국 전설이다. 이어서 거란 시조전설이 배치된다. 이후 청의 시조전설이 이어진다. 특히 앞의 세 전설은 범례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편수가 많지도 않다. 따라서 개국전설을 문헌 전면에 배치한 구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문화 공작”을 위한 공식적인 문헌임을 고려하면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구성 측면을 통해 문헌 편찬에 개입된 의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서 부여·고구려 개국전설을 만주에 얹힌 전설로 재편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논평과 주석의 활용이었다. 개중 화소 비교를 통해 개국전설을 만주의 다른 전설과 관련짓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오늘날의 관점에 따르면, 부여·고구려의 “건국신화”는 한국 영웅서사문학의 원형(原形)으로 여겨진다.¹³⁷⁾ 더불어 단군(檀君)과 주몽의 관련성을 설정한 『삼국유사』의 서술을 통해, 다른 건국신화와와의 관계 역시 논의된 바 있다.

의 전설과 민요』, pp.ii~iii.

137) 이 논의는 서사무가 「제석본풀이」와의 비교를 통해 전개된다. 문학사적인 관점에서 「제석본풀이」 유형의 서사무가는 건국신화를 위시한 고대 영웅서사문학의 구비전승적 측면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 건국신화와 「제석본풀이」를 범례로 이른바 “영웅의 일생”의 서사 구조가 추출된 바 있다. 이 서사 구조는 후대 영웅소설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장덕순 외, 앞의 책, 2006, 66면, 186~187면.

제 1대 동명왕. 갑신년에 즉위하여, 8년을 다스렸다. 성은 고(高)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일설에는 추몽(鄒蒙)이라고 한다. 단군(檀君)의 아들이다.¹³⁸⁾

『단군기(檀君記)』에서 “단군이 서하(西河) 하백(河伯)의 딸을 가까이 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부루(夫婁)라 하였다”고 일렀다. 지금 이 기록에 근거하면, 곧 해모수(解慕漱)가 하백의 딸과 사통한 후 주몽을 낳았다고 한다. 『단군기』에서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부루라고 하였다”고 일렀으니, 부루와 주몽은 이복형제[異母兄弟]이다.¹³⁹⁾

전자는 『삼국유사』 「왕력(王歷)」편의 일부이다. 여기서는 동명왕이 단군의 아들이라고 서술한다. 후자는 『삼국유사』 「기이」편 “고구려”조의 주몽 탄생 부분에 달린 주석이다. 역시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고 서술한다. 즉 건국 주 사이의 계보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계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모수와 단군이 동일시되고, 단군의 아들 부루와 주몽이 이복형제로 설정된다. 이는 일연의 해석이지만, 『삼국유사』의 찬술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민족사의 계보를 설정하고, 그 시원을 단군이라는 단일한 존재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⁴⁰⁾

주지하다시피 『삼국유사』는 기존 사서에서 빠뜨린 이야기를 수집해 편찬한 “유사(遺事)”이다. 특히 「기이」편은 59개 편목을 나열하는데, 개중 다수는 신이(神異)한 화소를 수반하는 이야기이다. 일연은 수집한 이야기의 출전을 상세히 밝히는데, “고구려”조의 『단군기』나, “고조선”조의 『고기』나 『위서』가 대표적이다.¹⁴¹⁾ 즉 「기이」편은 다양한 출전에서 수집한 이야기를 기초로 편찬한 구성적 텍스트이다.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이다.¹⁴²⁾ 따라서 「기이」편 개

138) 第一東明王. 甲申立, 理十一八. 姓高名朱蒙. 一作鄒蒙. 檀君之子. 『삼국유사』 권 제 1, 「왕력」.

139) 檀君記云, “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 有產子名曰夫婁.” 今據此記, 則解慕漱私河伯之女而後產朱蒙. 檀君記云, “產子名曰夫婁”, 夫婁與朱蒙異母兄弟也. 『삼국유사』 권 제 1, 제 1 「기이」, “고구려”.

140) 통일 의식에 근거한 계보 설정은 『삼국유사』와 동시대의 문헌인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단군의 아들로 여겨지는 부루가 통일 의식의 매개자로 기능한다.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33~35면.

141) 『삼국유사』 권 제 1, 제 1 「기이」, “고조선”.

142) 남동신은 『삼국유사』를 구성적 텍스트로 간주한다. 애초부터 단일한 책으로 성립한 문헌이 아니라, 기존 사서에서 빠뜨린 자료를 취합해 구성한 복합적 문헌이라는 것이다. 한편 남동신은 『삼국유사』의 성책(成冊) 의도는 불교도가 인식한 역사의 서술이라고 주장한다. 『삼국유사』가 구성적 텍스트로 성립하는 과정

별 항목의 구성과 관계는 『삼국유사』의 저자가 사후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저자는 개별 항목을 연대기 순서로 배열한다. 항목의 연속이 자체로 역사 계보를 구축하도록 설정한 것이다. 더불어 저자는 “서문[敍]”을 저술해 「기이」편 전체가 방향성을 가지는 역사 서술로 수렴하도록 구성한다. 여기서 서술의 방향성은 삼국의 제왕(帝王)이 드러내는 “신이”함에 관한 것이다.¹⁴³⁾ 나아가 「기이」편은 『삼국유사』 서두에 위치해, 이 문헌 전체가 “신이”의 일관된 관점을 가진 역사 서술로 수렴하도록 서문처럼 다른 편목을 통괄한다.¹⁴⁴⁾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서 개국전설이 가지는 위상은 『삼국유사』 「기이」편과 유비해서 설명할 수 있다.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전설은 역사적 견지에서 상호 무관하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상호 무관한 개국전설과 시조전설을 연대기 순서로 연속해 배열한다. 이는 문헌 구성의 측면에서 자체로 만주사 계보를 구축한다. 즉 부여-고구려-거란-청으로 이어지는 역사 계보가 구축되는 것이다. 앞서 타카기의 전설 분류에 따르면 개국전설은 역사적 전설에 속한다. 따라서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역사적 전설을 활용해 ‘전설적 역사’를 구축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¹⁴⁵⁾

에서 작용했을 의도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남동신, 「『삼국유사』의 성립사 연구: 기이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61, 한국사상사학회, 2019, 202면.

143) “그러한 즉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함에서 나왔다는 것이 어찌 괴이하다 하겠는가(然則三國之始祖皆發乎神異何足怪哉).” 『삼국유사』 권 제 1, 제 1 「기이」, “서문[敍]”.

144) 하정현은 “신이”를 『삼국유사』 전체를 관통하는 저자의 찬술 의식으로 간주하고, 「기이」편에 주목한다. 「기이」편은 일견 다른 편목과 어울리지 않아, 『삼국유사』의 전체적 성격을 규정하는데 혼란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실상 『삼국유사』 전체를 관통하는 찬술 의식인 “신이”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문헌 내용 전체를 집약하는 부분은 바로 「기이」편이다. 하정현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삼국유사』의 텍스트 비평을 수행하면서, 「기이」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하정현, 「『삼국유사』 텍스트에 반영된 ‘신이’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45) 여기서 ‘전설적 역사’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신화적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신화적 역사’란 사실적인 역사의 형태를 띠지만, 사실 허구적인 서사를 가리킨다. 즉 역사로 이해되고자 하지만, 허구적인 특성을 다분히 수반하는 서사를 의미한다. 이때 허구란 전적으로 거짓이거나 창작의 산물이라는 의미보다, 과거의 유산을 재료로 삼아 구성적 견지에서 “상상된” 산물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따라서 만주전설집이 역사적 전설을 활용해 구축한 만주사 계보 역시 ‘신화적 역사’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신화와 전설의 개념 구별이 중요하며, 연구 대상이 전설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전설적 역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심형준, 「‘신화적 역사’와 ‘역사적 신화’: 허구적 내러티브 생성의 일반적 조건과 신화 연구자의 과제」, 『종교문화연구』 26,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

한편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 수록된 개국전설이 향토 담론의 체현자임은 앞서 살핀 바 있다. 이는 개국전설로 구축된 ‘전설적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전설적 역사’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 서두에 위치해, 이 문헌이 일관된 관점을 가진 구성체로 성립하도록 서문처럼 다른 전설을 통괄한다. 이때 향토 담론의 자장이 다른 전설에 부여되고, 개별 전설이 가리키는 지역의 집합으로 만주 공간의 영역이 표상된다.¹⁴⁶⁾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성격이 상이한 개국전설과 다른 전설이 논리 측면에서 연결되고,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통일성을 가진 문헌으로 성립한다. 더불어 만주의 심상지리(心象地理, imagined geographies) 역시 구축된다.¹⁴⁷⁾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서 구축된 만주의 역사와 지리는, 결국 신생 만주국의 역사와 지리를 규정한다.¹⁴⁸⁾ 이 문헌은 만주국 건국을 정당화하고, 그 문화

소, 2016, 40면;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서지현 옮김, 『상상된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길, 2018, 24~28면.

146) 후나고에 료스케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편찬이, 여기에 수록된 전설의 지역적 배경을 만주국 국토 내로 편입하는 작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즉 만주국 국토의 영역은 수록된 개별 전설이 가리키는 지역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문화 공작”은 지리적 견지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다만 후나고에는 지리적 견지의 “문화 공작”이 이루어지는 문헌 구성 측면의 논리나 기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船越亮佑, *op. cit.*, 2017, p.122.

147) “심상지리”는 이질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환하는 지리적 구분의 방식이다. 이는 실증적 공간 분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작업에는 고착된 이미지나 도식과 같은 문화적 차원의 상상력이 개입된다. 따라서 심상지리에 의해 분할, 구축된 공간에는 조망하는 측의 관점이 내재되며, 이는 조망하는 측과 조망되는 측 사이의 정치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사이드는 이 논리를 활용해 “동양”의 심상지리를 구축하는 “서양”의 기제를 분석한 바 있다. 만주전설집이 표상하는 심상지리도 만주의 개별 지역을 조망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구성된 전체 만주 공간으로 일본에 의해 조망된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만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강조되는데, 이는 일본에 의한 만주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논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심상지리”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 지음,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개정 증보판), 교보문고, 2007,

148) 따라서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서 제시하는 바는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유산을 활용해 구축된 공식적인 층위의 담론과 실천을 통칭한다. 홉스봄에 따르면 “만들어진 전통”을 구축하는 작업은 사회의 급속한 변동과 함께 기존 전통의 융통성이 부족해졌을 때, 취사선택한 과거의 전통을 재료로 이루어진다. 이는 시기를 막론하고 존재한 현상이지만, 특히 19세기 이후 유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신화, 의례, 국경일, 영웅, 상징물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만들어진 전통”이 이때 집중적으로 구축된 것은 정치적 환경과 관련된다. 당시는 근대 국가가 형성되던 시기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이 요청되었다. “만들어진 전통”은 그 전략의 일환이며, 국가와 민족의 “공식 기억”을 형성하고 전승하는데 기여한다. 만주전설집과 개국전설의 활용은 신생 만주국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만들어진 전통”의 사례로 간

를 구축하기 위해 편찬된 것이기 때문이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서술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부여 개국전설에 부가된 도입부에 따르면, 부여는 농안을 중심으로 삼고 주변의 원시인을 계도했다. 농안은 장춘의 하위 행정구역인데, 주지하다시피 장춘은 만주국 당시 수도로 기능하며 신경이라고 불렸다. 여기서 부여와 만주국의 동일시가 이루어진다. 농안을 중심으로 삼은 부여가 문명을 건설해 원시인을 계도한 것처럼, 신경을 중심으로 삼은 만주국도 문명을 전해 만주인을 계도하는 국가로 여겨지는 것이다.

나아가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문헌을 통해 구축된 역사와 지리를 일본이 전유할 가능성도 제시한다. 이 문헌 범례의 서술에 따르면, 만주 향토전설의 추이는 지나 본토나 일본까지도 이어진다. 전자는 한족화 문제와 관련해 언급할 수 있지만, 후자는 갑작스럽다. 따라서 일본을 명시한 이유에 관해 질문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만주국은 일본이 점령지에 세운 국가로, 사실상 일본이 지배하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만주 전설의 추이를 일본으로 견인하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서술은, 일본의 만주 영유를 정당화하는 성격을 가진다.¹⁴⁹⁾ 이는 모든 만주전설집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일본과 만주의 관계를 강조하는 서문의 인식이 실제 전설을 활용한 서술로 구현된 바라고 간주할 수 있다.

주할 수 있다. 에릭 홉스봄 외 지음,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 149)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네 번째 이야기이자 청조의 시조전설인 “까치가 둔 붉은 나무 열매”의 후주에서도 이와 같은 전유의 단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청조의 시조전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물은 까치이다. 까치가 물어다 놓은 붉은 나무 열매를 선녀 퍼쿨런(佛固倫)이 먹고,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청 황실의 신화적인 조상인 아이신기오로[愛新覺羅] 부쿠리용손[布庫里雍順]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만주족은 까치를 성스러운 존재로 여겼다. “까치가 둔 붉은 나무 열매”의 후주에서는 성스러운 존재인 까치에 관한 만주족의 풍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편 만주국의 황제 아이신기오로 푸이[溥儀]에 얽힌 일화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푸이가 일본 순방을 위해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던 도중, 까치가 남쪽에서 날아들어 배 위를 맴돌아, 모두가 상서로운 징조로 여겼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전설을 통한 전유가, 청조와 만주국의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길조(吉鳥)인 까치가 만주국 황제의 일본행에서 갑작스레 나타났다는 서술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부여하기 위해, 만주의 향토전설을 활용한 것이다. 요컨대 일본에 의한 만주 향토전설의 전유가 일어났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구축하고 있는 향토사의 계보에 따르면, 만주는 부여와 고구려뿐만 아니라, 거란과 청을 비롯하여, 당 태종과 같은 지나 본토인 등이 오갔던, 복합적인 민족 구성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복합적인 민족 구성을 하나의 계보로 연결하는 역사적 인식은, 당대 만주국이 표방했던 건국이념인 “오족협화(五族協和)”와도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 pp.11~13.

4. 만주전설집 편찬과 개국전설 재편의 역사적 맥락

4장에서는 만주전설집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삼아, 만주전설집과 개국전설이 가지는 의의와 위상에 관한 논의로 나아가고자 한다. 만주전설집과 개국전설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구성이 가장 체계적인 『만주의 전설과 민요』를 주목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 이외의 만주전설집은 물론, 동시대의 다른 문헌도 폭넓게 고려하고자 한다. 논의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만주전설집이 개국전설을 통해 구축하는 만주사 계보, 즉 ‘전설적 역사’ 자체의 위상을 조망한다. 특정한 역사의 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찰할 것이다. 따라서 1절에서는 유사한 계보를 구축하는 동시대의 역사 관련 문헌과, ‘신화’ 관련 문헌과의 비교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설적 역사’의 계보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만주전설집이 구축한 계보의 영향력을 조망하고자 한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서 구축한 만주사 계보는, 그 영향력이 해당 문헌 내에서 그치지 않았다. 공식적인 성격을 가진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문화적 표준의 위치를 점한 채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다른 만주전설집 가운데 이 문헌의 영향을 받은 사례가 존재하며, 만주전설집이 판을 거듭하며 인쇄되고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만주전설집과 만주사 계보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2절에서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 이외의 만주전설집과 그 관계에 주목하면서, ‘전설적 역사’의 유포와 확산의 양상을 검토한다. 확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균열의 양상도 함께 고찰할 것이다.

4.1. 만주사 구축과 전설의 역사화

4.1.1. 전설과 역사의 길항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구축한 ‘전설적 역사’는, 차례로 만주를 점유했던 역대 국가의 계보이다. 이는 부여-고구려-거란-청의 명확하고 선적인 흐름을 제시하는데, 유사한 형태를 동시대의 역사 관련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만주사화(滿洲史話)』이다.¹⁵⁰⁾ 이 문헌은 타니야마 츠루에, 키타 타키지로와 교유했던 이시모리 노부오의 저작이다. 이시모리는 아동문학작

150) 石森延男, 『滿洲史話』, 東京: 修文館, 1939.

가이자 국어[日本語]교육자로 활동했다. 이 문헌도 교육적 성격을 띠는데, 일본 문부성의 인정을 받은 실제 사회과 교육용 도서이기도 하다.¹⁵¹⁾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4·5·6학년용 독자로 상정하기 때문에, 본문은 경어체로 서술되어 있고, 모든 한자에 후리가나가 달려 있다. 교육용 도서라는 성격과 경어체 서술을 고려할 때, 이 문헌은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과 공식성의 수준이 유사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만주사화』는 일본사의 전개를 기준으로, 문헌 서두에서 만주사 연표를 제시한다. 이는 만주를 지배했던 역대 국가의 계보이다. 연표에 따르면, 만주사는 한(漢)-고구려(高句麗)-당(唐)-발해(渤海)-요(遼)-금(金)-원(元)-명(明)-청(淸)-민국(民國)-만주국(滿洲國)의 순서로 이어진다.¹⁵²⁾ 이때 한, 당, 요, 명의 이름에는 괄호가 쳐져 있다. 지나 본토의 세력이 만주를 지배했던 시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문헌에서 제시하는 ‘순수한’ 만주사 계보는 고구려-발해-금-원-청-만주국의 순서로 이어진다. 『만주사화』는 ‘순수한’ 만주사 계보에 속하는 시기의 역사적 정황과 대표적 사건에 관해 이야기의 형식으로 서술한다.¹⁵³⁾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만주사 계보와 비교할 때, 『만주사화』의 계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발해와 원의 존재이다. 우선 후자는 만주와 몽골의 특수한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일본은 자국의 진출 목표였던 중국 동북부 인근을 “만몽(滿蒙)”이라 불렀다. 이는 만주와 몽골을 아울러 가리키는 이름이다.¹⁵⁴⁾ 당

151) 『만주사화』에 덧붙은 문부성인정허가증(文部省認定許可證) 사본의 비고에서는, “도서인정규정 제 1조: 사회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 책은 본 규정에 의해 인정함(圖書認定規程第一條: 社會教育ニ裨益アリト認ムル書ハ本規程ニヨリ認定ス)”이라는 서술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헌은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滿蒙開拓靑少年義勇軍)의 교육용 자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은 1938년부터 일본이 패전하는 1945년까지 만주 개척을 위해 모집되었던 청소년 단체이다. *Ibid.*; 植民地文化研究會 編, *op. cit.*, 2005, p.59; 야마무로 신이치 지음, 윤대석 옮김,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329면.

152) 石森延男, *Ibid.*, pp.2~3.

153) 요의 경우 애매한 측면이 있다. 요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전설적 역사’가 포괄하는 국가이며, 『만주사화』도 관련된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의 이름에 괄호를 친 것은 오기(誤記)로 보인다. 반면 민국은, 즉 중화민국은 이름에 괄호를 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중화민국은 만주 출신 국가인 청을 몰아낸, 지나 본토 출신 국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오기로 보인다. *Ibid.*, pp.2~3.

154) “만몽”이라는 명칭은 이념적 함의를 품고 있다. 1920년대 일본은 만몽을 중국 본토에서 분리하고, 이 지역에서 자국의 배타적인 권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국방, 경제 등의 이유로 만몽을 일본의 명운이 걸린 특수 지역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이시와라 칸지(石原莞爾)를 위시한 당시 관동군 세력이 1920년대 후반부터 내세운 주장이 이른바 “만몽영유론(滿蒙領有論)”이었다. 만몽영유론은 총력전 대비를 위한 경제력의 증진, 조선 통치의 안정

시 만주와 몽골은 분리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주를 다루면서 몽골을 포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실상 “만몽”이라는 이름은 『만몽전설집』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발해의 존재도 주목할 수 있다. 『만주사화』에는 「발해와 일본의 친교」라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발해와 일본의 교류를 다룬다. 이를 통해 『만주사화』의 계보가 발해를 포괄하는 이유를 규명할 수 있다. 즉 만주사 서술에서 발해에 부여된 존재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해국은 언제나 평화로운 교통로를 이용해, 문명국의 문화를 도입하고자 하여 당과 활발히 왕래했습니다만, 일본에도 빈번히 사절을 보내서 특별히 친밀한 교류를 구해 왔습니다.¹⁵⁵⁾

(전략) 서로 문화를 통해 특별히 친밀한 교류를 했다는 사실 등은, 듣기만 해도 만주인에 대해 깊이깊은 친숙함을 느끼지 않습니까?¹⁵⁶⁾

발해는 문명국의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 일본에 교류를 청했고,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수립했다. 덕분에 일본인은 만주인에게 친숙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발해는 만주와 일본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역사적 근거였다. 실상 『만주사화』는 물론, 당시 만주사 연구에서 발해는 주목받는 소재였다.¹⁵⁷⁾ 고

화, 대(對) 소련 전략 거점 확보, 가상 적국인 미국을 겨냥한 세계 전쟁의 준비 등의 필요성을 내세워 등장했다. 여기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일본이 영유하는 만몽에서는 일본, 조선, 중국, 만주, 몽골 등 여러 민족의 공존공영이 약속된다. 만몽영유론에 입각해 발생한 사건이 1931년 만주사변이고, 만주사변 이후 이 논의는 정책적 변모를 거쳐 만주국 건국에 반영된다. 한편 만몽영유론의 근거는 인종학인데, 만주인과 몽골인은 한족보다 일본[太和] 민족에 가깝기 때문에, 만몽은 중국 고유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성제국대학에서는 만몽의 샤머니즘 연구나 형질인류학 조사 등을 통해 만몽영유론을 뒷받침하고자 했는데, 이와 같은 학술적 “전진기지”의 역할은 1938년 이후 만주 건국대학(建國大學) 등지로 점차 이동했다. 야마무로 신이치 지음, 윤대석 옮김, 앞의 책, 2009, 40~79면; 사카노 토오루 지음, 박호원 옮김, 『제국일본과 인류학자(1884~1952)』, 민속원, 2013, 326~332면.

155) 渤海國は、常に平和な交通によつて、文明國の文化を取り入れようとして唐と盛んに往來しましたが、日本へも、頻りに使節を遣はして、特別親しい交りを求めてきました。石森延男, *op. cit.*, 1939, p.19.

156) (前略) お互に文學上から特別親しい交りをしたといふこと等は、聞くだけでも、滿洲人に對して、深い深い親しみを感じてゐませんか。 *Ibid.*, pp.21~22.

157) 대표적인 사례를 아래에 거론한다. 다음의 논저는 만주 전체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발해의 역사를 함께 다룬 것이다. 池内宏, 『滿鮮史研究: 中世 第1冊』, 東京: 岡書院, 1933; 三島一・鈴木俊, 『世界歴史大系 5: 東洋中世史 第二篇』, 東京:

대에 이루어진 만주와 일본과의 교류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¹⁵⁸⁾ 과거와 현재의 동일시를 통해, 역사 서술의 정치적 활용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역사 서술이 정치적 견지에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만주전설집과 개국전설의 존재에 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만주사화』에서는 만주사 계보를 구축하는 한편,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계보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발해의 존재를 매개로 일본과 만주의 관계를 강조한다. 따라서 만주사 계보의 구축과, 그 정치적 활용은 역사 서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다만 만주사정안내소가 만주전설집 편찬을 선택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전설과 역사는 개념 층위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이를 고려한다면,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존재는 전설을 통해서만 충족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만주전설집이 구축한 ‘전설적 역사’의 위상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문화 공작”의 차원에서 전설이 역사에 비해 우세한 측면을 고찰해야 한다.

그 단초는 전설의 성격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다. 앞서 타카기의 서술에서도 확인한 바, 전설은 진실성을 띤다. 전설의 전승 집단이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이다.¹⁵⁹⁾ 여기서 전설이 가지는 심성적 호소력이 발생한다. 즉 전설은 진실성에 근거한 심성적 호소력이라는 측면에서 역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를 능가한다. 이 성격 덕분에 전설은 향토 교육의 제재로 선택받기도 했다.¹⁶⁰⁾ 만주전설집의 공통된 편찬 목적인 일본인을 위한 만주 교양의 함양

平凡社, 1934; 稻葉岩吉·矢野仁一, 『世界歴史大系 11: 朝鮮滿洲史』, 東京: 平凡社, 1935; 本山桂川, 『物語滿洲歴史』, 大連: 滿鐵社員會, 1940. 다음은 토리야마 키이치(鳥山喜一)의 논저인데, 발해의 역사만을 다룬 것이다. 鳥山喜一, 『渤海史考』, 東京: 奉公會, 1915; 鳥山喜一, 『渤海國小史』, 新京: 滿日文化協會, 1939. 토리야마는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역임한 인물로, 발해사 연구에 주력한 역사학자이다. 전자의 간행 시기를 통해, 이른 시기부터 발해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다음의 논저는 만주사 속의 역대 건국자를 다루면서, 대조영을 함께 다루고 있다. 相原慧, 『滿洲の英雄と偉人』, 奉天: 大阪屋號書店, 1943.

158) 누마타 라이스케(沼田賴輔)의 『일만의 고대 국교(日滿の古代國交)』에서는 발해와 일본의 교류사를 서술하고 있다. 즉 고대 만주와 일본의 관계에서, 발해는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沼田賴輔, 『日滿の古代國交』, 東京: 明治書院, 1933.

159) 전설이 가지는 진실성은 이미 그림 형제가 『독일전설』에서 언급한 바 있다. “어린이들은 동화의 현실을 믿거니와, 그러나 민중 역시 그들의 전설에 대한 믿음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으며, 그들의 오성은 그 속을 세세히 헤집어 보려 하지 않는다. 전설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그들에게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니, 곧 자료들의 부인할 여지없이 가깝고 가시적인 현존이 그것에 결부된 기적에 대한 의심을 압도한다.” 그림 형제 편, 임한순 외 옮김, 앞의 책, 2014, vi~vii면.

역시 향토 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만주사정안내소가 역사서가 아니라 『만주의 전설과 민요』를 편찬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요컨대 역사가 아닌 전설로 만주사 계보를 구축했던 것은, 전설의 성격인 진실성을 활용해 계보를 유포하기 위해서이다.

4.1.2. 전설과 신화의 길항

‘전설적 역사’와 유사한 만주사 계보는 역사 서술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만주국의 기관이나 일본인이 수행한 작업은 아니다. 오히려 식민지 조선인의 작업에서 만주사 계보를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교헌(金敎獻)이 저술한 『신단실기(神檀實記)』와 『신단민사(神檀民史)』이다. 김교헌은 대종교(大倣敎)의 2대 도사교(都司敎)로, 1914년 단군에 관한 기존 문헌을 정리해 『신단실기』를 편찬했고, 같은 해 『신단실기』를 기초로 역사 교과서인 『신단민사』를 편찬했다.¹⁶¹⁾ 『신단실기』의 「족통원류」편에서는 단군을 원류로 파생된 여러 민족의 계보를 서술한다.

단군의 후예를 배달종족(倍達種族)이라고 한다. 다섯 분파로 나뉘니 첫 번째는 조선족(朝鮮族)이라 하고, 두 번째는 북부여족(北扶餘族)이라 하고, 세 번째는 예맥족(濊貊族)이라 하고, 네 번째는 옥저족(沃沮族)이라 하고, 다섯 번째는 숙신족(肅愼族)이라 한다.¹⁶²⁾

북부여족은 다섯 지파로 나뉘니 하나는 동부여족(東扶餘族)으로 이어지고, 하나는 고구려족(高句麗族)으로 이어지고, 하나는 백제족(百濟族)으로 이어지고, 하나는 규봉족(圭封族)과 더불어 합치고, 하나는 선비족(鮮卑族)이다. 동부여는 고구려족으로 들어간다. 고구려는 다시 둘로 나뉘어 하나는 신라와 더불어 합치고, 하나

160) “즉 독본(讀本)은 어디까지나 정감(情感)에 호소하기 위한 문학적 독본이어야 하며, 잡다한 제재를 무엇이든 뒤섞은 잡학교본(雜學敎本)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即ち讀本はあく迄も情感に訴ふる文學的讀本たるべく、雜駁なる題材を何もかも打ち混じった、雜學敎本であつてはならないのである。)” 감정에 호소하는 문학적 제재라는 점에서 전설은 향토 교육 제재로 선호되었다. 郷土教育聯盟, 『郷土教育學習指導案』, 東京: 刀江書院, 1937, p.74; 김광식, 앞의 논문, 2018, 241면.

161) 박성혜, 「근대 계몽기 단군신화 연구: 단군신앙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0~17면.

162) 檀君之裔를 曰倍達種族이라. 分爲五派하니 一은 曰朝鮮族이오 二는 曰北扶餘族이오 三은 曰濊貊族이오 四는 曰沃沮族이오 五는 曰肅愼族이라. 김교헌, 『신단실기』, 경성: 대종교본사, 1914, 71면.

는 발해족으로 이어지고, 발해는 여진족으로 이어지고, 여진은 금족으로 이어지고, 금은 후금으로 이어지니 곧 지금의 만주족이다. 백제는 신라와 더불어 합쳐 고려족으로 들어간다. 규봉은 부여족으로 들어간다. 선비는 거란족(契丹族)으로 이어지고, 거란은 발해와 더불어 합쳐 요족(遼族)으로 이어지고, 요는 여진족으로 들어간다.¹⁶³⁾

단군의 후예는 배달족이고, 배달족이 다섯으로 나뉘어 조선족, 북부여족, 예맥족, 옥저족, 숙신족을 이룬다. 이후 다섯 분파는 이합집산을 거치는데, 『신단실기』에서는 이 과정을 서술한다. 개중 북부여족은 우선 동부여족, 고구려족, 백제족, 규봉족, 선비족의 다섯 지파로 다시 나뉘고, 이는 이합집산 이후 여진족으로 통합되며, 여진족은 만주족으로 이어진다. 『신단민사』에서는 『신단실기』의 서술을 기초로, 문헌 서두에서 계보도를 그리고 있다.¹⁶⁴⁾

『신단실기』와 『신단민사』는 대종교의 경전이다. 여기서는 처음 지상에 강림(降臨)한 단군을, 천신(天神)이 인간이 되어 나타난 신인(神人)으로 간주한다.¹⁶⁵⁾ 따라서 두 문헌에서는 ‘신화적 역사’를 서술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신화적 존재인 단군을 내세우면서, 한반도 주변 여러 민족의 역사를 그 계보 아래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한반도 주변이란 특히 만주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도 한반도와 만주가 하나의 지역 단위로 여겨지는 것이다.¹⁶⁶⁾

163) 北扶餘族은 分五支하니 一은 傳東扶餘族하고 一은 傳高句麗族하고 一은 傳百濟族하고 一은 與圭封族으로 合하고 一은 爲鮮卑族이라. 東扶餘는 入于高句麗族이라. 高句麗는 又二分하야 一은 與新羅로 合하고 一은 傳渤海族하고 渤海는 傳女眞族하고 女眞은 傳金族하고 金은 傳後金族하니 卽今滿洲族이라. 百濟는 與新羅로 合하야 入于高麗族이라. 圭封은 入于扶餘族이라. 鮮卑는 傳契丹族하고 契丹은 與渤海로 合 하야 傳遼族하고 遼는 入于女眞族이라. 위의 책, 72~73면.

164) 김교헌, 『신단민사』, 대종교총본사, 1946, i~xi면.

165) “상원(上元) 갑자(甲子) 10월 3일에 환검(桓儉)이 신으로써 사람이 되시어(上元甲子十月三日에 桓儉이 以神化人하사)” 김교헌, 앞의 책, 1914, 3면; “천신께서 일부(一符)와 삼인(三印)을 가지고 풍백(風伯)과 우사(雨師)와 뇌공(雷公)을 거느리시며 사람이 되시어(天神께서 一符와 三印을 持하시고 風伯과 雨師와 雷公을 率하시며 人으로 化하사)” 김교헌, 앞의 책, 1946, 1~2면.

166) 단군을 원류로 삼아 만주의 여러 민족을 포괄하는 역사적 관점은 김교헌만의 것이 아니다. 당시 만주에서 활동한 여러 독립운동가가 유사한 관점을 공유한 바 있다. 예컨대 박은식(朴殷植)은 1911년경부터 “만한일국(滿韓一國)”과 “만한동족(滿韓同族)”의 구호를 내세워, 한반도와 만주에 존재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단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은식 역시 계보를 제시하는데, 이는 『신단실기』와 『신단민사』에서 제시하는 형태와 유사하다. 그 외에도 신채호(申采浩)나 이상룡(李祥龍) 등의 사례를 젓할 수 있는데, 개중 대다수가 대종교와 관련된다. 1920년대 들어 한반도와 만주를 하나의 지역 단위로 간주하는 논의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의 신문 지면을 통해 확산된다. 한편 같은 시기 신채호는

‘신화적 역사’ 서술이 의도하는 바는, 우선 단군의 실재성을 입증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다만 그 의미를 단순히 민족의식의 차원에 한정할 수는 없다. 『신단실기』와 『신단민사』는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 역사적 견지에서 직접적 관련이 없는 민족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문헌의 일차적 의도는 물론 민족의식의 고취이지만, 그 의미가 의도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즉 개별 민족담론의 수준을 넘어, 복수의 민족을 포괄하는 보편담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신단실기』와 『신단민사』의 ‘신화적 역사’는 우선 “단군 민족주의”를 구현하고자 하지만, 실상 “대단군주의”로 나아간다.¹⁶⁷⁾

대단군주의 지향의 한 극단은 최남선(崔南善)의 논저에서 발견할 수 있다.¹⁶⁸⁾ 최남선은 이른 시기부터 단군 관련 논의를 꾸준히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대단군주의의 본격적 표출은 1925년에 발표한 논설인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을 통해 처음 이루어졌다. 「불함문화론」의 작업이 더욱 구체적으로 구현된 산물이 바로 「만몽문화(滿蒙文化)」이다. 이 논설은 최남선이 만주 건국대학 교수로 부임한 후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만주국의 문화 건설에 복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¹⁶⁹⁾ 「만몽문화」에서 최남선은 고고학, 종교학, 형질인류학

『조선상고문화사(朝鮮上古文化史)』를 위시한 자신의 논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를 펼치기 시작한다. 이명중, 「1910~1920년대 ‘만주=단군강역’ 담론」,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239~255면.

167) “단군 민족주의”란 단군을 민족사의 연원으로 간주하고, 그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발견해, 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일련의 사상과 운동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대단군주의”란 민족적 정체성의 수준을 넘어, 단군을 세계주의 혹은 보편주의 수준에서 재발견하고자 하는 일련의 사상과 운동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박성혜는 두 개념을 연결하면서, 대중교 경전을 위시한 근대 단군 관련 문헌이 “단군 민족주의”를 넘어 “대단군주의”를 지향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광용, 「대단군 민족주의의 전개와 양면성」, 『역사비평』 19, 역사비평사, 1992, 225~226면; 정영훈, 「대중교와 ‘단군민족주의’」, 『단군학연구』 10, 단군학회, 2004, 281면; 박성혜, 앞의 논문, 2016, 92면.

168) 다만 대중교와 최남선의 단군 인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최남선은 근대적인 학문인 신화학과 언어학을 수용하였으며, 학문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단군왕검을 군장과 제사장을 겸한 제정일치사회의 지배자로 간주하였다. 단군왕검을 단국(檀國)의 임금(王儉)이라는 보통명사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신화를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하고자 시도한 것인데, 단군을 실존 인물로 여긴 대중교와 신채호의 이해 방식과도, 단군을 국조(國祖)로 모시고 숭배하는 대중교의 역사 인식과도 차이를 보인다. 류시현, 『최남선 연구: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의 문화』, 역사비평사, 2009, 133면.

169) “다만 유유고금기만년(悠悠古今幾萬年), 망망동서기천리(茫茫東西幾千里)에 걸친 일대 영역에서 특이한 인문 발전의 발자취를 찾아, 그것으로써 도의국가의 새로운 문화건설에 얼마만큼이나마 이바지하려고 함은 학인으로서 흔쾌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남선, 「만몽문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

등의 지식을 동원해, 신생 만주국이 위치한 만몽 지역을 인류의 새로운 문명이 도래할 땅으로 자리매김한다. 한편 최남선은 여기서도 신화를 강조한다.

인류의 모든 지적 활동은 대충 신화 가운데 흘러들어가서 커다란 저수지를 이루고, 그 후의 지적 발전은 모두 여기서부터 재발원하여 천파(千派) 만류(萬流)의 분화를 이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정신사상에서 신화의 지위는 실로 근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¹⁷⁰⁾

우리들은 감히 이렇게 부르짖고 싶다. 새 이상에 살기 위하여 옛 전통을 잡으라. 그 제일 첩경(捷徑)으로서 신화로 돌아가라고. 지극히 소중한 20세기의 신화는 그 총명과 진지성을 과거의 그것에서 배워 마땅하리라고 통절히 느끼는 바이다.¹⁷¹⁾

신화는 인류 정신사의 근원이며, 새로운 이상을 위해 항상 참고해야 할 과거의 토대이다. 따라서 만주국의 새로운 문명 건설을 위해서는 만몽의 신화를 검토해야 한다. 최남선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당시 비교신화학 이론을 활용해 만몽 여러 민족의 신화를 고찰한다. 이때 모든 신화의 중심에 단군이 배치된다.

그런데 부여계 민족이 세운 나라 중에서 제일 오래 되고 또 문화 정도가 높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조선인데, 이 조선의 건국신화는 동북민족의 신화적 생각을 가장 완전하게 표현한 점에서 그 전형적인 것 또는 그 모체적(母體的)인 것이라고 생각된다.¹⁷²⁾

고조선 건국신화는 만몽의 신화적 사유를 가장 높은 완성도로 표현한다. 즉 단군신화는 만몽 신화의 전형이자 모체이다. 이로 인해 단군을 중심에 둔 논리적 흐름이 완성된다. 만몽은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터전이다. 이 터전의 정신적 토대는 신화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만몽 신화의 모체는 단군이다. 따라서 단군이 새로운 인류 문명의 근원에 배치된다. 이는 대단군주의의 극단적 표출이며, 전 인류를 포괄하는 ‘신화적 역사’의 구축이기도 하다.

만주전설집의 ‘전설적 역사’와, 대중교 경전이나 최남선의 ‘신화적 역사’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만주전설집과 대중교 경전은 만주 여러 민족의 계보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한편 최남선은 구체적 계보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만몽과 만주국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만주전설집과 유사하다.

집편찬위원회 편, 『육당 최남선 전집』 10, 현암사, 1974, 316면.
170) 위의 글, 355면.
171) 위의 글, 372면.
172) 위의 글, 368면.

다만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각각이 생산하는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니다. 만주전설집의 ‘전설적 역사’는 만주 자체만 포괄하는 지역적 담론으로 수렴한다. 반면 대중교 경전의 ‘신화적 역사’는 우선 민족담론의 성격을 가지나, 그 의미의 수준이 민족담론에서 멈추지 않고 보편담론으로 발산한다. 한편 최남선의 ‘신화적 역사’는 애초부터 보편담론을 의도하고 설계된 기획이다.

‘전설적 역사’가 지역적 담론으로 수렴하는 이유는 전설 개념의 성격 때문이다. 전설은 지역에 고착된 설화 유형이다. 따라서 만주에 얽힌 개국전설로 구축된 계보 역시 만주에 고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법을 적용하면, ‘신화적 역사’가 보편담론으로 발산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할 때 검토해야 하는 것은 신화 개념의 성격이다. 더불어 전설 개념과 신화 개념 사이의 거리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타카기의 글에서도 확인한 바, 당시 전설과 신화는 길항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설 개념을 처음 사용한 타카기 토시오는 사실 일본 신화학의 개조이기도 하다.¹⁷³⁾ 타카기는 저서 『비교신화학』에서 신화 개념의 연원과 신화학의 성격에 관해 서술한다. 신화는 고대 그리스어 ‘뮈토스(μῦθος, mythos)’의 번역어로, 역사 시대 이전에 기원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가리킨다.¹⁷⁴⁾ 신화를 연구하는 과학이 신화학인데, 이 시기 신화학은 기본적으로 비교신화학이었다. 여러 민족 신화의 성격을 비교하면서 신화의 보편적인 기원, 구조, 상징 등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신화 개념과 신화학 자체가 민족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¹⁷⁵⁾ 이는 신화학의 발생 단계에 이미 내재해 있었던 경향이다.¹⁷⁶⁾

173) 조현설, 앞의 글, 2000, 103면.

174) “고대 그리스어에 ‘뮈토스’라는 말이 있다.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설화 혹은 전설이라는 의미인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역사가 시작하기 이전 시대의 기원을 갖는 전설을 일컫는다. 오늘날의 과학적 언어에서 ‘뮈토스’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신격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설화라는 의미에서, 이를 우리말[日本語]로 번역하여 신화라고 한다. 이런 종류의 설화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과학을 이름 붙여 ‘뮈톨로지’라고 하고,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신화학이라고 한다.(古代の希臘語に「ミュトス」と云ふ語あり。普通の解釋に従へば、説話或は傳説の義にして、嚴密の意義に於ては、歴史のはじまる以前の時代に起原を有する傳説の謂なり。今日の科語に於ては「ミュトス」とは一般に一個の神格を中心とする、一個の説話の義にして、之を邦語に翻して神話といふ。此種の説話をその研究の對象とする一個の科學、これを名づけて「ミュトロギー」と云ひ、之を邦語に翻して、神話學といふ。) ” 高木敏雄, *op. cit.*, 1904, p.1.

175) 조현설, 「민족과 제국의 동거: 최남선의 만몽문화론 읽기」, 『한국문학연구』 3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238면.

176) 신화학은 낭만주의에 힘입어 발생했다. 유럽 낭만주의의 형성은 18세기 중후반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에다(Edda)』를 위시한 고대 서

‘전설적 역사’와 ‘신화적 역사’ 사이의 거리감은, 전설과 신화 사이의 거리감이
다. 전자가 구체적인 시공간에 고착된다면, 후자는 유구함을 전제로 민족이나
세계 수준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같은 지역을 기초로 역사 계보를 구축했지만,
‘신화적 역사’는 민족담론과 보편담론으로 나아갔고, ‘전설적 역사’는 지역적 담
론으로 귀결했다.

다만 만주전설집의 ‘전설적 역사’에 관해 다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만주국
은 “오족협화(五族協和)”를 내세우는 다민족 국가였다. 따라서 만몽의 유구함과,
자국의 위상을 강조하기 위해 신화를 구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앞서 살핀 바
최남선은 「만몽문화」에서 “20세기의 신화”를 제작하고자 했다. 이 논설의 목
적이 만주국 건국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인 바, 이는 만주국 “건국신화”라고
간주할 수 있다. 즉 만주국이 자국의 신화를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했
다.

그러나 만주사정안내소는 전설을 택했다. 신화보다 제약이 크고, 영향 범위도
협소한 개념을 선택한 것이다.¹⁷⁷⁾ 그 이유는 당시 만주국의 정치적 환경 때문이
다. 주지하다시피 만주국은 사실상 일본의 지배 영역으로, 독립국의 외형과 달
리 일본 국내에 준하는 위상을 가졌다.¹⁷⁸⁾ 즉 만주국은 제국 일본을 구성하는
지역이자, 일본 내의 향토로 여겨졌다.

사시의 재발견이었다. 이는 기독교의 압력 아래 소외되었던 자민족의 전통을 재
발굴하고자 하는 문화적 운동을 자극했다. 그 결과 재발견된 신화, 전설 등은 민
족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더불어 재발견된 대상을 민족적 정
체성의 관점 아래 탐구하는 이론 체계, 즉 신화학의 발생도 자극했다. 한편 이 시
기에도 기독교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기독교에 따르면 인류는 단일한 기원을 가
진다. 이때 신화의 성격에 관해 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신화는 먼 과거의 유산
이니, 인류의 기원이 단일하다면 신화의 성격도 단일해야 한다. 반면 신화는 개별
민족의 서로 다른 정체성을 담지한 표상이기도 하다. 신화학은 신화에 다층적 성
격을 부여해 이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 즉 신화란 개별 민족이 단일 기원에서
분리되며 형성하는 특수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는 인류 보편성을 구
성하는 일부분이자, 민족적 특수성을 보장하는 기제이다. 따라서 신화학도 보편성
과 특수성의 이중적 연구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브루스 링컨 지음, 김윤성 옮
김, 앞의 책, 2009, 97~100면.

177) 이와 같은 전설과 신화의 관계는 일본 학자의 단군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일본 동양사학계는 조선 민족의 상징으로 부상한 단군의 위상을 부정하고자
했다. 그 방법은 단군을 전설로 조망하는 것이었다. 즉 단군을 불교에 근거해 만
들어진 평양의 지역전설로 간주해, 민족적 충위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반발한 인물이 최남선이다. 그는 단군을 신화로 조망해 민족, 나아가 인류의 상징
으로 삼고자 했다. 조현설, 「동아시아 신화학의 여명과 근대적 심상지리의 형성:
시라토리 쿠라키치·최남선·마오둔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16, 민족문
학사학회, 2000, 108면, 112면.

178) 야마무로 신이치 지음, 윤대석 옮김, 앞의 책, 2009, 251~254면.

따라서 만주국은 신화를 가질 수 없다. 향토는 신화가 아니라 전설이 얹힌 영역이기 때문이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 범례에서 만주 향토전설의 추이가 일본으로 이어진다는 서술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만주국은 신화와 국토를 가진 독립국이 아니라, 전설과 향토의 위상이 부여된 지역으로 남았다.

4.2. 만주사 계보의 확산과 균열

4.2.1. 만주사 계보의 확산

『만주의 전설과 민요』은 만주국의 공식적 문헌이며, 그 편찬 목적은 “문화 공작”이다. 따라서 이 문헌은 수록된 개국전설을 활용해 계보를 제작하면서, 만주사의 상(像)을 구축했다. 다만 그 기능은 계보 구축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구축된 만주사 계보를 유포해 확산시키는 기능도 담당하는 것이다. 이때 유포와 확산 양상에 관한 검토는, 관련 내용이 수록된 문헌의 편찬 양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개별 문헌의 개판(改版)이나 문헌 간 영향 관계를 통해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수차례 재출간된 바 있다. 그 양상을 재판의 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민정(民情)과 풍습(風習)을 연구하고 전설을 아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나, 국민성의 생생한 이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불가결한 사항이다. 만주제국이 일본 관민(官民)의 원조와 도움에 의해 빛나는 건국 이상의 달성에 매진하여 나아갈 때 이를 이끄는 일덕일심(一德一心) 관계의 ‘일본’이 만주국 일반의 민정을 인식하는 일을 잃어서는 제후도 친선도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1. 이런 건지에서 우리 안내소는 일찍이 『만주국의 습속』을 공개하여, 일본인의 만주 민정과 상식 함양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만주국 문화 공작에 조금의 기여를 할 수 있었는데 절판 후 각 방면에서의 요망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에 개정을 더해 다시금 인쇄하기로 하였다.
1. 본편의 제 1편 전설편, 제 2편 민요편은 우리 안내소 위촉조사원 타니야마 츠루에가 담당 집필한 부분으로 그 정치한 관찰은 이미 널리 호평을 받은 것이고 제 3편 ‘전설의 지나’는 지나의 개국에 관련된 전설이지만 한민족(漢民族) 연구의 자료로 함께 게재했다.(밑줄은 필자)179)

179) 一、民情風習を究め、傳説を知ることは、その國の文化や、歴史や、國民性の生きた理解の上に最も 重要缺ことの出来ない事柄である。滿洲帝國が日本官民の援助と誘掖によつて輝かしき建國理想の達成に邁進し行く時これを導く一德一心關係の「日本」が滿洲國一般民情を認識する事なくしては提携も親善も形式のものに過ぎないであらう。一、この見地より當所は曾て「滿洲國の習俗」を公にして日本人に對する滿洲民情常識の涵養に資し、併せて滿洲國文化工作に幾分の寄與をなし得たが絶版後各方面よりの要望多きためその一部に改訂を加へ再び印刷に付することとした。一、本篇の第一編傳説篇、第二編民謠篇は當案内所委囑調査員谷山つる枝の擔當執筆せる處でその精緻なる觀察は既に好評を博したるもの第三編「傳説の

「전설의 지나」가 정식 편목으로 승격했다는 것 이외에, 다른 내용은 크게 달라진 바 없다. 다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두 번째 항목이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간행은 “문화 공작”에 일부 기여했는데, 초판의 절판 이후 다방면의 요청이 있어 개정판을 출간한다는 것이다. 이 문헌의 재출간은 일회적이지 않았다. 1938년 재판의 출간 이후, 1940년 3판의 출간이 이루어졌고, 1944년에는 5판의 출간이 이루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재출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수요에 힘입은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유통이 적어도 8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시사한다. 유통 과정에서 이 문헌이 구축한 만주사 계보가 유포되고 확산되었을 것이다.

한편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전설적 역사’를 전재해, 『만주야화』가 편찬되었음은 이미 살핀 바 있다. 이 문헌은 만주에 관한 잡다한 이야기를 엮은 것으로, 흥미 위주의 성격을 가진 채 대중적인 읽을거리로 유통되었다. 사실 1940년대 만주의 출판 환경은 열악했다. 1939년부터 만주국 당국은 출판 영역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는 1940년 전면화된다. 민간 출판물과 관영 출판물을 막론하고, 만주출판협회(滿洲出版協會)의 전면적 통제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¹⁸⁰⁾ 한편 『만주야화』 자체도 상업적으로 유리하지 못했다. 『만주야화』의 가격은 2원 50전이다. 1939년 만주국 일본인 남성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이 3원 66전임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비싼 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¹⁸¹⁾

支那」は支那の開國にちなむ傳説であるが共に漢民族研究への資料として掲載した。(밑줄은 필자) 『만주의 전설과 민요』 (재판), p.i.

180) 만주국의 출판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영 출판물이 민간 출판물을 질과 양 모두에서 압도했다. 민간 출판물은 종류에서 관영 출판물의 4분의 1에, 부수에서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1939년 이후 일본 본토의 물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종이와 잉크를 일본에서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지하던 만주국의 인쇄 사정도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출판 영역의 통제가 이루어졌고, 민간 출판물의 간행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40년부터는 사전 승인 제도가 확대되어 관영 출판물에도 적용되었고, 1941년에는 만주출판협회가 출범해 출판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제했다. 기시 도시히코 지음, 전경선 옮김, 앞의 책, 2019, 231~234면.

181) 만주국 노동자의 임금은 산업별, 지역별, 민족별, 성별로 편차가 컸다. 다만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은 집단은 단연 일본인 남성 노동자이다. 일본인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원 66전이였다. 다음으로 임금이 높은 집단은 일본인 여성 노동자인데, 평균 임금은 1원 52전이였다. 조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이다. 조선인 남성의 평균 임금이 1원 37전이었고, 조선인 여성의 평균 임금이 59전이였다. 중국계 노동자의 임금은 조선인 노동자보다 낮았다. 중국계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94전이었고, 중국계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52전이였다. 「産業別労働者賃銀」, 『政府公報』 第 1564號(康德 6年

출판 환경과 상업적 측면의 불리함에도, 『만주야화』는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제 15권을 간행한다.¹⁸²⁾ 이 문헌이 얻은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이때 개국전설이 『만주야화』에 수록된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개국전설을 당시 독서 대중이 흥미로운 읽을거리로 수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이 문헌을 계기로 ‘전설적 역사’의 유포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주지하다시피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교과서를 위시한 교육 자료의 제작에 영향을 미쳤다.¹⁸³⁾ 여기서 교육이란 국민학교 “국민과(國民科)” 교과를 의미한다. “국민과”는 1941년 일본 본토의 “국민학교령(國民學校令)” 시행과 함께 공포된, “재만국민학교규칙(在滿國民學校規則)”에 근거한다. 이는 재만 일본인 학생이 대상인 향토 교육 계획이었는데, 전설을 제재로 활용했다.¹⁸⁴⁾ 대표적 사례를 국민학교 2학년 교과서 『만주 2(まんしゅう 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문헌은 『만주의 전설과 민요』에 수록된 전설 가운데 세 편을 추려 활용한 다. 개중 두 편은 지역전설이고, 다른 한 편은 청의 시조전설 「붉은 나무 열매」이다.

이 종류의 감생전설은 부여족의 개조(開祖) 주몽의 난생설화(卵生說話) 이후 만주 민족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었던 것이지만, 청 태조의 선조라고 여겨지는 아이신 기오로(愛新覺羅)에 이르러 이 삼선설화(三仙說話)가 나타났던 이유는, 부여에서 넘어온 고구려계의 전래인 것 같은 만큼, 요컨대 만주 선주민족의 개국설화와 고산 숭배 사상이 결합하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¹⁸⁵⁾

『만주 2』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붉은 나무 열매」에 관한 해설이다. 청의 시조 아이신기오로의 탄생에 관한 감생전설은, 부여에서 기원한 고구려 계통 전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해설을 통해 부여·고구려의 개국전설과 청의 시조전설이 직접 연결된다.

이와 같은 서술에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전설적 역사’가 영향을 미친 것

7月 4日), 國務院總務廳, 1939, pp.10~11(偽滿時期資料重刊編委會, 『偽滿洲國政府公報』 59, 瀋陽: 遼瀋書社, 1990, pp.62~63).

182) 植民地文化研究會 編, *op. cit.*, 2005, p.108.

183) 船越亮佑, *op. cit.*, 2017, pp.124~125.

184) 船越亮佑, *op. cit.*, 2017, p.124.

185) この種の感生傳説は扶餘族の開祖朱蒙の卵生說話以後、滿洲民族にはほとんど求め得られなかつたものであるが、清の太祖の先祖だといはれる愛新覺羅にいたつて三仙說話があらはれたわけで、高句麗系傳來であり、扶餘持ち越しのものであるらしく、要するに滿洲先住民族の開國說話と、高山崇拜思想とが結びついてできたものであらう。關東局在滿教務部教科書編輯部, 『まんしゅう 二: 教師用』, 大連: 大陸教科用圖書株式會社, 1942, pp.145~146.

이라 간주할 수 있다. 완전히 동일한 계보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부여·고구려와 청을 잇는 전설의 계보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전설로 구축한 만주사 계보는, 이 문헌 자체의 재출간과 함께, 대중적인 읽을거리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유포되고 확산되었던 것이다.

4.2.2. 만주사 계보의 균열

만주사 계보의 유포와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선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그 편찬 목적을 달성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일견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여도, 그 과정이 구체적 수준에서도 성공했는지에 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만주전설집의 구성적 논리에서, 개국전설은 향토 담론의 구현자이자 매개자이다. 개국전설로 구축된 ‘전설적 역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유포와 확산이 이루어지는 한편, 향토 담론 역시 만주에 정착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향토 담론의 방향성이 변모한다는 것이다.

향토 담론은 기본적으로 양가적 성격을 가진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을 조망하는 외부적 기획이다. 특히 대상의 단순화를 시도하는 관점을 취하는데, 지역적 현실의 다양성을 사상하고 이상화된 균질적 형상만을 남기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향토 담론은 지역에 밀착하는 내부적 기획이기도 하다. 지역의 토지, 거주민, 생활, 감정을 향한 공감과 천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상 두 층위는 모순을 이룬다. 다만 전개 과정에서 현지의 향토 담론은 결국 후자로 수렴된다. 향토 담론을 내면화한 현지 거주민은 결국 그 지역의 내부자로 남기 때문이다. 여기서 단순화를 도모하던 외부 시선은 쇠퇴하고, 구체적인 내부 현실에 주목이 이루어진다.¹⁸⁶⁾ 즉향토 담론은 전개 과정에서 스스로 균열을 초래하는 것이

186) 이와 관련해 만주국의 문학 영역에서 벌어진 논쟁을 참고할 수 있다. 당시 재만(在滿) 일본인 작가 가운데 다수는 만주문학의 독자성을 주장했다. 만주문학을 일본문학의 연장이나 일본 지역문학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만주만의 문학을 창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만주문학의 독자성 모색은 다양한 견지에서 이루어졌는데, 개중 만주 현지의 실상에 천착해야 한다는 관점이 존재한다. 문제는 독자성 주장이 향토 담론에 입각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향토 담론의 내적 전개와 균열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만주문학의 독자성 주장에 관한 논의는 다음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오카다 히데키 지음, 최정옥 옮김,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역락, 2008; 유수정, 「만주국 초기 일본어문학계의 〈만주문학론〉」, 『한일군사문화연구』 11, 한일군사문화학회, 2011.

다.¹⁸⁷⁾

향토 담론의 변모 양상은 전설 영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만주에 사는 일본인 어린이는, 요괴 이야기도 전설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연을 극도로 정복한 도시 안에서, 고도의 이지적(理智的) 생활을 영위하는 일본인 가정에는 이렇다 할 요괴 이야기도 전설도 들어갈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주의 어린이는 요괴 이야기를 원하지 않는가? 아니, 맹렬히 원하고 있다.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그것은 꽤나 불건전한 것이다.¹⁸⁸⁾

내가 어린이에게 만주인의 전설이나 구비를-그것도 흠냄새가 나는 것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어린이들을 잠시라도 산하초목(山河草木)의 친구에게 돌려보내고 싶어서이다.¹⁸⁹⁾

키타 타키지로가 『만주일일신문』에 기고한 논설이다. 재만 일본인 아동은

187) 향토 담론의 내적 균열에 관한 논의는, 국가적 기획의 실패에 관한 제임스 스콧의 논의를 참고한 것이다. 근대 국가는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사회의 “가독성(legibility)”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는 “단순화(simplification)”의 기획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중앙 정부는 사회를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에서 불분명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의 관행을 강제로 무력화하고, 역시 자신의 입장에서 분명하고 파악하기 쉬운 표준적이고 단순한 질서를 모든 영역에 부과한다. 표준어 발명, 성씨 창제, 법제 정비, 도량형 표준화 등이 모두 이 작업의 사례이다. 문제는 단순화 작업과 사회의 복잡한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연적 괴리를 무시하고 국가적 기획을 강제한다면, 기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향토 담론의 지적 기획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의도를 가진 채 지역을 추상화하고 균질화한다. 그 결과물은 단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역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때 향토 담론은 필연적 괴리를 의식하거나 검토하지 않았고, 결국 담론을 내면화한 현지인 집단에 의해 형해화된다.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에코리브르, 2010.

188) 滿洲に住む日本人の子供は、お化も傳説も持つてゐない。自然を極度に征服した都市の中で、高度の理智生活を営む日本人の家へはお化も傳説もはいつて行く餘地が無いのである。然らば、滿洲の子供はお化を求めてゐないか。否、猛烈に求めてゐる。その求とめによつて、色々なお化が相當數多く現れてゐる。それは、かなり不健康なものである。喜田瀧治郎, 「滿洲と傳説 (一)」, 『滿洲日日新聞』 第 11996號(康德 6年 8月 3日), 大連: 滿洲日日新聞社, 1939, p.4.

189) 私が子供に、滿人達の傳説や口碑を-それも土くさいものを與へれみたいと思ふのはそのらめなのである。子供たちをちよつとばかり山河草木の友人に返してみたいからである。喜田瀧治郎, 「滿洲と傳説 (二)」, 『滿洲日日新聞』 第 11997號(康德 6年 8月 4日), 大連: 滿洲日日新聞社, 1939, p.4.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전설을 접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야기를 향한 욕망은 부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불건전한 이야기를 만들어 향유한다. 이런 이유로 키타는 불건전한 이야기를 불식할 수 있는, “흙냄새가 나는” 만주의 건전한 전설을 교육하고자 한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부분은 키타가 재만 일본인 아동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 전설이 아니라 만주 전설이라는 것이다. 일견 모순이라 간주할 수도 있지만, 향토 담론의 변모와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 재만 일본인도 만주에 거주하기 때문에, 만주 전설을 통해 만주를 향한 향토 의식을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의도한, 일본 본토로 이어지는 전설의 추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만주 전설의 독자성이 주장된 것이다.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내용 편제도 이와 관련해 검토할 수 있다. 이 문헌에서는 만주사 계보가 명확히 발견되지 않는다. 계보를 구성하는 개국전설 대신 지역전설을 다수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헌 구성의 측면에서, ‘전설적 역사’가 상징하는 향토 담론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반면, 구체적 지역을 향한 주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개국전설을 매개로 구현되는 향토 담론의 전개로 인해, 오히려 개국전설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국가 기획의 핵심적 문헌인 『만주의 전설과 민요』도 예외는 아니다. 이 문헌에서 구축된 만주사 계보는 단순화의 산물이다. 계보에 포괄되지 않는 민족도, 만주에서 발생한 한족화의 경향도 배제했기 때문이다.¹⁹⁰⁾ 「전설의 지나」가 부록으로 남은 것은 후자의 방증이다. 다만 재판의 출간에서 상황이 달라진다. 「전설의 지나」가 정식 편목으로 승격한 것이다. 서문에서는 이 편목이 한족 연구를 위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서술한다. 이는 모순인데, 만주국 “문화공작”을 위한 문헌에 한족 연구의 자료가 수록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승격의 이유는 단순화 기획과 현실의 괴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한족화가 진행된 만주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편목을 새로 승격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향토 담론에 근거한 추상화보다, 만주 전설의 현실적 존재 양상을 중요시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주야화』는 향토 담론의 내적 균열에 관한 극단적 사례이다. 이 문헌의 편찬 목적은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개국전설이 전재되어 수록되었다. 따라서 이 문헌에 수록된 개국전설

190) 당시 형질인류학적 견지에서 작성된 만주 민족의 계보도를 참고하면, ‘전설적 역사’는 매우 단순화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伊藤武雄, 『滿蒙講座 9: 滿洲文化の發展』, 大連: 滿洲文化協會, 1932, p.24.

도 흥미 위주로 읽혔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밝힌 바, 전설을 향한 호기적 태도의 배경과 충돌한다. 이와 같은 현상도 향토 담론의 균열에 관해 이해할 수 있다. 개국전설은 구체적 지역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호기적인 견지에서 소비되었을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이 땅이 사람 만주의 전설』처럼 개국전설의 중요도가 지역전설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주야화』는 상업적 성공을 거두며 만주사 계보의 확산에 기여했지만, 그 진지함을 유지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만주야화』에 수록된 개국전설은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역설적 존재인 것이다.

5. 결론

부여·고구려 개국전설은 1930년대 후반 새로 주목 받아, 만주전설집에 수록되었다. 본 논문은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부여·고구려 개국전설을 분석해, 만주전설집이 구축하고자 했던 이념적 논리를 규명하고, 당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주전설집과 개국전설이 가지는 위상에 관해 고찰하고자 했다. 따라서 방법론적 견지에서 서사학을 수용해 담론 층위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담론 층위의 실천을 위해 만주전설집이 활용한 결텍스트를 주목하면서, 『구비문학개설』의 관점과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에 집중했다. 우선 만주전설집이 개국전설을 재편한 방식과 이유를 고찰하고, 이어 만주전설집과 개국전설이 창출하는 의미를 검토하고자 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만주전설집은 『만주의 전설과 민요』, 『만몽전설집』, 『만주의 습속과 전설·민요』,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 『만주야화』 다섯 편을 가리킨다. 다섯 편 모두 문헌에 관한 체계적인 고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2장에서 만주전설집에 관한 문헌 고증 작업을 수행했다. 우선 개별 만주전설집의 저자, 가격, 소장처, 서지 사항, 내용 편제, 편찬 의도를 검토했다. 이어 개별 만주전설집의 성격을 규명하고, 문헌이 가진 공식성의 층위를 가늠했다. 가장 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문헌은 『만주의 전설과 민요』였고, 가장 공식적인 성격이 약한 문헌은 『만주야화』였다.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공식성이 높은 만큼, 편제와 구성이 가장 체계적이고, 고려해야 할 결텍스트도 가장 풍부하며, 이념적 함의 역시 가장 두드러졌다.

3장에서는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개국전설의 재편 방식과 의미에 관한 본격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만주전설집의 구성 방식과 결텍스트가 주목되고, 개국전설이 구축하는 이념적인 층위에 관한 고찰 역시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히 『만주의 전설과 민요』를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고, 다른 만주전설집을 충분히 참고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했다. 우선 개국전설의 출전을 검토했다. 부여·고구려 개국전설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논형』 등의 문헌을 출전으로 삼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전설보다 지역성이 희박했고, 전설의 실재성을 부각하는 결텍스트인 사진과 서문의 혜택을 입지 못했다. 『조선민담집』처럼 설화의 출전을 기재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만주전설집은 이 역시 선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만주전설집이 개국전설의 출전을 기재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이는 개국전설 출전이 만주 고유의 문헌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즉 만주 고유의 전설을 수집하기 위해, 만주 고유의 것이 아닌 문헌을 참고했다는 논리적

모순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만 개국전설의 지역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전설의 정체성에 관해 여전히 공백이 남아 있었다. 이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진과 서문이 작동한다. 이는 개국전설을 만주에 얹힌 전설로 재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만주의 전설과 민요』의 논평과 주석, 『이 땅 이 사람 만주의 전설』의 삽화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자는 개국전설과 지역전설이 공유하는 화소의 분석을 통해, 후자는 개국전설 등장인물을 만주인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을 통해 결텍스트 장치로 작용했다.

한편 지역성이 드러나지 않는 개국전설을, 전설 범주로 포괄한 이유도 규명하고자 했다. 오늘날 설화 연구에 따르면, 부여·고구려 개국전설은 “건국신화”이다. 관점의 차이에 천착해, 당시 전설 개념의 성격을 고찰했다. 우선 ‘전설’ 개념의 연원을 검토했다. 그 결과 전설 개념이 가진 성격 자체는 오늘날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1930년대에는 전설 개념이 향토 담론과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을 낭만화하는 향토 담론과 전설 개념의 결합 아래, 개국전설은 만주에 얹힌 전설로 재규정되는 한편, 만주전설집 문헌 구성의 측면에서 다른 전설을 포괄하는 향토 담론의 구현자이자 매개자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 기능을 보다 구체적인 견지에서 검토하고자 했다. 이는 『삼국유사』 「기이」 편과 대비해 설명하고자 했다. 「기이」 편은 자체로 민족사의 계보를 구축하는 한편, 문헌의 서두에서 서문처럼 작용하면서 『삼국유사』 전체가 하나의 관점을 가진 역사 서술로 수렴하도록 한다. 만주전설집의 개국전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국전설은 자체로 만주사의 계보인 ‘전설적 역사’를 구축하는 한편, 문헌의 서두에서 서문처럼 작용하면서 다른 전설을 향토 담론의 관점으로 통괄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만주국의 심상지리가 표상된다. 여기서 만주전설집이 전설로 구축한 역사와 지리는 만주국과 일본이 전유하고 있었다. 3장의 분석을 통해 『만주의 전설과 민요』가 개국전설을 수록하고 재편하는 국면에 내재한 이념적인 함의를 밝힐 수 있었다.

4장을 통해서 만주전설집과 개국전설이 가지는 위상에 관한 조망을 시도했다. 우선 만주사 계보를 구축하기 위해 전설을 활용한 이유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만주사를 서술한 문헌인 『만주사화』와, ‘전설적 역사’의 비교를 수행했다. 『만주사화』를 위시한 역사 서술도 만주사 계보를 구축하는 한편, 정치적 견지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역사와 전설의 기능이 중첩되는 바, 전설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밝히고자 했다. 이는 전설 개념의 기본적 성격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전설 개념은 진실성에 근거한 심성적 호소력의 차원에서, 역사의 기능을 능가한다. 따라서 만주국 “문화 공작”에서 역사 서술이 아니라 만

주전설집 편찬이 선택된 것이다.

더불어 만주전설집이 구축한 ‘전설적 역사’와, 대중교 경전과 최남선의 논설에 드러난 ‘신화적 역사’의 비교도 수행했다. 전자와 후자는 만주 여러 민족을 포괄하는 계보를 작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다만 그 의미는 달랐다. 전자는 만주의 지역적 담론으로 수렴하는 반면, 후자는 민족담론과 보편담론으로 발산했던 것이다. 여기서는 계보의 의미 차이를 전설 개념과 신화 개념의 의미 차이로 이해했다. 전설은 구체적인 시공간에 고착된다. 반면 신화는 유구함을 전제로 민족, 세계 수준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전설적 역사’와 ‘신화적 역사’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만주국이 국가임에도, 그 역사 계보가 전설 층위에 머물렀던 이유를 당시 정치적 환경과 관련해 규명하고자 했다. 만주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지역 향토였기 때문에, 그 계보는 신화가 아니라 전설의 층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아가 만주전설집이 구축한 만주사 계보의 확산 양상에 관해서도 조망하고자 했다. 특히 『만주의 전설과 민요』는 공식적 문헌으로, 만주사 계보를 유포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헌은 수차례 재출간되는 한편, 다른 문헌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만주야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문헌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널리 읽혔다. 이를 통해 만주사 계보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견지에서 검토했을 때, 계보의 유포가 반드시 만주전설집과 개국전설을 통한 문화적 기획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향토 담론 자체의 전개에서 발생하는 내적 균열로 인해, 정작 향토 담론의 핵심인 개국전설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1930년대 후반 만주전설집에 수록된 부여·고구려 개국전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개국전설 재편을 통해 구축된 만주사 계보가 가진 특징을 밝히고, 그 의미와 위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주목 받지 못했던 근대 일본어 설화집을 조명하는 한편, 근대 초기 한국 설화 존재 양상의 한 국면도 조망하고자 했다. 다만 본 논문의 작업은 연구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고, 개별 만주전설집을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국 설화의 근대적 존재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를 기초로 삼는 한편, 개별 자료에 관한 더욱 섬세한 접근이 요청된다. 최근 본격적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근대 설화 자료를 고려하면서, 추후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滿洲事情案内所 編, 『滿洲の傳説と民謡』, 新京: 滿洲事情案内所, 1936.
- 細川清, 『滿蒙傳説集』, 東京: 滿蒙社, 1936.
- 谷山つる枝, 『滿洲の習俗と傳説・民謡』, 東京: 松山房, 1938.
- 喜田瀧治郎, 『この土地この人滿洲の傳説』, 大連: 滿洲教科用圖書配給所出版部, 1940.
- 衛藤利夫, 『滿洲夜話』, 奉天: 吐風書房, 1940.
- 石森延男, 『滿洲史話』, 東京: 修文館, 1939.
- 伊藤武雄, 『滿蒙講座 9: 滿洲文化の發展』, 大連: 滿洲文化協會, 1932.
- 關東局在滿教務部教科書編輯部, 『まんしう 二: 教師用』, 大連: 大陸教科用圖書株式會社, 1942.
- 喜田瀧治郎, 『この土地この人 遼東史話 近代篇』, 大連: 喜田瀧治郎, 1938.
- 郷土教育聯盟, 『郷土教育學習指導案』, 東京: 刀江書院, 1937.
- 細谷清, 『滿蒙民俗傳説』, 東京: 蒼龍閣, 1936.
- 滿洲弘報協會, 『滿洲國の習俗』, 新京: 滿洲弘報協會, 1937.
- 滿洲事情案内所 編, 『滿洲の習俗』 (四版), 新京: 滿洲事情案内所, 1940.
- 八木裝三郎, 『滿洲考古學』, 東京: 岡書院, 1928.
- 高本敏雄, 『比較神話學』, 東京: 博文館, 1904.
- _____, 『日本傳説集』, 東京: 郷土研究社, 1913.
- _____, 『日本神話傳説の研究』, 東京: 岡書院, 1925.
- 柳田國男, 『定本 柳田國男集』 5, 東京: 筑摩書房, 1968.
- 孫晋泰, 『朝鮮民譚集』, 東京: 郷土研究社, 1930(손진태 지음, 이시준 외 편, 『조선민담집』, 제이앤씨, 2013).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 편, 『육당 최남선 전집』 10, 현암사, 1974.
- 김교헌, 『신단실기』, 경성: 대중교본사, 1914.
- _____, 『신단민사』, 대중교충본사, 1946.

喜田瀧治郎, 「滿洲と傳説 (一)」, 『滿洲日日新聞』 第 11996號(康德 6年 8月 3日), 大連: 滿洲日日新聞社, 1939.

_____, 「滿洲と傳説 (二)」, 『滿洲日日新聞』 第 11997號(康德 6年 8月 4日), 大連: 滿洲日日新聞社, 1939.

高木敏雄, 「傳説の意義 (一)」, 『文教の朝鮮: 朝鮮傳説號』 壹月號, 朝鮮教育會, 1927.

_____, 「傳説の意義 (二)」, 『文教の朝鮮: 朝鮮傳説號』 壹月號, 朝鮮教育會, 1927.

偽滿時期資料重刊編委會, 『偽滿洲國政府公報』 59, 瀋陽: 遼瀋書社, 1990.

『삼국사기(三國史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삼국유사(三國遺事)』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논형(論衡)』 (王充 著, 袁華忠·方家常 譯注, 『論衡全譯』 上,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1).

『전국책(戰國策)』 (유항 지음, 임동석 역주, 『역주 전국책』 2, 전통문화연구회, 2004).

그림 형제 편, 임한순 외 옮김, 『독일 전설』 I,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2. 단행본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개정판), 월인, 2002.

강재철 편, 『조선전설동화: 조선총독부가 191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화 자료 조사 보고서』 상·하,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2.

권혁래, 『조선동화집(1924) 연구: 우리나라 최초의 전래동화집』, 보고사, 2013.

_____, 『일제강점기 설화·동화집 연구: 우리 옛이야기의 정체성 찾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김광식, 『식민지 조선과 근대설화』, 민속원, 2015.

_____, 『근대 일본의 조선 구비문학 연구』, 보고사, 2018.

김광식·이시준,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적 연구』, 제이앤씨, 2014.

- 김면, 『독일민속학: 향토연구에서 유럽인류학으로』, 민속원, 2012.
- 김용의, 『흑부리 영감과 내선일체』,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 김일권 외 편, 『한국 근현대 100년과 민속학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 박진, 『서사학과 텍스트 이론: 토도로프에서 데리다까지』 (개정증보판), 소명출판, 2014.
- 손민호·조현영, 『민속방법론: 현상학적 사회학과 질적 연구』, 학지사, 2014.
- 송효섭, 『신화의 질서: 도상기호학적 탐구』, 문학과 지성사, 2012.
- 이복규, 『부여·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집문당, 1998.
- 이시준·김광식 외,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적 연구 2』, 제이앤씨, 2016.
- 인권환, 『한국민속학사』, 열화당, 1978.
- 장덕순, 『설화문학개설』, 이우출판사, 1975.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한글개정판), 일조각, 2006.
- 전경수, 『손진태의 문화인류학: 제국과 식민지의 사이에서』, 민속원, 2010.
-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2003.
- _____,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구비문학 조사방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고바야시 히데오 지음, 임성모 옮김, 『만철: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산처럼, 2004.
- 기시 도시히코 지음, 전경선 옮김, 『비주얼 미디어로 보는 만주국: 포스터·그림엽서·우표』, 소명출판, 2019.
- 미야케 히토시 지음, 김용의 외 옮김, 『종교민속학』, 민속원, 2013.
- 사카노 토오루 지음, 박호원 옮김, 『제국일본과 인류학자(1884~1952)』, 민속원, 2013.
- 야마무로 신이치 지음, 윤대석 옮김,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 오카다 히데키 지음, 최정옥 옮김,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역락, 2008.
-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서지현 옮김, 『상상된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길, 2018.
- 브루스 링컨 지음, 김윤성 외 옮김,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이학사, 2009.

- 스티스 톰슨 지음, 윤승준·최광식 옮김, 『설화학원론』, 계명문화사, 1992.
- 앤서니 그래프턴 지음, 김지혜 옮김, 『각주의 역사: 각주는 어떻게 역사의 증인이 되었는가』, 테오리아, 2016.
- 에드워드 사이드 지음,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개정 증보판), 교보문고, 2007.
- 에릭 홉스봄 지음,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 제라르 즈네트 지음, 권택영 옮김,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 제럴드 프린스 지음, 이기우·김용재 옮김, 『서사론사전』, 민지사, 1992.
-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에코리브르, 2010.
- 클리퍼드 기어츠 지음, 김병화 옮김, 『저자로서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 에번스프리지드, 말리노프스키, 베네딕트』, 문학동네, 2014.
- 패멀라 카일 크로슬리 지음, 양희웅 옮김, 『만주족의 역사: 변방의 민족에서 청제국의 건설자가 되다』, 돌베개, 2013.
- 프레신깃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옮김,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008.
- H. 포터 애벗 지음, 우찬제 외 옮김, 『서사학 강의: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 지성사, 2010.
- S. 리몬 케넌 지음, 최상규 옮김,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1999.
- S. 채트먼 지음, 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담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푸른사상, 2003.
- 小谷部全一郎, 『成吉思汗ハ源義經也』, 東京: 富山房, 1924.
- 金廣植, 『植民地期における日本語朝鮮説話集の研究: 帝國日本の「學知」と朝鮮民俗學』, 勉誠出版, 2014.
- 今野眞二, 『振仮名の歴史』, 東京: 集英社, 2009.
- 植民地文化研究會 編, 『《滿州國》文化細目』, 東京: 不二出版, 2005.
- 丸山泰通·田中隆子, 『衛藤利夫』, 東京: 日本図書館協會, 1980.
- Garfinkel, Harold, *Studies in Ethnomethodology*,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7.

3. 논문

- 김광식, 「1920년대 일본어 조선동화집의 개작 양상: 『조선동화집』(1924)과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8, 열상고전연구회, 2015.
- _____, 「한일 설화 채집·분류·연구사로 본 손진태 『조선민담집』의 의의」, 『동방학지』 17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 _____, 「근대 일본의 조선 설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열상고전연구』 66, 열상고전연구회, 2018.
- 김준희, 「『오누이 힘내기』 설화 연구: 담론 층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남동신, 「『삼국유사』의 성립사 연구: 기이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61, 한국사상사학회, 2019.
- 박광용, 「대단군 민족주의의 전개와 양면성」, 『역사비평』 19, 역사비평사, 1992.
- 박성혜, 「근대 계몽기 단군신화 연구: 단군신앙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박찬홍, 「만선사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한국사학보』 29, 고려사학회, 2007.
- _____, 「『만선사』에서의 고대 만주 역사에 대한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6, 한국고대사학회, 2014.
- 서대석, 「고구려신화의 성립과 민족신화적 성격」, 『역사민속학』 18, 역사민속학회, 2004.
- 손동인, 「한국전래동화사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1, 한국아동문학학회, 1990.
- 심형준, 「『신화적 역사』와 『역사적 신화』: 허구적 내러티브 생성의 일반적 조건과 신화 연구자의 과제」, 『종교문화연구』 26,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6.
- 유수정, 「만주국 초기 일본어문학계의 〈만주문학론〉」, 『한일군사문화연구』 11, 한일군사문화학회, 2011.
- 이명중, 「1910~1920년대 ‘만주=단군강역’ 담론」,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 이수자, 「구비문학연구의 성격과 의의」, 한국역사민속학회 편,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 민속원, 2003.
- 이재운, 「한국설화의 자료 수집 연구사」, 『세종어문연구』 5·6, 세종대학교

- 세종어문학회, 1988.
- 정상우, 「만선사와 일본사의 위상」, 『한국사상사학보』 28, 한국사상사학회, 2013.
- 정영훈, 「대종교와 ‘단군민족주의’」, 『단군학연구』 10, 단군학회, 2004.
- 조은애, 「일제강점기의 조선설화집과 박물학: 미와 다마끼의 『전설의 조선』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98, 한국일어일문학회, 2016.
- 조현설, 「동아시아 신화학의 여명과 근대적 심상지리의 형성: 시라토리 쿠라키 치·최남선·마오둔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16, 민족문화사학회, 2000.
- _____, 「민족과 제국의 동거: 최남선의 만몽문화론 읽기」, 『한국문학연구』 3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 조희웅, 「설화 수집의 역사와 현황」, 『구비문학』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979.
- _____, 「일본어로 쓰여진 한국설화/한국설화론 (1)」, 『어문학논총』 24,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5.
- 최원오, 「일제강점기 조선전설 자료집의 간행과 전설 범주의 설정」, 『구비문학연구』 54, 한국구비문학회, 2019.
- 하정현, 「『삼국유사』 텍스트에 반영된 ‘신이’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한지은, 「식민지 향토 개념의 중층성」, 『한국학연구』 34,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이노우에 나오키, 「근대 일본의 고구려사 연구: ‘만선사’·‘만주사’와 관련해서」, 『고구려발해연구』 18, 고구려발해학회, 2004.
- 이노우에 나오키 지음, 박성현 옮김, 「고구려사와 만선사」, 『동서인문학』 53,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 梶井陟, 「朝鮮文學の翻譯足跡 (三): 神話、民話、伝説など」, 『季刊 三千里』 24, 東京: 三千里社, 1980.
- 船越亮佑, 「近代日本の移植民政策と國民教育をめぐる國語及び日本語教科書の研究: 日本・米國・「滿洲」の教科書編纂事情と教材採録のあり方を中心に」, 東京學芸大學大學院博士學位論文, 2017.

日文抄録

満洲伝説集の編纂と開国伝説の再編に関する研究

－ 1930年代の後半を中心に －

ソウル大学大学院

国語国文学科 国文学専攻

朴光垠

この論文は、1930年代後半の『満洲の伝説と民謡』・『満蒙伝説集』・『満洲の習俗と伝説・民謡』・『この土地この人 満洲の伝説』・『満洲夜話』に所収された夫余と高句麗の開国伝説を素材に、近代初期における韓国説話のあり方を検討する。そのなかで、以上五つの書物を「満洲伝説集」と名付け、最終的には満洲伝説集における開国伝説を再編したうえで構築しようとした政治的論理とその含意を解明せんとする。

具体的な構成として、先ず2章では、本論に先じて満洲伝説集の書誌を調べ、その性格を明らかにすること、すなわち各々の書物の帯びる公式性の水準を見計らった。五つのなか、最も公式性の高かった書物は『満洲の伝説と民謡』であった。『満洲の伝説と民謡』は公式性も高い分、体裁も構成も体系的であり、編纂意図にこめられているイデオロギー性も明確であった。その一方、最も公式性の低い書物は『満洲夜話』であった。

次の3章では、特に『満洲の伝説と民謡』に注目し、満洲伝説集における開国伝説の再編方式とその意味について分析した。開国伝説の出典は『三国史記』・『三国遺事』・『論衡』などの文献であった。満洲伝説集はこれらの文献から開国伝説を掻き集め、それに写真・序文・評論・注釈・挿絵などを撮り添えることで開国伝説を再編するものであった。それは、開国伝説を満洲にかかわる伝説として規定し直すためであった。

一方、1930年代における伝説の概念は、それ自体では今日のそれと大差なかったのだが、各地域の理想化を謀る郷土言説と結びつき、その影響を受けた。開国伝説も1930年代の伝説概念に包摂されていたのである。したがって、開国伝説は満洲伝説集の構成的な脈絡のなかで、郷土言説の具現者かつ媒介者として、他の伝説を統括しつつ満洲の歴史系譜と心像地理を構築していた。伝説を通して構築された歴史

と地理は、またもや満洲国によって専有されながら建国を正当化する機能をも果たした。

4章では、3章の考察に基づき、開国伝説が築き上げた満洲史の系譜の位置を解明しようとした。当時の歴史叙述も満洲の歴史系譜を構築しながら、日本と満洲との関係性を強調するという政治的機能を果たしていた。歴史と伝説は相互に同じ役割を担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伝説を以て歴史の系譜を構築した理由―伝説の有する真実性と感情的伝達力を出すため―を明らかにした。あわせて、あくまで満洲国とは一つの国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の歴史系譜が伝説のレベルにとどまっていた理由も確認しようとした。満洲国は事実上帝国日本の「郷土」たる支配領域であった。それゆえ、その系譜は神話ではなく、伝説レベルにととまるほかなかった。

のみならず、開国伝説の構築した満洲史の系譜の流布及び拡散についても調べた。『満洲の伝説と民謡』には、満洲史の系譜を広める機能もあったからである。この書物は数回にわたって再刊行されるにとどまらず、他の満洲伝説集の編纂にも影響を及ぼした。そのなかで『満洲夜話』は商売の面でも成功をあげており、なおかつ『満洲の伝説と民謡』より転載した満洲史の系譜の拡散にも貢献した。しかしこれは、本来の意図の開国伝説の真摯さを守ることには失敗した。これは、郷土言説の展開とともに生じた亀裂によって、従来より開国伝説の重要性が落ちてきたからである。

キーワード：満洲伝説集、開国伝説、伝説、再編、郷土、満洲国、歴史、神話、系譜

学籍番号：2016-27999